

1985
제 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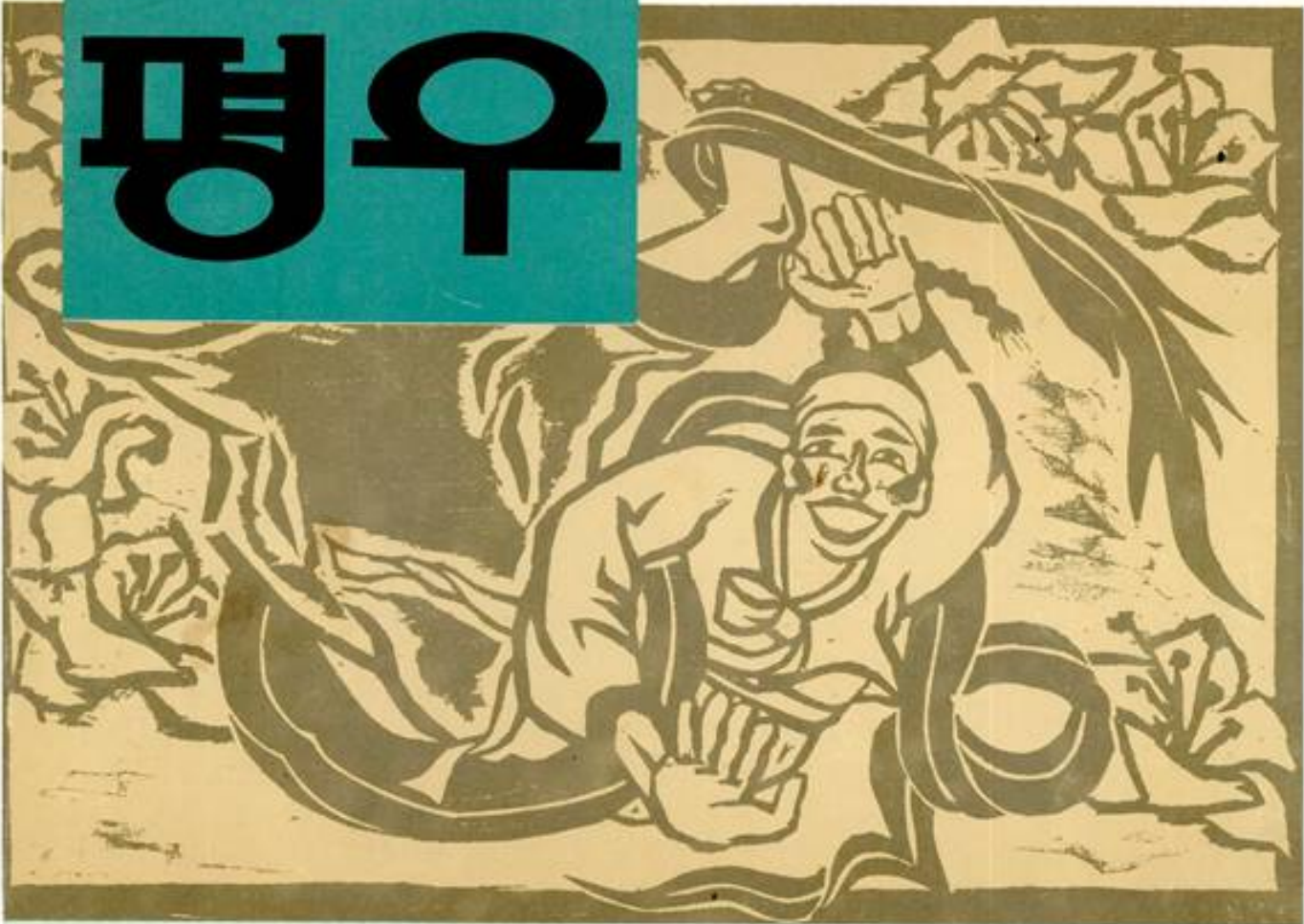
여성 평우

논단 70년대 이후 빈민여성운동
제3세계 여성운동/현대 브라질 여성운동

좌담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과 모색

시평 상반기 여성운동의 흐름과 평가/ 톰
보이 불매운동과 여성운동/ 25세 여성조기
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연합회

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농촌여성 현실/과중한 노동과 무권리의 현실
여성노동 현실 집단해고에 대항하는 안
내양/폭력으로 얼룩진 부흥사 연대파업



여성운동 진행속의 착실한 대변지로

'85년 초의 3호에 이어 4호를 발간하기까지 반년에 넘어서야 부족한 상태로마 내게 되었다. 그동안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다양한 계급과 계층에 있어서 주장의 소리가 높아졌고 운동의 발전 또한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들도 곳곳에서 수동적이고 무능한 존재로서의 자기 모습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주체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실, 그동안 이러한 주장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여성들의 소리 역시 여성운동으로 발전 비약시키지 못한 채 단지 '해설과 정리, 소식'만으로 회보를 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성평우'가 창간된 지 1년 반, 그동안 여성운동에 있어서 유일한 매체요, 대변지라는 것 덕분에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 속의 사랑이라기보다 '여자들이' 낸다는 것, 최초의 시도로서 '참 용하다'는 표현으로 될 수 있는 심정적인 격려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성평우'가 초기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한다면, '정치별의식의 극복'에 한정되어 있던 안식을 넘어 여성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구조적인 문제이며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 해결되어야 할 보편적인 사회 문제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껴준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정식으로 행장을 갖추어 부족한 상태로 4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4호에서는 1, 2, 3호의 성과를 달고 단순히 원론적인 문제의 도입이나 나열이 아니라 기존의 여성운동 성과를 정리하고 문제를 발굴하며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운동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론의 빈약과 시간제약에 의한 토론의 부족은 객관적 원칙적인 운동론의 확립을 목표로 상아 보편성의 획득에 주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및 운동적 제 현실을 통하여 경험적 결론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사실 '한국여성운동평가Ⅲ'에서는 빈민여성문제, 운동에 대해서 산만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과 모색'에서는 단편적인 이론 도입 및 소개에 그쳤고, '브라질 여성운동의 사례' 발굴은 큰 시사점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85년 상반기 여성운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병행성에 대한 부분적인 혼란이 있음을 이 글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여성평우'는 이러한 미숙함과 부족함 역시 함께 공유하며 심정적인 격려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 속에서 자기 모습을 발전시켜갈 때 여성운동의 대변지로서 착실히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 1985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여성평우회

마포구 도화2동 179-14 태
창빌딩 302호 ☎ 717-1060

차 례

논단 / 한국여성운동평가 III

70년대 이후 빈민여성운동..... 2

제3 세계 여성운동

현대 브라질 여성운동 (1920~64).....13

좌담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과 모색 20

시평

상반기 여성운동의 흐름과 평가 38

톱보이 불매운동과 여성운동.....43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 46

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48

여성노동현실

집단해고에 대항하는 안내양-상마운수 50

폭력으로 얼룩진 부흥사 연대파업 53

농촌여성현실

과중한 노동과 무권리의 현실 55

대회평

근로여성대회 57

이화민주대동제 60

투고 / 평생직장과 여성 63

부록 /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65

대회사 66

선언문 67

주제강연 69

사례보고 72

사례극 79

이경숙 —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70년대 이후 빈민여성운동



I. 서론

1. 도시빈민에 관한 이해

우리나라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후 특히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난 이후이다. 급속한 도시화의 한 현상으로 이른바 '관자촌'이라 불리는 무허가 정착지가 대도시의 변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 가장 명확하게 도시빈민의 실체로서 확인되게 되었다.

1960, 70년대 사회학자들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도시빈민이 역사적으로 쉼권, 파산자 등과 동일시되는 구미의 도시빈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건강한 생활의지를 가진 '도시 속의 농민' 즉 이농민으로서의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빈민에 대한 연구는 보다 구체화되어 '쉼권이 아닌 생산자'로서의 도시빈민을 도시비공식 부

문의 종사자로 이해하며 계급구성에서 이들의 위치를 주변 계급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보다 중요한 관심은 도시빈민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해명하고 이것이 갖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빈민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빈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도시빈민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서 여성이 보여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면서 빈민여성의 사회적 성격과 빈민여성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빈민운동과 빈민여성운동을 특별히 구별해야 할 이론적 당위성이나 현실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여성운동의 범주 속에 빈민여성운동이 어떤 식으로 그 위치를 규정해야 할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민여성운동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함이 불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성운동이란 흔히 '성차별 반대' 또는 '남녀

평등'에 국한된 좁은 개념이 아니라, 여성노동에 대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적 제약과 통제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자기 노동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빈민여성들의 운동은 충분히 여성운동의 이름 하에서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글은 분명히 시도적인 것으로서 많은 논리적 비약이 예상되나 여성운동의 이론발전에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도시빈민의 형성과 재생산

도시빈민은 독자적인 단일한 운동성과 생산관계를 지니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많다. 그들은 도시수공업자와 소상공인, 불완전 저소득 취업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노동자와 임시노동자, 실업자 등 지극히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관계상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갖는 사회적 성격은 그들을 빈곤에 빠뜨린 원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시빈민은 그 원천을 주로 농민의 탈농민화와 노동자층에서 경기순환과 노동능력의 상실로 탈락한 계층에서 갖는다. 이들은 자기 원천에의 회귀(취업에 의한 노동자화, 귀농에 의한 농민화)를 가지나 일부 정체실업 상태에 있는 층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독립단계에서의 이행과 함께 사회의 하층에 침전하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부단히 재생산되도록 되어 있다.

도시빈민이 자본주의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먼저 노동자의 경우, 자본주의의 산업예비군 유지의 필요, 자본주의의 순환적 과정에서의 실업의 필연성, 그리고 산업재해의 발생논리 등에서 주어지고, 농민과 수공업자 같은 독립소생산자의 경우 자본에 의한 이들 분야에 대한 장악과 경쟁의 격화에 따른 독립소생산자의 광범한 분해 및 분화에서 제시된다. 그리고 자본주의 독립단계에서 도시빈민층에 있어서 중소기업 노동자와 임시고용노동자의 잔존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기업으로서의 유지와 임시 고용에 의한 저노임실현에 그 기초가 있다. 그뿐 아니라 3차산업의 광범한 존재는 도시빈민의 중요한 재생산 기반이다. 3차산업의 성장을 근대적 취업구조에서의 올라감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으나, 많은 주변부 국가에서 보여지는 상황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광범위한 도시빈민의 위화장적인 3차산업정체와 또한 부도덕적인 여러 서비스업종의 도시집중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빈민은 자본주의 경제에로의 재생산 과정의 소산이며, 노동자·농민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논리의 관철이라는 순환계열상의 다른 범주로 되면서 이들 노동자·농민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즉 자본제와 과정에서 독립소생산자 또는 중산적 생산자로서의 농민 그리고 수공업적 생산자의 분해는 약간의 조건의 차이에 따라 노동자와 도시의 피구호민으로서의 도시빈민을 낳고 자본·임노동관계에서 실업·폐절화 노동자계급에서는 노

령화에 따른 노동능력의 상실로 도시빈민에의 순환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들 세 부류의 집단은 자본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해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본제 사회에서 중요한 민중구성을 이룬다.

자본주의 국민경제의 재생산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빈민의 형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1962년 이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된 한국경제의 성장유형은 수출주도형의 외연적인 불균형 성장형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측면을 가진다. 즉 이와같은 성장유형의 결과 한국경제의 재생산 구조는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과 저노임, 저급가치의 요구로 노동자, 농민의 소외를 가속적으로 심화시켰으며, 농민의 탈농민화와 노동자층에서 노동능력의 상실로 탈락한 계층, 도시비공식부문과 3차산업의 확대 등에 의해 광범위한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빈민의 존재는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자료로서 입증되지는 않는다. 단 정부통계에서 주어지고 있는 절대빈곤 계층만도 1980년의 경우 전 인구의 9.8% 3백 70만명에 이르고 가구비율로는 10.8%에 이른다. 이들 절대빈곤계층은 한국개발연구원 기준에 따르면 1인당 한달 평균소득이 대도시 20,161원, 중소도시 18,343원, 군이하 시골지역 16,525원에 미달, 기본생계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계층이다. 한편 보사부가 정부의 생활보호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절대빈곤인구는 전체인구의 8.7% 3백 28만명에 이르고 가구수는 81만 4천가구로서 이들은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도시빈민의 광범한 존재는 충분히 상황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에서 3차산업의 비대화이다. 즉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에 있어서 취업자 구성은 1962년 28.2%가 1981년 44.5%로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부문의 구성은 1962년 25.6%가 1981년 38.2%로 된다. 이것은 경제개발 계획과정에서 농촌의 폐쇄화에 따르는 농촌인구의 광범한 유출과 이들의 근대적 산업부문에서 취업 기회 부족에 따른 경제적 실업자로서의 침전과 여러가지 서비스부문의 불완전저소득 취업으로서 Y.라코스트가 말하는 '상업의 胃擴張의 팽창'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광범한 중소기업의 존재와 이들 중소기업에 있어서 저노임에서 제시된다. 우리나라에서(1979) 중소기업의 비중은 중화학공업 44.5%, 경공업 55.5%이고 현재 843,607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1961년에서 1979년 간에 소멸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산업은행 및 경제기획원「중공업 센서스」)이다. 이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500인 이상인 기업에서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98~30명 기업의 경우 87.4%로 크게 뒤떨어진 다. 중소기업은 독점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장과 소멸이라는 부단한 대류현상을 낳으며, 대기업의 보세가공적 하청고리로서 저임금을 일상화시켜 끊임없는 도시빈민의 재생산 기반으로 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의 과정은 상품경제의 농촌침투의 과정으로 되었다. 농민경제는 상품경제의 침투에 따라 자급부족이 해체된 채 상품·화폐경제에 휩쓸리게 된다. 또한 농가의 주요 생산물인 쌀에 대한 저가격정책으로 인하여 농가경제를 파탄화시켜 이동을 가속화시켰다.

1960년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율이 58.3% (1,459만명) 이었던 것이 1981년 25.8% (999만명) 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농촌유출인구 중 가구유출의 89.1%, 단신유출의 60.1%가 1.0 정도 미만의 토지소유자였고, 빈민지역에 관한 여러 조사에서 도시빈곤가구 중 영세농민출신의 비율은 6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네째로, 노동자계급의 실업(1985 4.1% 실업률)과 산업재해,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탈락 또한 광범위한 도시빈민의 존재를 밀반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거의 세계 제 1위이다. 노동부조사에 따르면 1981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국 5만 9천여개 사업장에서 116,700여건의 각종사고가 일어나 1,295명이 죽고 117,938명이 다치거나 직업병을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높은 산업재해율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노동자층의 도시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대략적으로 제시된 이와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광범한 도시빈민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것이다.

II. 빈민여성의 사회적 성격

1. 불완전 고용노동자로서의 빈민여성

빈곤가구의 특성으로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1981년 사회통계조사자료에 의하면 도시빈곤가구 중 여자가구주의 비율은 31.3%로 비빈곤가구의 16.9%의 두 배에 가깝다. 또 1979년의 서울시 조사에서도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의 51.7%와 법정영세민 가구의 9.3%가 각각 여성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가구주의 낮은 소득과 직업의 불안정성은 여성과 자녀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인다. 가족의 전구성원을 노동시장에 투입함으로써 가구주의 노동력가치는 전가족에게 분산되는 것이다.

빈민생활에 관한 연구는 남편이 취업한 경우에도 32.8%의 부인이 취업하고 있으며, 남편이 무직인 경우에도 부인의 취업율은 48.7% 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은 주로 단순노동, 영세상업, 기능공, 가내부업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은 성과 혼인상태(특히여자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빈민여성은 같은 계층의 남성이나 미혼여성보다도 일거리와 임금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들의 일은 거의가 비공식부문의 주변적 노동으로 단순노동, 행상, 노점 등의 과도한 육체노동이거나, 하청업체가 떨어뜨리고 간 가내수공업이 대부분이다.

빈민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인 단순노동, 영세상업, 가내부업, 영세서비스업들의 성격을 살펴보자. 먼저

(표)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직종별 분포

직종	비율(%)
전문기술직	0.6
사무직	3.3
서어비스직	0.6
영세상업	30.1
기능공	20.0
공원	6.5
단순노동	42.5
가내부업	11.1
분류불능	3.3
계	100.0

빈민여성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순노동은 건설업 분야의 일이다. 1970년 건설업 종사자의 1.4%에 불과하던 여성노동자의 수가 1980년에는 9.3%로 증가하였다. 건설업 분야의 여성노동자는 건설업체에 의해 건축기간 동안 몇 달간 교육된 같은 지역의 남성노동자의 의뢰를 받아, 마찬가지로 몇 달간 고용되는 임시노동자로 남성노동자 임금의 70% 정도를 받으면서 일한다. 건축이나 도로건설공사에서 또는 건물의 마무리작업 등에서 여성은 시모래, 벽돌지기, 모래자갈나르기 등 힘든 일과 도배, 페인트, 도게다시 등 뒷일을 맡아서 한다. 이러한 일들은 대개 개인 단위가 아니고 일집단을 이루어 도급을 맡아서 하게 되므로 반드시 일집단에 우선 참여해야 한다. 일집단은 대개 오아와 중간 소개인에 의해 지역내의 신용을 토대로 구성되므로 밀집된 빈민지역은 일집단의 연대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빈민여성의 영세상업은 노점상과 행상으로 나뉜다. 1981년 한국경제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노점, 행상은 빈민지역 취업가구주의 19%, 취업가구주 부인의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행상에서 얻은 소득은 월 10만원 미만인 56.6%, 40만원 이상이 불과 0.1%로서 지극히 영세하다. 이것도 건축노동과 마찬가지로 계절적, 기후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큰 애로는 잦은 단속과 노점상 행위 금지 및 철거이다. 노점행상들은 시장 경비원이나 구청직원 그리고 경찰의 잦은 단속에 걸려 구류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이는 이들의 소득을 더욱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빈민지역에서 주부들의 부업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은 아무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단순노동은 기술이 거의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매우 낮아서 경제구조 내의 최하위에 위치한 임시노동에 미운다. 부업의 종류는 옷, 양말, 장갑, 수봉기, 인형옷만들기, 목걸이구슬 만들기, 전화받침만들기 등등 무수히 많지만 그 수입은 하나

같이 1,000원 미만으로 극히 낮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민여성의 경제활동은 개별적인 형태로 행해지거나, 조직화된 도시경제구조의 최하위 부문에서 임시적, 고립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지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노동계급으로서의 분명한 인식을 갖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생산자로서의 빈민여성

도시빈민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경제로의 편입 과정 속에서 고용기회의 부족과 저임금의 압박 속에서 시달리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생활의 기본조건이며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에서 주거문제이다.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는 주거환경이나 주거비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주택의 존폐이라는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된다.

농촌에서 물러난 이농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빈민지역은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부재 하에서 야산이나 구릉지, 하천변 일대에 직접 이들의 손으로 집을 지어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여 놓았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하천부지나 황무지를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빈민들(이 중에는 물론 여성들이 포함된다)이 투입한 자본과 노력의 결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빈민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정부의 도시재개발사업은 그동안 철거, 이주, 복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빈민들로 하여금 몇 차례씩 무허가 빈민가를 전전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의 철거개발정책은 철거민에 대한 생계대책이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재개발대상지역이 곧 투기의 대상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건설비와 분양비 사이의 막대한 폭리적 이익을 독점하여 문제가 되었던 폭동이 그 한 예이다). 입주금이나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은 전혀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재개발로 인한 주택공급감소와 주택임대료 인상은 자기 집을 가졌던 철거민도 세입자로 전락시킴으로써 빈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1969년 하계층의 주거비는 소득에 대해 14.5%, 중계층은 11.0%, 상계층은 9.4%의 비율을 점하던 것이 1978년에 와서는 각각 16.9%, 12.3%, 10.7%로 증가하고 있는바, 주거면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는 가격의 원천인 지대이외에도 전자본제적이고 비생산적인 고리대 자본의 역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하다. 택지의 가격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세입금은 연 3할6분의 고리의 사채이므로 쉽사리 생산자본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택지개발(혹은 재개발)은 두 가지 측면 즉 자본의 지대착취라는 측면외에도 빈민이 때때로 전자본제 부분의 재생산인

을 노린 고리대 이자수탈의 양면성을 가지며 도시빈민은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철거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독점자본에 대한 재생산비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빈민의 다양한 취업형태, 반실업에 가까운 불완전고용 등으로 인하여 빈민이 노동계급으로서의 의식이나 결속력을 보이기 어려운 데 비해, 지역문제에 있어 지리적 격리와 함께 사회경제적 격리를 고려할 때, 지역집단으로서 빈민은 보다 뚜렷한 일체성을 보인다. 예컨대 식수문제, 하수도문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특히 철거문제에 직면하여 빈민은 쉽게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여 결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즉 지역 거주자로서의 빈민은 재생산 단위에서 공동의 목적에 의해 잘 결집된 지역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빈민지역집단의 구성원이란 점에서 빈민여성이 빈민남성과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빈민여성이 빈민남성에 비해 지역문제의 해결에 훨씬 더 조직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환경 개선이 바로 가족내에서 재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상의 재생산영역에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결속은 곧 철거라는 지역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기초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집단으로서 빈민운동에서 빈민여성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III. 70년대 이후 빈민여성운동의 전개

앞서 빈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빈민여성은 여성노동자와 달리 어느 일정의 계급적 범주로 설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70년대 이후의 일련의 빈민운동과정에서 빈민여성운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문제인식과 해결의 과정에서 일관된 여성운동적 특수성을 나타내면서 빈민여성운동이 명확한 사회운동의 한 부문으로 정착되어 빈민여성의 지위를 개선·변혁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조직되고 실현되어 온 면이 뚜렷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운동논리로 해명하려 하고 빈민여성운동을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는 실천적 인식의 결여로 인한 오해의 여지와 논리적 비약을 수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빈민운동과정에서 여성들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운동 속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로서 빈민운동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빈민운동과의 연속선상에서 빈민여성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70년대 이후 빈민여성운동의 대부분은 빈민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한 재생산영역에서의 운동이었다고 보여진다. 과거의 빈민여성운동은 주체의 성격과 방법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종교단체

가 대부분인 공개단체의 지역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점 자본이 그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의료, 금융, 교육 분야의 문제를 지역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그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비교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철거와 같이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단기간의 조직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양상을 띠어 온 운동이다.

단기적인 조직화 운동으로서 생존권 위협에 대한 저항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빈민운동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다. 여기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치열하고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커다란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잘 알려지지도 않거나 침체화된 위기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회적 성격의 운동으로 규정되어져 계속되는 철거정책에도 불구하고 운동경험의 축적이나 지역간의 연계로 이어지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역사회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빈민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민여성의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실험조직, 의료조합, 자모회모임 등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중심의 운동은 주거와 생계문제의 미해결 속에서 자금이나 지도자 부족, 일체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미흡 등의 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를 유지·발전시키려는 조직이나 빈민여성들의 노력은 장기적 안목에서 빈민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운동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역사회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기초조직과 공동체 의식의 확산이 폭발적인 운동을 매개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이 두 형태의 운동은 그 경험이 하나의 연대로 묶여지지 못하고 총괄적인 조직운동으로서의 지속성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두 형태의 운동의 몇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과거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빈민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 생존권 위협에 대한 폭발적 형태의 운동

가. 철거

광주대단지 사건 (1971. 8. 10~11)

지금쯤 성남시가 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서울 용두동, 마장동, 청계천변 등의 판자촌주민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한 것은 1969년, 앞서 1967년 서울시가 이곳에 50만평 규모의 위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후, 두 차례의 선거철을 거치면서 온갖 화려한 구호들이 남발한 채 철거민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림을 정리한 서울시 주민들이 몰려들어 인구 20만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시가 애초 '가수촌지'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선입주 후건설'이라는 계획으로, 선거철이 지나면 이곳 주민들은 형편없는 주거조건에 차츰 눈을 뜨게 되

었다. 공업도시건설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겨우 7개의 공장밖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2시간씩 걸리는 서울에 나가 생계를 구해야 했으며, 차츰 열악해져 가는 조건 속에 끼니를 굶기가 예사였다.

5월 26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서울시는 "전대 입주자는 6월 10일까지 전대입한 땅에 집을 짓지 않으면 땅의 불하를 취소한다"고 통고한 데 이어 7월 14일에는 전대입주자에게 분양된 토지 20평을 평당 8,000원~16,000원씩 불하하여 대금은 일시불로, 7월말까지 지불하라는 통보를 했다. 통보서에는 "만약 기한내 납부치 않으면 해약은 물론 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겠다"는 가혹한 단서가 붙어 있었다.

여기에 또한 경기도 당국은 그대로 토지취득세 부과통지서를 발부, 주민들을 극도로 흥분하게 했다.

이에 주민들은 제일교회의 박진하 장로를 위원장으로 각동과 통까지 조직을 강화하고 4차에 걸쳐 위원을 선출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들 '분양지 불하가격 시정위원회'는 ① 대지 불하가격 인하(500원으로) ② 구호대책과 취로사업보장 ③ 재 세금 5년간 면제 ④ 대지가 향후 10년간 연부상환 등 4개항의 진정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했으나 묵살되었다. 이에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8월 3일)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8월 10일 11시 중부면 성남파출소 뒷산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 실행하였다.

이날 양택식 서울시장은 11시에 그 장소에 나타나기로 불하대책위와 약속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분노가 폭발한 3만 주민들은 150m 떨어진 서울시 대단지사업소로 달려가 반트럭을 불태워 개천에 처박는 등 폭동화했다. 오후 1시 40분경 기동경찰 7백여명이 나타나자 군중들은 오히려 가열, 최루탄에 맞서 투석전이 벌어졌으며 이 사태는 오후 5시 반경 양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날 궐기대회는 "허울썩은 선전 말고 실행군중 구제하라"는 플래카드 아래 "① 100원에 매수한 땅 만원으로 폭리말라 ②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③ 공약사업 약속받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④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라 ⑤ 이간정책 쓰지 말라" 등의 내용이 든 전단이 뿌려졌으며 서울시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대지 불하가격을 5백원~2천 5백원으로 대폭 내린다. ② 재 세금은 향후 5년간 유예한다. ③ 할 24,500본(41,000가마)을 구호식량으로 방출한다. ④ 주민은 계속되는 사업장과 건설된 공장에 취업시킨다. ⑤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⑥ 서울통행을 위해 성남에서 영등포간과 을지로 5가에서 성남간의 버스노선을 개설한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도시빈민의 주택문제를 절박하게 드러낸 최초의 집단적인 저항이었다. 또 이 사건은 도시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악화되는 불량주거환경과 현지에 고용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허가불량주택에 대한 서울

시의 정책을 집단이주사업에서 현지개발과 양성화작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당동 판자촌 강제철거 (1981. 11. 19)

1968년부터 이농 무주택자에 의해 형성된 사당동 판자촌에는 그후 10년동안 양동과 이촌동 철거민의 집단이주정착으로 10백가 불어난 500여 가구 2,000여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철거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지연되어 오다 1978년 8월 내집값기 운동 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적극 호응, 새마을금고에 1억원까지 저축하였으나 차츰 추진위원의 간부들은 설계비부정착복, 토지매입부정 등 애초 연립주택을 짓기로 한 계획을 멋대로 수정, 아파트건설로 바꾸었으며 입주권을 남발, 프리미엄을 받아먹는 등 주민들의 이해를 무시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나 추진위 간부였던 이연수씨가 이를 양심적인 결단으로 폭로, 문제가 커지고 철거가 지연되자 당국에서는 동위원회의 철거요청수락이란 형식으로 기습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18일 저녁 철거 1주일 연기 라는 KBS-TV 뉴스를 듣고 안심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일터로 나간 사이 기동경찰 640명, 철거반원 260명, 구·동직원 650명 등 약 1,600명이 500여 가구의 무평판자촌을 박살냈다. 당시 부녀자, 노인, 어린이 등 250명이 지역에 있었으며 이들이 필사적인 저항을 하는 가운데 주민 14명, 철거반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철거를 가장 강력히 반대한 이연수씨는 반죽을 상태가 되도록 집단 폭행당한 후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가 철거반대 주동혐의와 공무방해죄로 구속되었다. 9시 50분부터 시작 5시간만에 끝난 작업이었다.

이에 전쟁터보다 더 철저히 파괴된 셋더미에서 날을 샌 주민들은 다음날 대책회의를 열어 ① 재개발추진위 부정행위를 규탄한다 ② 구속된 이연수씨를 석방하라 ③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야만적인 철거행정 시정하라 ④ 무책임한 언론 각성하라는 등의 진정서 및 호소문을 관계요로에 보냈다. 이에 대한 반응은 ① 군용천막 150개를 겨울용 주거대책으로 지급하겠으나 철거보상비 50만원을 받으면 거기도 들어갈 수 없다 ② 주민들이 전원 철거했을 때 이연수씨를 석방하겠다는 구두약속뿐이었다. 서울시의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에 주민들은 거부할 하였으나 후한과 위협에 전디다 못한 주민들은 가구주 50만원, 세입자 30만원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가거나 천막에서 겨울을 보내고 흩어져고 말았다.

서울시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대규모 판자촌이던 사당3동 철거사건은 거의 모든 운동권세력이 침묵을 지키던 시기에 일어나 일시적인 관심만을 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철거 당시 남자들은 거의 일터로 나가고 부녀자와 노약자들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이들의 저항은 생존권의 위협에 대한 치열하고 적극적인 대처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청주시 토지수용령 사건 (1984. 7. 26)

청주시 시설부지(내덕동), 공업단지부지(송정동), 도시개발(운천동) 등의 명목으로 이 지역들에 토지수용령을 발동, 시가 1/3에도 못미치는 헐값으로 적정보상을 외면하는 당국의 처사에 항의, NCC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8개 교회선교단체의 후원으로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이미 이 지역문제를 4~10차례 관계요로에 탄원, 진정 한 바 있는 주민들이 기도회를 마친 후 청주시장을 만나기 위해 시청으로 향하여 가자 수백명의 경찰이 무자비하게 구타, 73세의 할머니가 허리를 다치고 청년학생들이 귀가 늦어져 입원치료를 받는 등 유혈충동이 벌어졌다.

이에 항의, 주민들은 11일간의 금식기도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7월31일 주민 25명이 민원서를 작성,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또한번의 폭력이 난무한 채 주민들의 요구가 불가하다는 통고만을 받았다. 청주시 토지수용령 사건은 86, 88 국제행사를 앞둔 지방도시 개발과 공단의 지방이주 등으로 인한 토지와 주택문제가 지방으로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울은 밀집된 주택지역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지방은 주택보다는 농지 등의 넓은 땅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의 수는 적으나 토지수용과정에서의 비민주성과 공단이주시의 공해문제 등은 그 심각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양동 철거민 시위 (1985. 4. 3~4)

6·25 이후 전쟁고아, 맹인, 윤락녀 등 오갈 데 없는 무주택 서민과 60년 이후 이농민들의 집단거주 정착지인 양동은 '82년 헐흔호텔을 짓기 위해 강제 철거당한 600여 세입자들이 무보상~30만원의 이주보조비를 받고 흩어진 바 있으며 계속되는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나머지 건물이 철거에 직면하게 되었다.

3월18일 정부의 세입자대책에 관한 4개 항목이 발표된 후 이의 부당함과 비현실성을 항의하는 주민들 300여명이 철거대책을 주도해온 부녀회를 중심으로 4월 3,4일 양일에 걸쳐 연좌농성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를 먼저 아파트에 입주시킨 후 철거하라 ② 아파트 입주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갚아 나갈 수 있게 하라 ③ 아파트 입주가 어려울 경우 집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과 건축자금 융자하라 ④ 서울시장은 더이상 양동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⑤ 민정당은 더이상 우리를 기만 말고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라 ⑥ 각 정당과 언론 및 사회단체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말라 ⑦ 영세민 생존권을 박탈하는 철거를 결사 반대한다.

주민의 대부분이 일제로 살고 있는 양동은 주민구성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 번두리의 빈민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매우 희박한 곳이다. 그러나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주택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세입자부녀회 중심

의 빈민운동은 절박한 생존권의 위기에 접한 상황에서 빈민여성의 적극적인 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과거 가옥주 중심의 철거반대투쟁과는 달리 주민 대부분이 세입자들로서 세입자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한 점에서 빈민운동의 발전을 보여주는 시사적인 사건이다.

목동 철거민 철거반대투쟁 (1983. 7~1985. 3)

목동 주민들은 1964년 후암동·대방동·대현동 등지의 철거민으로 1가구에 8평씩의 땅을 대어받아 20여년을 살면서 손수 투쟁과 관자로 관자집을 지어 살다가 불복과 기와집으로 개조하였고 가옥주 2천6백 세대, 세입자 5천2백 세대, 총 3만 2천 명세민 거주지역이 되었다.

서울시는 '83년 4월 신정동·목동지구에 신시가지를 건립한다는 내용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서울시는 토지공영화조치를 위하여 서민들에게 싼 값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개발지구의 토지를 7~14만원에 매입하여 평당 105~134만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한다고 항의하였다. 더구나 초기의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바꿔 맨션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여 세입자는 물론 가옥주까지도 입주하기 어려운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보도되자 주민들 항의로 '84년 5월 1차 철거가 8월로 연기되었고, 주민들은 통장중심의 철거대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주민들의 요구는 ① 선입주 후철거 ②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과 이주비 현실화 ③ 가옥주와 세입 입주권 보장 ④ 임대아파트의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책정 ⑤ 원가분양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84년 8월 27일 시장과 면담하려는 목적으로 부녀자 중심의 주민들이 양화교까지 진출하자 교통이 차단되고 경찰의 무차별 구타와 시위진압으로 주민 100여명이 연행되자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천여명의 다시 시위, 400여명의 주민이 또 연행되었고 '85년 3월 20일 주민과 학생과의 연합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상, 실신하고 가스에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시위를 하자 경찰병력을 마을로 투입, 주민을 감시하였다.

'83년 4월 신시가지 개발발표 이후 '83년 7월 서울시가 싼 값으로 땅을 매입하는 데 항의하여 1시간 동안 시위한 것을 시작으로 '85년 3월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49차례에 걸친 시위와 79회에 걸친 진정이 있었다. 투쟁과정에서 경찰의 연행과 폭력행사, 감시·당국의 위협과 주민이간이 계속되었고 '85년 3월 25일 전후로 가옥주 8명이 구속되었다. 그후 대책위원들의 구속과 경찰을 동원한 탄압으로 활동이 침체되고 자진철거와 강제철거로 여자들은 호소문·진정서 작성과 때로, 기도회 참가와 호소, 시위농성 등을 주도함으로써 주민운동을 이끌어간 원 주민들은 거의 마을을 떠났다.

목동사건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불합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생존권 위협에 대한 태도가 그만큼 절박하고 단호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빈민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운동가능성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되었다.

L. 노점상

노점상단속 항의 시청앞 시위 (1983. 7. 19)

서울시가 ASTA (미주지역 관광업자회의)와 IPU (국제의회연맹) 총회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명분하에 폭력을 휘두르며 노점상들의 손수레, 가판대 등을 강제압수, 폐기처분하자 19일 상오 11시부터 하오 3시까지 3, 4명씩 짝지어 시청 앞에 몰려든 부녀자 등 노점상 1천여명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청 앞의 교통을 막으며 계속된 시위에는 기동경찰 2백명이 출동, 상인 5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으나 건설관리국장이 종로·을지로·청계천을 제외한 뒷골목에서는 지나친 단속을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해산됐다.

이들이 내건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점상 단속 완화 ② 도심주변의 야시장 개설 ③ 장기적인 생계대책 마련 등이다.

빈민들이 도시경제내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일이 노점상 행상이었고 이들에게 위협적인 일은 바로 단속이다. '83년 시청앞의 시위는 그 규모와 문제의 과급에서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위협과 그에 대한 처항도 점차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빈민의 생계의 주요형태인 노점상에 대한 단속문제는 대규모 도매시장이 단지화하여 이주하면서 과거 노점상이 담당했던 영역을 상실시키는 것과 함께, 개별시장에서는 노점상과 시장내 상점과의 상관다툼으로 인해 앞으로 그 문제의 과급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C. 수 해

난지도 수재민 시위 (1985. 9. 7)

서울시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난지도가 수해로 침수되자 9월1일 이곳 957세대 3천여명의 주민은 근처 상암국민학교로 대피하였다. 쓰레기를 줄고 사는 도시극빈자들이 모여사는 이곳을, 원래 정부는 한강종합개발사업 실시 이후 현재의 거주지를 철거하고 한 가구당 4평짜리의 조립식 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는 해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서의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도시미관만을 고려했던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수해를 맞은 주민들은 막대한 가운데 컵라면과 주먹밥으로 연명해왔으나 9월 7일 오후 1가구당 라면 1박스와 하이타이 1개를 줄테니 학교에서 나가달라는 통고가 떨어졌다. 이에 분노한 2천여 주민들은 구청장을 만나 화답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모래내시장, 성산화관, 마포구청으로 몰려가며 저녁 5시에서 새벽 2시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삼청대, 전경들의 무차별한 구타, 진압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주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① 모금된 수해의연금의 적정배분 ② 하루 1인당

쌀 420g, 부식비 300원 지정금 지불 ③ 구획이 난다고 복구가 지연되는 데 대한 해명과 복구를 위한 장비지원 ④ 철거 후 거주할 조립식주택 평수를 4평에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폭압적 진압은 37명의 구속자와 42명의 중·경상자를 낳았다.

9월 8일 주민대표 9명과 구청장이 긴급대책위원회를 열고 합의각서를 쓴 후 연행자를 석방하고 1가구 5인 기준으로 3만원과 쌀 20kg을 지급하고 복구작업을 추진했으나 이 지역은 기관원의 주민사찰 감시가 강화돼 여전히 철거문제는 집더미로 남아 있다.

2. 기초조직 형태의 운동

가. 민들레 유아원

인천시 화수동 (도시산업선교회) 일꾼교회의 빈민지역사업의 일환으로 1980년 9월 개원하였다. 낫벌이를 하는 빈민가구의 2~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보아 준다.

교회가 처음 노동교육의 장소로만 쓰여질 때는 주민들이 교회를 보는 태도가 경직된 상태였으나 유아원 개원 후에는 지역의료사업, 신용협동조합에 참여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유아원은 교회의 지역사회합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아동들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주민과 만났으나 점차 자모들을 유아원에 모이도록 하여 유아원 운영 과정 및 자모회를 통하여 부모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자모회와는 월 1회씩 모이며 일반유아원과 달리 유아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론했어 결정하며 회의주도 및 행사준비, 문제가 있는 가정방문들을 자모들이 하는데 이를 통하여 자모들은 민주적 사고와 공동체 훈련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모두 직장에 다니는 자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월 차등의 휴가를 이용하여 점심식사·간식준비를 한달에 한번씩 번갈아 맡고 있다.

한 유아가 2~3년씩 머물다 가므로 교사와 자모들 상호간의 인간관계도 깊어 졸업 후에도 기별로 자모들이 동창모임을 갖고 있는데 동창 자모들의 집을 돌아가며 모이는 친목계 형태로 서로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지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단기적인 아동을 통한 만남에서 벗어난 좀더 발전된 형태의 여성모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친목회 중심으로 타지역 자모들과 연계도 시도하고 있으며 유아원운영의 독립(현재 교회로부터 교사 1인의 인건비 보조)을 위하여 지역 후원회를 모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자모 모임은 자모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임의로 조직활동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점도 있다.

아동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이므로 다른 사회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모임의

결속도로 보아 그 전환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 같다.

나. 해송 아기동지(탁아소)

전신은 난곡 해송유아원과 해송보육학교이며 1984년 9월 창신동에 문을 열었다.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시설이 확대되는 반면 왜곡된 조기교육 열풍과 부모들의 취업에 따른 종일보호시설의 미비, 사회집단과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교과과정 등 교육환경의 획일적인 적용이 문제점으로 등장하면서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획일화되어 가는 초기 사회화 과정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출발에서 시작되었다.

부모가 모두 밖에서 일하고 돌보아줄 친척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만 1.5~4.5세까지의 아직 자립적인 생활(밥을 쟁겨 먹고 함께 노는 일)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탁아소이다.

빈민지역내의 가정형 탁아소의 시도로 일반 가정집을 세내어 탁아소를 시작하였으며 시설물이나 가구도 지역에서 조달, 그 지역 일반 가정의 환경과 다름이 없다.

교사는 야간 해송보육학교 출신이며 보조교사는 지역에 사는 주민 중의 한 사람을 훈련시켜 참여시키고 있다.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여 아동들에게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만남도 아동을 통한 1차적 관계를 형성한 후 부모모임을 확산시켜 탁아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의 지역이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철거 후 집단이주를 할 경우 같이 이주를 할 것이며 분산될 경우 주변의 다른 빈민지역을 찾아 탁아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다. 민들레 의료협동조합

80년대 빈민사업의 일환으로 일꾼교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일차 의료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신뢰를 얻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치료를 원하는 대상의 지역 및 경제적 한계를 두지 않았으나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조직화작업을 하였다.

시작 1년 후 계속 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모아 총회를 열고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 서로 돕는 지역협동체를 이룩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둔 민들레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의협 조직 후 주말에는 진료, 평일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체적의식을 일깨워 나갔으며 의료사업을 통한 주민의 민주화사업 방안도 모색해 왔다.

진료참여의사는 수련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진료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나 환자 중 1차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전문적인 의학지식보다 예방의학적으로 접근, 그에 대한 교육을 강연 등을 통해 실시하기도 하였다.

진료과목은 일반진료, 치과진료, 영유아관리(영유아 문제에

대한 교육, 예방접종, 임신부 관리 등이며 중환자의 경우는 인천시내에 개업한 전문의들에게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주민들도 집단교육을 통하여 상호간의 유대강화, 소그룹 단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 참여자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소그룹모임의 활성화를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부족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현재는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상근 실무자가 없어지고 또 조합원들의 호응미약으로 조합의 조직력을 활용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몇몇 발굴된 리더와 관계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복음자리 신용협동조합

1977년도 양평동 빈민지역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하여 만든 마을이 복음자리 마을이다. 집단이주 후 안일에 빠지기 쉬운 주민들에게 빈민운동적 측면에서 계속 긴장감과 운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 과제이다.

복음자리 신용협동조합은 함께 사는 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다. 실험은 빈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 조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실험의 주입구는 여·수신 업무이나 조합원 교육 형식의 대대적인 행사를 연중 몇차례 벌여 주민들의 응집력·추진력을 키워나가려 한다. 또한 이러한 대중 행사를 통하여 빈민문제 발생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훈련이 될 수도 있다.

단오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자 실험 창립기념일로 온주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이다. 낮에 하는 체육대회는 마을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저녁에 벌어지는 잔치판은 농악, 탈춤과 더불어 동네의 잔치가 된다. 여기서는 함께 어울려 놀이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체감을 느끼게 되며, 모여진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문제 예방의 일환으로 지역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 인근부락의 팀들을 참여하게 하여 서로 만나게 하며 지역간의 연결을 유도하고, 청소년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지역 청소년을 묶어주고 있다. 청소년문제 예방과 청소년의 의식화를 담당하며 타지역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하여 좀더 넓은 지역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한다.

조합원 야유회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조합이름으로 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0~2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교육은 지역별(동네별) 소그룹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원 교육도 선교육 후가입 형태를 취하여 철저한 교육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일단 조합원이 되면 지역별로 매주 모여 실험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이때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경로잔치는 5월 가정의 달에 치르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정에 대해 노인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비록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호응없이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여기서는 노인들의 참여·찬성의 마음자세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상은 복음자리 실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 모든 행사가 주민들의 일체감 형성, 함께사는 공동체 의식의 고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외에 복음 장학회가 조직되어 있다. 장학회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인 회비와 단오제 등에서의 바자회를 통한 이익금, 찬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회원중에는 장학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원(자녀가 성장했거나 없는 경우)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 의식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등록금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점차 그 폭을 넓혀 지역학생 모두의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실험과 장학회 사업이 지역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완전독립체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운영·이사회 등은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실무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민에 의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이 하루바빠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복음자리의 모든 행사는 개인이 안주하려는 마음자세를 끌어내어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동체 의식 결성에 노력하는 과정이다.

□. 난곡지역 희망의료협동조합

난곡지역은 1967년 구로 박람회시 대방동, 안양천 철거민들의 정착지이다.

이 지역은 의료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여성들의 소그룹이 중심역할을 한 곳이다.

1973년 김사라씨가 이주하여 지역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여성들을 만나 소규모의(15명 정도) 국수클럽을 만들어 모임의 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모여 국수를 삶아 먹으며

사소한 가정문제부터 시작, 지역문제 등을 이야기하였다. 당시의 지역 상황은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상·하수도·쓰레기차·오물차등)조차 충족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모임을 이끌자 지역여성들이 호응하게 되었다. 1년반이 지난 후 협동하여 '생필품 공동구매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산동네는 특히 생필품값이 비싸므로 비누, 미원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이때 3명이 한조가 되어 매월 돌아가며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곤 문제, 구입 경비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 곧 그만두게 되었다. 그후 지역의 생활문제중 생계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건강문제로 눈을 돌렸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므로 대부분이 그냥 죽어가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빚만 지게 된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봉사팀을 물색 1974년 9월부터 가톨릭 의대팀이 주말진료를 실시하였다. 진료를 통하여 주민들과 만나고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면문제를 인식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 때 무료시혜의 불신감을 없애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 소액의 진료비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준높은 진료를 하자 진료를 필요로 하는 빈민들은 시간적·거리적 어려움, 열등감 등으로 진료를 회피하게 되고 비교적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진료의 주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문제를 중심으로 빈민들끼리의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대처 방법으로 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난국 희망의료협동조합을 76년 3월에 구성, 전체 6,700 세대중 170세대가 참가하였다. 여기서 모아진 기금으로 지역내 중병환자를 치료하는데 보조하는 등 공동체 의식 함양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수를 증가시켜 나갔다.

그러나 81년 10월 정부보조하에 한림사회복지관이 들어오고 한강성심병원의 의료진이 외협의 기반을 이용하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관측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한강성심병원측의 무성미한 태도때문에 83년 12월 복지관과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84년 6월 주민들이 새로운 외협조직을 위한 총회를 열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논의한 후 다시 의료팀과 연계를 갖고며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VI. 결 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빈민여성운동에 대한 실천적인식의 결여와 상당한 논리적 미약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운동을 어느 정도 분석하여 논리적 틀을 구축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빈민여성운동을 활성화하고 실천적 운동가를 배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되리라 생각한다.

과거의 빈민운동과정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그러한 빈민운동에 열렬히 참여하였다는 것은 타계층의 여성이나 빈민남성과는 다른 빈민여성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재생산자의 위치에서 빈민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빈민여성은 대부분 기혼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가족내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이 강하다. 남성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 수입의 가족내 재분배를 통해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산의 기초인 주거문제가 생존을 위협하는 철거등의 상황에서 그 반발력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는 남성에 비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빈민여성은 미비한 지역설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자연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재생산 문제도 지역내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어 지역 재생산의 문제를 담당하는 지역운동으로서의 집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셋째는 빈민남성에 비해 그나마 사회적으로 박탈당할 노동권조차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들이 운동에 참가할 때 현직장에서 쫓겨나가거나 당장 생계를 이어갈 직업을 포기해야 할 염려가 있는 반면에 그럴 기반마저 없는 빈민여성의 현실이 투쟁성을 제고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빈민여성은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중산층여성에게 비해 재생산영역 운동의 주된 담당자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산층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가정의 수입면으로도 재생산문제가 가족내에서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재생산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힐 계기가 적다. 따라서 수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자각이 결여되고 재생산은 사적으로 고립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체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재생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반면에 빈민여성은 항상 빈곤과 주거문제의 미해결 속에서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살면서 자신 및 가족의 재생산문제가 개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빈민지역 모두에 공통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실천적 자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빈민여성의 사회적 성격을 재생산 영역에 비중을 두어 지역운동의 가능성을 이와 같이 본다면 빈민여성의 생산자로서의 역할과 운동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생계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면 생활이 좀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는 절대적 빈곤 속에서 빈민여성은 생계비 확보를 위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이기는 하나 대부분 생산노동 및 행상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민여성은 재생산자로서의 일체감이 강하고 생산자로서의 의식이나 권리확보에 소홀하다. 이러한 생산자로서의 의식의 결여는 그간, 빈민여성운동의 범주를 축소시켜왔으며 가능성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단지 철거라는 위기적 상황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움직임인 것처럼 제약시켜 왔던 것이다. 빈민여성을 재생산자로서만 아니라 생산자로서 파악하는 것은 빈민여성운동이 생산영역에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뜻하며 생산영역에서의 권리확보과정의 병행이라는 빈민여성의 지위향상이 불가능한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빈민들은 주로 비공식서비스·영세자본과의

관계에서 재 물을 때 내지 못한 층이 그 부족부분을 최저의 생활수준으로 보충해 내기 위해 밀집되어 있고 생활수준 또한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절약보다는 어느정도 노동의 정당한 몫을 때내려는 노동운동과 결합하지 않고는 지위개선이나 변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빈민여성운동 또한 재생산 영역과 생산영역에서의 운동이 통일되어야만 발전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민여성운동을 일상적 운동으로서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빈민여성운동은 단순히 빈민운동에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거나 빈민내부의 남녀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좁은 안목으로서의 논리가 아니라 빈민여성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빈민여성운동이란 빈민가족, 빈민계층의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생산과 재생산영역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려는 시도와 움직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단기적으로는 재생산과 생산영역의 통일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운동의 가능성 속에서, 또 장기적으로는 각 빈민지역의 문제 자체를 공동인식화하고 이에 따른 빈민지역간의 연계와 정책적 차원에서 요구와 해결로 이어짐으로써 그 실천성을 갖게 된다.

그러면, 실천적 의미에서 빈민여성운동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인가?

빈민여성운동을 재생산의 조건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생존권확보의 영역과 생계비절약의 영역이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실천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생존권확보의 영역은 생존하기 위한 조건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임금 및 생계비의 절대량의 확보와 주거문제에 있어서의 절대적 조건의 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규정지워진다. 이러한 생존권확보의 영역은 첫째 생산자로서의 권리쟁취이다. 생산자로서의 권리쟁취를 운동의 한 부분으로 설정한 것은 이때까지 빈민여성의 존재를 생산자로서 파악하는 데 소홀했고 또한 빈민여성운동을 생산자로서의 권리쟁취에까지 개념을 확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적극적인 권리인식과 운동으로까지 심화시켜야 한다는 차가에서 나온 것이다. 거의 모든 빈민여성들이 실제로 사회적 노동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인식에 눈뜨지 못한 것은 여성노동운동의 과제임과 동시에 빈민여성운동의 과제이다. 미혼여성근로자들의 노동운동성과가 결혼퇴직제를 철폐하고(제도적 철폐뿐 아니라 주관적 인식의 변화까지) 평생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기혼여성의 취업에도 이전되어야 하지만 기혼여성들이 현재의 잡직·임시직·임시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정식의 고용권으로 쟁취해 나가야 한다.

둘째, 취업형태별로 조합형태의 기구를 만들고 그 지역내 일감의 재분배와 함께 생계비확보의 절대적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빈민여성들은 앞서 본 것처럼 취업방식이 극히 개별 분산 고립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가내하청, 외판원, 행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취업방식이 분산·고립되어 있으나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으므로 그 잇점

을 살려 지역별 조합행식을 구상할 수 있다. 가내하청은 공동작업장을 통하여 공동의 인식과 함께 초보적인 단결을 꾀하고 중간고리를 타파하여 지역별 개별 침투로 인한 이익저하를 막아 정상적인 임금의 형태지불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행상의 경우도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공동구매조합이라든가 자금을 융통하는 신용협동조합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셋째, 주거문제에 있어서의 절대적 개선이다.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조건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의 문제는 항상 빈민여성운동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철거반대시위에서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의 원인은 앞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나 일상적인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하수도의 문제라든지, 소방도로, 공해,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식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일상적인 운동을 통하여 지역내 결속과 더불어 지역운동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당한 주민의 권리로서의 주민운동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생계비 절약의 영역으로서의 실천적 방법론은 여성이 고유하게 담당해온 소비의 영역(재생산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영역적인 요소와 결합되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공동화를 통한 소비절약과 공동체형성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공동화를 통한 소비절약은 주로 소비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지역의료보험의 실시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공식적 사회보장서비스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빈민의 금융·의료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탁·의협 등은 이러한 형태의 운동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형성의 프로그램은 절대적인 주거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재생산영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이를 통한 공동체意識의 형성과 확산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빈민가족의 재생산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서 탁아소 공부방, 도서관 등이 가능하며, 주민의 절실한 요구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설의 운영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이루어지고 소비절약의 방법들과 더불어 지역 전체의 공동체意識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빈민여성생활의 모든 국면에서의 문제해결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론의 모색은 한 지역내의 문제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민지역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이를 가능케 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경제적인 생존권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빈민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익투쟁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빈민여성운동의 개념과 운동영역의 확장이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현대 브라질 여성운동

(1920~64)

머리말

제3세계 여성해방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자료의 빈곤이다. 지난 3호에 이어, 이번 호에 다루게 될 브라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브라질 여성운동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인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된 사례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여성운동부분은 Heleith Saffioti의 *Women in Class Society* (1978), pp.197~229를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1. 브라질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특징

브라질은 발전과정이 한국과 유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은 나라이다. 이 연구가 1965년 이전으로 한정되어, 최근에 브라질에서 전개되는 여성운동을 살펴볼지 못함으로써 많은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바르가스 체제와 그 이후의 3대 정권이 추진한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전개되는 브라질 여성운동은 한국에서는 없었던 참정권 투쟁을 비롯하여 대도시 중심의 좌익여성운동 또한 활발하였는데 이것은 1980년 이후의 한국의 여성운동 차원보다도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클 것이다.

물론 이 시기의 브라질 여성운동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브라질 사회가 한국 사회처럼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브라질의 현대사는 1931년 바르가스 정권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바르가스 정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인민주의(populism)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인민주의 체제란 지주와 수출(1차산업위주의 수출) 부르조아지에 대항하여

공업부르조아지와 노동자가 맺은 동맹정권이다. 이러한 공업부르조아지와 노동자의 동맹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브라질이 1891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 1차상품 수출로 특화되어 온 경제구조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제구조가 지속되면서 공업발전을 지향하는 제 세력은 전통적인 지배집단과 대항관계에 서게 되었으나, 산업의 미발달로 그들 부르조아지의 힘은 미약했다. 따라서 단독으로는 정권을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자와의 동맹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부르조아지에게 있어서 노동계급은 지주계급에 대항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맹자이며 동시에 그들의 임금수준의 향상은 그들에게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바르가스정권은 노동자계급의 보호육성에 치중하였는데,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의 설정, 단체교섭권의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산업별·직업별 전국조직의 결성을 추진했다. 노동자계급도 바르가스정권의 노동자보호육성정책을 환영했으며, 당시 좌익세력의 혁명전략도 이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바르가스정권의 인민주의적 성격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된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경제적 해체를 겪게 된다. 1954년 바르가스의 자살로 바르가스 2차 정권이 물러나고, 쿠비체크(1956~61년), 구아드루스(1961년), 굴라(1961~64년)정권이 뒤를 잇는다. 이 3대 정권은 그 계급기반이 된다. 이 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바르가스정권과 유사하나, 인민주의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 해당된다.

인민주의체제가 해체되는 한 요인은 바르가스 정권이 자본축적의 미약과 계급이 미분화된 조건 하에서도 공업화를 무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하였던 1차상품(주로 커피와 광물 지하자원)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1950년대 초에 들어 국제적인 1차상품의 붐이 끝나고 수출가격이 하락되자

무역수지가 적자기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자본축적이 미약한 바르가스정권의 민족주의적 발전을 위협했던 것이다.

인민주의체제 해체의 또다른 요인은 공업부르조아지의 우경화와 과두지배체제의 대두이다. 공업부르조아지가 우경화된 원인은 ① 동서 양진영이 냉전체제로 돌입하면서 인민주의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었고, ② 브라질 공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1차상품의 수출에 의존하여 공업육성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공업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대규모의 자본이 요구되었고 이에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유입이 현저해지면서, 국내자본과 미국자본의 유착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아래 인민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쿠비체크(1956~61년) 정권은 바르가스정권 때 적극적으로 육성했던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한 지원을 그치고, 외국독점자본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1960년에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총무자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하였다. 쿠비체크의 민족주의적 포기는 1961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개혁을 내세운 구아드로스의 당선으로 국민적 단죄를 받는다.

구아드로스는 해외로의 이윤송금제한, 독점의 규제, 농지개혁, 체제개혁, 전방위외교 등의 정책을 폈으나, 불과 8개월도 못되어 사임하고 그 뒤를 이어 부대통령인 굴라가 집권한다. 굴라는 쿠비체크의 개발주의와 구아드로스의 사회개혁을 결합한 내용의 정책을 펼치려 했다.

굴라는 정권 초기에 거국일치내각의 조직을 지향하는 등 보수파와 중도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보수파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정부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보수파와의 결별을 결의하고 1963년 1월, 국민투표(대통령제의 가부를 묻는 투표였다)에 승리하고 나서는 좌익세력에 의존하였다. (당시 체제 밖에 있었던 주요 좌익세력으로는 공산당이 있었고, 그 영향력은 주로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공산당계의 농업노동자해방연합(ULTAB, 1957년 창립)은 농업노동의 조직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고, 1963년 11월 ULTAB가 중심이 되어 농업노동자연맹(CTA)이라는 광범한 전국조직이 결성되었다. 공산당이 농촌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민주혁명노선에 기초하여 농촌에서도 지대의 개선, 사회보장의 실현 등의 잠진적인 개혁을 제창하여 구아드로스·굴라 양정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굴라가 좌익세력에 의존했다고 하지만 그 방식은 전국 각지를 순방하여 대중집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열광적인 국민의 지지 아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1964년 3월 초, 국방성이 마주보이는 광장에서 15만명이 모인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에서 굴라는 농지개혁법에 서명하고 석유·정유시설의 국유화를 발표했다. 이 농지개혁법이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간주되었을 경우, 국도·철도 기타의 공공시설 주변의 토지를 접수한다는, 매우 한정된 내용을 가진 것이었지만, 대중동원방식이라는 방법 때문에 보수파를 크게 자극해 보수파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우익세력의 위기의식 속에서 부인시민연합이라고

불리우는 우익부인단체가 '신과 함께 자유를 지향하는 가족대모'를 전개하였고 그것을 필두로 보수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1964년 4월, 브라질의 장기군사독재의 시작인 쿠데타가 카스텔로 브랑코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2. 브라질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1940~197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이래 브라질 사회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산업화 내지 공업화였다. 이것은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브라질은 이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지역적·문화적 이중구조를 만들면서 심한 구조적 불균형을 겪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종속적 자본주의경제개발이 브라질 여성운동에 어떻게 작용했으며,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브라질 여성의 노동참여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산업화의 초기단계로 농업이 고용의 주된 원천이며 상업과 수공업이 가정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던 첫번째 시기에서 여성은 노동과 가정의 의무를 쉽게 조화시킬 수 있었으므로 노동과 잘 통합되어 있었다.

둘째 단계에서의 경제개발은 여성의 생산활동참여를 감소시켰다. 농촌경제구조가 점점 자본주의화되고 상업화되어 감에 따라 남성은 대농장에서 여성의 자리를 차지했고, 남녀 총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나아가 산업화가 진행되자 가정이 생산의 중심단위였던 가내수공업 생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던 중심적 역할은 상실되었다. 가정이 경제적 중심의 위치를 상실함에 따라 가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은 성별에 따라 분리되었고, 이것은 남성의 경제적 독립 및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가져왔다.

기술적 변화, 즉 중개되는 다른 도구 및 기계화의 도입 역시 여성보다 남성의 노동참여 증대를 강화시키는 경향을 가져왔다.

도시로의 이주도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사회적 상황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도시에서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열악한 수준의 생산활동에 흡수되어 낮은 임금을 받는 환경하에 경제적인 주변화가 촉진될 뿐이었다. 그리고 흔히 그러한 아주 열악한 생산노동 및 저임금에 고용되는 것은 여성이었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3차산업부문에 집중된다.

다시 산업부문별로 이 문제를 보자면 농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을 때 노동참여는 남녀 모두 높았다. 저개발지역에서의 농업생산의 유형이 여성의 활동을 장려했으므로 이 지역에서 농업노동에의 여성참여는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점점 자본주의화, 상업화됨에 따라 이 부문의 전체적 노동참여는 감소되었고, 여성이 집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수준 감소는 농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2차산업부문에서도 여성노동은 전체고용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공장제 기계공업

이 수공업을 대체한 곳에서 여성은 공장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수공업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2차산업부문에서의 여성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산업에서의 여성고용을 보면 도시에서의 생산적 서비스 및 집단지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 증가는 여성의 가정내 활동의 연장이라고 간주되는 직업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와 같은 직업에서의 참여가 증가된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위치,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항상 증진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풍속적 자본주의의 경제개발 하에서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수준은 증진되지 않으며, 남성과 비교할 때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브라질 여성운동의 전개(1900~1964)

1) 여성발전: 초기의 투쟁

브라질 최초의여성운동은 베타 루츠(Dr. Bertha Lutz)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녀는 영국여성운동이 가장 폭력적인 국면에 달해 있던 1차세계대전 직전에 런던을 방문했고, 과라에서 학위를 받은 후 1918년에 브라질에 돌아와 여성 해방을 위한 최초의 대변인이 되었다. 1919년에 그녀는 브라질 여성운동의 지도권을 맡게 되었고, 올가 드 파이바 메이라(Olga de Paiva Meira)와 국제노동조직의 국제여성회(International Women's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abor)의 브라질 대표가 되었다. 이 회의 첫번째 모임에서 두 가지 일반원칙이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① 성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② 모든 정부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와 법률의 준수를 위해 직원의 일부가 여성으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둘 것 등이었다.

그후 그녀는 볼티모어에서 열린 범미회의(Pan-American Conference)에 브라질 대표자로 갔다 와서, 최초의 브라질 여성운동 조직인 '여성의 지적 해방을 위한 연맹'(League for the Intellectual Emancipation of Women)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조직을 모체로 1922년, 미국여성운동가 캐리 채프먼 캐트(Carrie Chapman Catt)의 후원을 받아, '여성의 진보를 위한 브라질 연맹'(Brazilian Federation for Women's Progress, BFWP)을 만들었다.

BFWP는 다음 7개 조항의 투쟁목표를 내걸었다. ① 여성 교육의 향상과 여성에 대한 공립학교 교육수준의 향상 ② 모성과 어린이의 보호 ③ 여성노동에 대한 법률적이고 실제적인 보장 ④ 여성의 주도권과 진취적인 정신을 고무시키며,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실시 ⑤ 여성들간의 유대감과 협동심의 향상과 일반적이고 공적인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자극 ⑥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확보와 그 권리를 현명하게 발휘할 수 있게 지도 ⑦ 서반구에서의 영원한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다른 아메리카대륙의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

이러한 강령을 갖춘 BFWP의 첫번째 업적은 1922년 교육위원회에서의 루츠의 노력으로 실현된 것으로, 소녀들에게 페드로 2세 대학(Fedro II Colégio)의 주간교육을 개방한 것이었다. 노동 기회의 평등 또한 중요한 관심사였지만, 그 시대의 여성운동의 정점은 역시 여성참정권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BFWP의 목표중 여섯번째 조항은, 정치적 권리가 법에 기반한 보장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고 있었고 연합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는 1891년 공화국 헌법에서의 참정권 조항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해방론자들은 제1공화국 헌법에 의해 이미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공화국 헌법이 입안되었을 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명확하게 부여하려는 수정안을 여성들이 이미 '브라질 시민'이라는 용어아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또 입안자들이 여성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의 대표적 이론은 여성의 투표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BFWP는 공공의 분노를 조장하고, 의회의 몇몇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내었다. जु브날 라마르틴(Juvenal Lamartine) 등의 의원들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조항을 선거개혁법안에서 빼어내어 독립된 법안으로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라마르틴이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Rio Grande do Norte) 주의 대통령 임후보자 선거에서 승리하자, 여성운동은 부분적인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다. 1927년 4월, 라마르틴은 그의 선거유세에서 그가 여성운동과 그 목적에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재임기간 동안 여성이 대의원 선택과 법률의 입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오 그란데 입법부가 당시 주선거법을 1926년 헌법에 의해 삽입된 개혁에 맞추려고 하자,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जु브날 라마르틴은 77항의 일반조건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 즉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 주에서는 이 법에 명문화된 조건에 맞는 모든 시민들은 성에 따른 어떠한 차별없이 투표할 권리, 임후보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은화하는 주대통령 메데로이스(Mederois)의 찬성을 받았고, 1927년에 첫번째 여성투표자가 등록되었다.

다음 해 2월 등록된 여성투표자가 20명이었고, 1928년 4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그중 15명이 투표하여 라마르틴의 의석을 채우게 되었다. 그러나 상원재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일한 임후보자였던 메데로이스가 받은 15개의 표를 무효화시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선되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리오 그란데주의 입법의 합법성은 다른 주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어, 투표자 등록을 요구하게 되었다. BFWP도 상원이 이 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여성운동선언(Feminist Manifesto)을 발표하였다.

라마르틴의 행정부 시절, 비록 연방정부의 차원에서는 정치적 권리가 없었지만, 리오 그란데 도 노르테주의 여성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주 선거에서 임후보자로 나왔다(몇몇 여성

들이 시의 입법부와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에서의 이러한 사건들이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운동은 이 문제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베타 루츠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1922년, 그녀가 BFWP를 만든 그 해에 전문가 연맹(Professional Union), 공직자 연맹(Union of Public Employees), 독립 유권자 선거 연맹(Independent Electoral League)을 만들었고, 드디어 1929년에 여성대학생연맹(Female University Union)을 창설하였다.

1930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선거개혁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되었다. 1931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BFWP가 조직한 제2회 국제여성운동회의에서는(2nd International Feminist Conference) 여성참정권을 재확인하였고, 임시정부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바르가스는 여성운동에 특별히 동조적이지는 않았지만, 1932년 2월 법령에서 명백하게 된 선거법에 여성운동의 정치적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1934년 헌법의 108조항에 여성의 선거권이 명문화됨으로써 여성참정권이 확립되었다.

2) 여성법전 : 1937

일단 참정권투쟁이 승리하자, 브라질 여성운동조직은 여성노동입법화와 모자보호를 위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베타 루츠는 1936~37년간 다양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그 시기에 '여성노동법'(Women's Labor Code)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 루츠는 여성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법전'(a Code for Women)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이미 1934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많은 명령들을 포함하면서, '여성노동법'을 대신하여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바꾼 것이다.

개화내용을 보면 특별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었고, 이때 공적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사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은 임금의 2/3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유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 첫 6개월간은 매일 두 번씩 30분간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또 회사구내에 탁아기관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성고용인원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루츠가 여성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공공기관, 즉 전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본주의적 사기업에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여성의 이해는 완전히 사기업 부르조아지의 이해에 종속되게 되었다. 그들은 여성노동자의 특별휴가나 결석에 임금의 1/3만 지불하였고, 이 비용은 절대적 저임으로 여성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생기는 막대한 이윤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모성에 대한 보호조항은 되었지만, 노동여성에게 대한 차별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전은 일부의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불필요하고 차별적인 보호조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8절 34항은 여성육체노동

자와 판매여사원은 한달에 2일간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여성노동이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게 되고, 과다한 보호를 받게 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유인을 손상시켰다. 모성보호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는 범위의 보호입법은 여성에 대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착취를 강화하고, 영구화하는 조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들의 협상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성법전'은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다. 성적 평등이 자본주의사회에 가능하다는 진지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스며 있는 사고방식은 계급사회가 기능하고 있는 원칙이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성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을 더 세련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노동일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여성법전'은 '주 5일 근무제'와 '전체노동시간을 늘이지 않고 각 노동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갖는' 여성노동자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일정시간에 노동력을 사서 이윤을 얻는 고용주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이 특별조항 때문에 고용주는 여성의 노동시간의 감소에서 오는 이윤의 저하를 막기 위해 임금을 낮추든가, 또는 여성을 해고하고 남성만 고용함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노동에 대한 고용주의 태도는 보호주의와 브퍼부르조아지 여성운동의 특별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여성법전은 여성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아주 약하게 만들었으므로, 여성의 계급구조자로서의 이탈을 재촉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브라질 여성운동이 지지한 입법화는 자본주의적 현상대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며, 계급구조가 여성운동에 대해 갖는 의미와 경쟁사회와 성적 평등간의 모순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여성법전' 1절 46항을 보자. 그들은(즉 거주지, 수입 또는 돈벌이가 되는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기혼여성) 예를 들면,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전체가족임금의 1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남편의 임금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노동에 대한 보수여야 한다는 가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남편임금의 10%가 부인에게 배분된다는 것은 이중의 착취를 의미한다. 남편의 임금은 가장으로서 받는 임금이 아니라 그가 일한 노동시간에 따라 받는 것이며, 그의 부인이 가사에 총당하는 시간까지 계산된 것은 아니다. 여성으로 볼 때도 남편월급의 10%라는 액수가 그녀가 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급료가 아닐 뿐 아니라, 그녀가 지배적인 생산체제로부터 소외된 것에 대한 전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수탈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브라질 여성운동은 브라질의 사회경제적 실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대한 깊은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여성운동도 유럽 여성운동가들로부터 실마리가 풀렸고, 그후에는 북아메리카 여성운동과 많은 접촉을 하였으며,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채택되었던 법적인 방식을 브라질 땅에 '이식'하려 했던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정부가 출산에 대한 짐을 나누어 지고, 그 이득은 18세부터 45세까지의 모든 여성들에

게 돌아간다는 제안은 아르헨티나 입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루츠가 제안했던 국가여성국(National Women's Bureau)은 미국의 노동여성국(U. S. Department of Labor's Women's Bureau)을 본뜬 것이었는데, 그것은 1차대전말기 동일노동기회와 동일임금에 대한 입법의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츠는 미국의 노동여성국이 정보나 상담기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는 행정기능을 강화시켰다.

‘국가여성국’ 설치를 둘러싸고 여성운동내에서 상반된 견해를 사이에 뿔뿔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공한 여자들과, 사회적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대중여성들간의 증오나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루츠와 카롤타 페레이라 드 퀘이로즈(Carlotia Pereira de Queiroz)가 ‘국가여성국’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토론에서 그 적대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여자는 같은 사회적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사회적 찬성을 누가 얻느냐의 문제를 두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법안이 아직 토론단계에 있을 때, 퀘이로즈는 그 사무국에 정부의 일부처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국가여성국’은 여성노동, 가사에 대한 서비스, 여성과 아동, 모성에 대한 공적인 보조와 전영토를 통한 사회적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다른 부처, 즉 교육, 안전, 노동부와 기능이 혼동될 뿐 아니라 성별분리의 조직이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교육과 건강을 노동보다 후위에 두었기 때문에 사무국이 ‘교육과 건강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ealth)에 부속된 ‘여성과 아동 지원국’(Department for the support of women and children)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1934년 헌법에도 맞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국(Social Aid Bureau)의 창설을 위한 일보를 내딛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퀘이로즈는 새로운 사무국의 성원을 모두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는 루츠의 제안에도 반대하였다. 그녀는 몇몇 남성들은 여성운동의 목적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충원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1934년 헌법의 3항 12조(즉 여성에게 바람직한 직업의 범위를 아이, 엄마, 가정에 한정시키는)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루츠는, 그녀가 ‘여성만을 위한 어떤 것’을 창조하는 이념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녀의 견해는 특별히 여성들만의 조직은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하여 한때 획득했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조직의 창설이 성별분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그것은 성별평등이 증대되고 있는 조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열렬히 반대하고 있다.

나는 가정국, 여성노동국, 사회보장국, 모성국 같은 명칭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요구하고 있는 여성이 자기의 아이를 돌볼 자연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보호’라는 용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호에 대한 요구가 여성에게 본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운동이 가정, 여성, 노동, 모성에 대한 입법적 보호를 받아내려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운동의 목적이 여성이 단지 국가의 수혜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진보에 능동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의 모성기능은 그 육체적, 입상적 범주를 뛰어넘어,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또한 갖고 있다. 공공생활에서 여성은 단지 사회성원의 반수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여성은 또한 가치의 변형에 대한 열망을 상징한다. 남성이 부분적 문제나 기술적, 경제적 문제에 우선 관심이 있는 반면, 여성은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인간의 복지를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퀘이로즈는 이러한 입장을 분리주의자, 개인주의자로 보고, 브라질사회에서의 양성간의 투쟁을 이끄는 여성운동적 표현으로 본다.

“나는 여성들을 위해 요구한다”고 말한 사람은 그녀(루츠)이다. 내가 국회의 구성원인 한, 나는 이러한 양성간의 싸움을 제기하는 개인주의적 여성운동과 싸울 것이다. 투표를 통해 입법부에 들어온 이상, 여성이라 할지라도 협동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퀘이로즈의 입장은 여타의 사회생활에서의 성적 평등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여성이 투표할 권리, 공직에 입후보할 권리를 획득한다면,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속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녀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은 그녀가 전통적인 명문가출신임을 반영한다. 즉 남성과의 평등, 사회진출 등은 지배계급 여성에게 허용된 것이고, 비특권층여성들은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투표권이 일단 해결된 후, 그녀의 관심은 계급사회의 유지, 지배계급의 특권의 유지와 일치한다. 그녀가 한 비판, 즉 루츠의 제안이 성별분리적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리고 그녀가 직업이라는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에게 정치적 권리는 추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해방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여성에 대한 지원은 단지 물질적 정신적 종속을 심화시킬 뿐이다.

한편 베타 루츠는 사회의 진보에 대한 중산계층의 이상과 일치한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여성의 경제적 해방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구조의 확장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방주의적 입장은 양성간의 평등을 보장하며, 동시에 여성에게 해방의 방법을 제시하는 ‘입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임금의 10%를 부인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답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성의 경제적 해방을 다른 사회영역에서의 해방과

관련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가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관한 여성해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새로운 제안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성이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3) 좌익여성들과 브라질 여성운동

브라질 여성운동이 역사적으로 건설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여성운동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절정에 달했을 때도 여성대중의 능동적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여성들이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근대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브라질 여성운동은 브라질 사회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수입된 이념에 의해 시작되었다(따라서 이 운동이 충분히 성공했다 해도, 여성이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실제적인 사회관계와 여성을 위한 입법간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하는 야심에 불을 붙였고, 이것은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성숙되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운동은 '미성숙하게 수입되었'으나, 그 순수한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운동이 여성운동이념을 성숙하게 하여 집 밖에서의 일, 교육, 사회생활에서의 참여 등의 특정한 쟁점에 관해 이루어진 진보에 발을 맞출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참여가 낮은 것이 계급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편, 브라질 여성운동의 발전은 정치적 기초위에서 조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여성운동이었지만 그들의 행동범위라든가, 사고방식은 보통 여성운동으로부터 벗어난다. 좌익여성운동의 투쟁은 정치적 쟁점, 높은 생계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다만 부차적으로 행해졌다. 많은 단체들이 단명했는데, 예를 들면, 1934년에 조직된 '여성동맹'(Woman's Union)이 있다. 이 동맹은 지식인여성과, 여성노동자간에 불균등한 참여비율을 재조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해산되었다. '해방을 위한 국가연대부'(Part of the National Alliance for Liberation)는 1935년 불법화되었고, 따라서 지도자 전원이 구속되어 몇몇 사람은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몇년 후에야 브라질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노동계급여성들과 중산층여성들이 조직한 위원회가 전국에 조직되고 특히 사탕 파울로와 리오 데 자네이로에 집중된다. 이 위원회는 전방에 있는 브라질 병사에게 공급할 모직옷을 수집하고, 물가양동과 암시장에 반대하며, 파시즘과 나치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이끈 조직체 중의 하나는 '국가방위연방 여성부'(Woman's Division of the League for National Defense)였다. 이러한 조직이 그 수에 있어서는 증가하였으나, 조정이나 통합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더욱 효과

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전국적 기반을 가진 조직연합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브라질 여성연합'(Federation of Brazilian Women)의 구상이 성숙되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다양한 여성지도자와 여성운동조직과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이 모여 앉아 3일동안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곳에서 중산층, 상류층, 하류층 여성 모두가 모여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생생하게 직접 토로하였다. 남녀간의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요구와 여성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깨부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여성운동을 연합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점 강해졌다. 몇몇 여성들은 토론의 격렬함에 놀라서, 또는 전국적 조직이라는 현실에 놀라서, 모임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각각의 주에서 보낸 대표자가 참석한 회합이 열렸고 거기에서 '브라질 여성연합'(Brazilian Federation of Women)이 탄생하였다. 이것이 1949년이다.

'브라질 여성연합'은 활발히 투쟁했고,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파견된 여성대표들이 참여한 라틴아메리카협의회, 회합 등을 조직하였다. 브라질 여성연합은 지부를 브라질전역에 두었고, 브라질 내부나 외부에서 같은 정신을 갖는 조직들과 활발한 유대를 맺었으며, '노동조합여성분과'와도 새로운 연대를 맺었다.

브라질 여성연합이 조직된 같은 시기에 다른 여성운동조직체도 성장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이 조직들은 특히 대도시에서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과 턱없이 높은 물가에 대항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 여성들은 지역위원회를 조직하여 매점자를 규탄하고 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마구 터지는 경제적 남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많은 여성을 모은 '연방지역 여성협의회'는 '연방지역여성연합회'를 탄생시켰고, 이 연합회는 리오 데 자네이로의 다양한 지역조직으로부터 약 천명의 동조자를 얻었다. 이 연합회는 지역의 특수한 문제에 달려들었고, 평화를 위한 투쟁과 어린이 보호문제를 갖고 투쟁하였으며, 이 쟁점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지역조직은 매주 모임을 갖고 중앙위원회회합에 보낸 대표자를 지명하였으며, 중앙위원회회합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공동으로 토의되었고 캠페인이 계획되었다. 연합회는 다른 조직들이 시작한 캠페인 - 이를테면 식유에 대한 국가독점의 지지라든지, 국가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지지같은 것에 동조하였다. 또 연합회는 수많은 시위와 공개토론회를 통해 높은 물가고를 끈질기게 공격하였다.

이러한 지역위원회들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치범들의 사면을 위한 강력한 운동이 전역에서 힘을 합쳐 전개되었다.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는 여성들이 '사면을 위한 여성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 '전국학생연맹'과 힘을 합하였으며, 거기에서 그녀들은 투쟁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면이 성공하자, 위원회는 '민주수호 여성위원회'로 전화하였다. 이 위원회는 5년에 걸쳐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여성들의 문화적 정치적 영역을 넓히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같은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었던 '여성건설위원회'(Woman's Institute of Constructive Services)의 지지를 받았다.

1956년 쿠비체르장푸 초기에, 외국 독점자본의 직접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이제까지 비교적 자유로웠던 활동에 대 탄압을 가하였는데, 여성운동도 같은 탄압을 받아 '연방지역여성연합' '브라질여성연합' 그 산하에 있던 지부들의 활동이 금지되었다. '브라질 여성연합'과 같은 조직체들은 법적인 방어를 시도하였으나, 첫번째 정지를 받은 이후, 6개월 동안 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1960년 4월 21일, 브라질 언론연합이 브라질 여성연합의 초대 회장의 사후 10 주년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벌인 대규모 대중시위에 즈음하여, '과나바라주 여성연합' (Women's League of the State of Guanabara) 이,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다른 조직들과 같은 목적을 갖고 창설되었다. 이 연합은 짧은 기간 존속하였는데, 존속 중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재봉, 바느질, 일반적인 수공기술, 체육, 읽고쓰기, 가사, 야마슈어 인형극코스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조직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정치적 성격을 갖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지역의 노동계층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도 상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높은 생계비에 대한 정열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캠페인은 가두시위에서부터, 경제학자, 노동조합지도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라디오, TV의 공개토론이 있었다. 여성연합의 회원들은 높은 식료비에 저항하기 위한 '국가물가조정위원회' (COFAP)의 총회에 자주 참여하였다. 연합은 경제학자들과 '농업성'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유, 공기, 곡물, 야채에 대한 엄청난 물가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폭넓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렸다. 그 연구결과는 다른 주들에서 생계비의 증가에 대한운동조직을 이끌었고, 200명 이상의 여성이 참가한 대열을 브라질리아로 보냈으며 거기에서 고물가를 반대하는 십만명의 서명청원을 내었다. 글라대통령에게 여성연합은 브라질리아에서 있었던 병영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면 캠페인을 학생조직, 노동조합과 연합하여,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카를로스 라세르다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가 연합의 활동은 1964년 4월 혁명 이후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강제로 끝나버렸다.

결론

이상에서 1900년에서 1964년까지의 브라질 여성운동을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과 좌익여성 운동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각 운동의 성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질에서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이 2단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운동은 여성에 관한 수많은 편견, 오래된 금기를 깨뜨렸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내었다.

이 운동이 구체적으로 전개한 것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확보를 위한 참정권운동, 교육, 노동에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입법화운동으로, 그 기초가 되는 이념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여성해방이념이었다.

서구에서 수입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운동이 갖는 약점은 일반적인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제3세계의 상황은 서구보다 낙후되고 저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구의 이념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결책 자체로는 우수하지만 그 처방이 저발전된 국가의 물질적 상황이나 경제발전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나 어떤 경우 해롭기까지 한 것이다.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해 중요하게 강조된 입법화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자유주의적 여성해방이념에 따르면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적인 여성의 권리가 확보되면 여성은 해방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법률적 요소가 하부구조보다 동태적임은 상정된 것이었으나, 브라질사회는 법률이 사회관계보다 늦게 변화하였고, 따라서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 뒤에도 사회관계에서의 보수주의는 그대로 남아 수많은 성적인 편견을 강화, 온존시켰던 것이다. 즉 브라질 사회는 현존하는 사회관계와 법률구조 간에 깊은 괴리가 있었고, 그 사회관계가 법률의 변화를 흡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브라질 여성운동이 제안한 입법화는 광범위한 여러 계층의 여성대중의 필요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 버렸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브라질의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이 지배계급 여성들의 여성운동으로서, 기존의 사회구조의 유지를 옹호했다는 점이다.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이 목표로 한 것을 양성간의 사회적 평등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부분적인 수정을 도모한 것이지, 계급사회 전체의 변동을 꾀한 것은 아니었다. 브라질 사회의 성적 불평등의 해결에 과녁이 맞추어져, 브라질 사회가 중심부 자본주의에 종속된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여성문제는 성적인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성적 평등의 문제를 그 평등을 부정하는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볼 수 없었다.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은 여성이 계층사회로 통합되는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힘을 기울였으나, 여성운동이 취해야 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실패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이론적인 면이 아니라 실재적인 면에서, 프피부르조아 여성운동보다 여성문제를 분석하는 데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거의 언제나 오만하게 위장되어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확산되지 못했으며, 분산적이고 지속성이 모자라는 운동이 되었다. 또한 건고한 조직이 없는 다른 정치운동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비효과적이고 즉흥적인 운동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다해도 광범한 대중 기반을 결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좌익 여성운동조직이 지도부와 토대간에 이러한 분리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해도, 그들이 그 일부가 되어있는 전체 정치운동이 갖고 있는 조직적 결함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과 모색

지금까지 있어온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점을 좌담의 형식으로 정리해 보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다.

김	경	최 (여성평우회 회원)
이	은	회 (")
조	형	옥 (")
한	명	진 (")
정	혜	숙 (")

가사노동이란 무엇인가

김 먼저 가사노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가사노동이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사노동이란 가족원의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반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결국 현재와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정내의 사적 노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 그래요, 일부 논자들은 가사노동을 시장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한정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제한된 의미인 것 같아요. 예컨대 가족원간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는 데 필요한 활동이나 친족과의 유대를 위한 활동 등 가사노동이 포괄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요.

이 그러니까 '현재 혹은 장차 사회적 노동력이 될 가족원의 의식주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활동'이라고 일단 정의하고, 본문에서 더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군요.

중산층여성의 가사노동

김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가사노동문제는 먼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 그렇겠지요, 자신이 직접 일을 하지 않아

도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는 계층의 여성들과,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바깥의 일을 해야하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그 성격 및 문제점이 다른 것일 테니까요.

한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에는 주로 중산층여성이 해당되겠군요. 물론 중산층여성중에도 부분적으로 취업중인 여성도 있겠읍니다만.

김 먼저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중산층여성들의 가사노동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정 중산층여성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문제는 거의 일생을 그 일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어떤 보람이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겠지요. 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성취감이나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조 그 이유는 가사노동의 성격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반복적인 일, 식구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해야하는 일이므로 일의 계획이나 목표량, 한계가 분명치 않고, 따라서 성취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파르는 가사노동을 시지프스의 노동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가사노동만큼 시지프스의 항해를 닮은 것은 없다. 날이면 날마다 그릇을 닦고 가구의 먼지를 털고 속옷을 기워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내일 또 더러워지고 먼지가 앉을 것이고 터질 것이다. 주부는 한 곳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며 정열을 소모하고 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늘에는 기어오르지 못하며, 지면과 같은 높이의 평면에 똑같은 모습으로

늘어서 있다. 매일매일 그 전날을 모방한다. 그것은 무의하고 희망없는 영원한 현재다"라고요.

정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사노동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막아진 채, 가사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적인 일처럼 '일'로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진정한 평가나 문제해결은 결코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사랑, 모성에 대한 예찬으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 그래요. 특히 모성이나 가족을 사회와 분리된 성역처럼 만들고 여성을 그 일의 영원한 담당자로 만드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분리,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됩니다.

김 약간 이야기가 다름니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평가문제가 역시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70년대 초반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았던 이탈리아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요구가 매우 높았고 또 주부들의 호응도 높았거든요. 당장 자신이 하는 일(가사노동)이 무보수이므로 남편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에 화폐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호소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이 가사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길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되었구요. 결국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고 또 점차 여성의 집밖노동에 대한 참여가 늘면서 그러한 주장은 수그러들었죠.

이 가사노동의 임금요구는 임금의 원천이나 지불방식, 임금의 결정기준 등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문제외에도 가사노동의 임금화 자체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남성은 사회적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성별분업 현상을 고착화시킨다는 점이지요.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화폐적 가치지불은 그 자체로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통계를 보면 가사노동은, 대체비용으로 환산하면 GNP의 총 33%로, 기회비용으로 환산한다면 46%에 다다른다고 하는데 그러한 엄청난 양에 해당하는 부의 재분배가 과연 여성을 위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조 결국 사회는 가사노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하기보다는 사랑의 노동, 여성의 천직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사노동을 대량으로 상품화시키면서도 동시에 가사노동을 어머니의 노동, 사랑의 행위로 부각시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완성품으로서 상품화시키기 보다는 원료적 상태로만 상품화시켜 여성의 따뜻한 손길이 거기

에 보태지도록 만드는 거죠.

김 지금까지 중산층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를 대략 짚어보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성격을 마무리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일'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일이 아무런 대가없이 여성의 일로 남아있는 이상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및 심리적 의존은 피하기 어려운 결과이겠지요.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전체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더욱 공고히 지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지프스식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는 보다 정확한 가사노동의 이해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합시다. 뿐만 아니라 개별가사노동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어느 한 성(여성)에게 있는 이상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가는 주변적인 형태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계급여성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노동계급여성의 가사노동문제

김 중산층여성들의 대다수가 전업주부인 반면 노동계급여성들의 경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지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사노동문제는 일단 이중노동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노동에서는 저임금에 불만전고용노동력이고 거기서나마 기혼여성은 일차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고 보면, 노동계급의 기혼여성은 가사노동의 책임이 으레 전제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어야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 그래서 최근 여성해방론자들은 같은 노동계급이라도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위치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 같아요. 즉 여성은 남성과 달리 사회적 노동외에도 가사노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이란 정말로 아무일도 아닌 것인가, 혹은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더라도 가사노동은 그냥 해야되는 것인가 등의 문제에 관심이 돌려지게 되었지요.

조 앞서 중산층여성의 경우에 가사노동의 신비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벗기려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노동계급여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중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연관지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남편의 임금만으로는 가족의 생활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일노동이나 혹은 여타의 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경우 가사노동의 부담은 심

각하게 생각할 여지조차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으레' 여성이 해야하는 먹고, 자고, 입는 일로서 정말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일과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정 이들의 이중노동 부담은 정말 엄청납니다. 나중에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가사노동의 해결 과제에서도 이들의 이중노동을 해결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입니다.

자본주의하에서의 가사노동

김 이제까지 크게 두 부류로 나눠 계층별 가사노동의 문제를 살펴보았습시다만, 항상 우리가 여성문제를 생각할 때 지적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계층별 차이를 사상한 채로 추출해 낼 수 있는 하나의 성(性)적 범주로서의 여성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제까지는 가사노동이라는 공통분모 위의 개개 분자로서 계층별 차이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공통분모가 되는 가사노동의 현상과 본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내에서 가사노동의 성격은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노동력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노동 — 가사노동

김 좌담서투에서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정의내리는 정도로써 얘기가 됐었는데, 그 성격규정에 있어 보다 깊이 이야기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을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으로 나눌 때, 가사노동은 후자를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만큼 가치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적 생산활동과 관련시켜 재생산활동의 의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필요한 존재로서의 그 성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흔히 가사노동을 의·식·주의 부분들로 파악할 때 이는 매우 단편적인 노동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이 단편들의 총합으로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사회적 성인을 육성하는 교육 등 모든 것이 포함 되어야만 합니다. 즉, 노동력을 궁극적으로 재생산시켜 주는 것, 매일매일의 재생산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충원시켜주는 전과정을 포괄해서 이야기 해야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정치경제학에서 보지 못한 또하나의 측면으로서, 가사노동을 가정에서 행해지는 필요노동으로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 그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 지금 노동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생산과정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노동이라고 보지만, 가정에서 행해지더라도 노동력의 재생산부문에 들어간 노동(가사노동)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노동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필요노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요노동은 한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상품에 들어가는 시간의 노동만을 필요노동이라 하였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상품만 가지고는 안되고, 가사노동도 포함되어야 필요노동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 필요노동이란 개념을 그렇게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노동이라는 것은 잉여노동에 대립하여 성립된 것이고, 그럴 경우 필요노동이란, 상품생산사회에서 볼 때 노동자가 자신의 일인 생계유지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생계유지까지 부양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충분히 지불되지도 않은 가족임금이란 허구로 나타나고, 이는 잉여노동의 착취관계를 흐려지게 한다고 봅니다. 만약 가사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가족임금제와 똑같이 환상적인 것, 즉 여자가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셈이 되고, 가사노동에서의 잉여노동부분의 문제가 은폐됩니다. 어떻게 된다면 또 다시 가족임금제와 똑같은 환상이 가정 안팎에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가사노동이 필요노동이라면, 주부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자녀나 남편의 몫까지 생계유지 하는 것은 잉여노동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면 하나의 문제제기로서, 상품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여성들이 노동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주된 노동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요, 그런데 노동력의 재생산에 가사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재생산시키는 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은 노동자의 실제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각 생산단위에서 일한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이라는 생계의 원천을 지불하죠. 그러나 노동력이란 상품은 언제나 같은 양의 노동(생계수단 생산노동)을 통해 생산될 수는 없죠. 아프다거나, 임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더 많은 생계수단이 필요하게도 됩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개개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시장에서의 가격결정기제를 통해 비인격적으로 주어질 뿐이지요. 그러므로 그 부족부분을 매꾸어야 하는 노동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이 바로 사적으로 행해지

는 가사노동으로 전가되는 것이요, 쉬운 예로 주부는 가사노동의 산물을 완전가공된 상품으로서 구입하기보다는 원료형태의 상품을 사서 집에서 직접 가공·조리를 한다든지, 멀리 있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든지 등으로, 가사노동의 강화를 통해 생계비 절약행위를 하는 거요. 다시 말해서 가사노동은 인간의 노동력을 재생산시켜 주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 임금외의 모든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정 그러니까 가사노동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구조를 지탱시켜주는 주요 몫을 하는 셈이고 그 부분이 자본가에게 잉여노동을 제공한다는 셈이 되겠군요.

한 그런 맥락에서 필요노동이란 개념을 쓴다면, 제 생각으로는 잉여의 상대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의 개념을 확대만 시킨다면, 자본제가 남자에게 준 가족임금과, 여자가 자신 이외의 부양자를 포함해서 행하는 가사노동이 서로 교환되는 듯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가 서로를 합리화시킬 가능성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필요노동이라는 것이 일인에 대한 요구인데, 가사노동의 경우 자기외의 어떤 부분에까지 전달이 될 때 이것은 잉여노동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자신이 아닌 여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까 임금노동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성격들을 끼집어 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 그 새로운 개념으로 '생계유지적 노동'은 어떨까요?

정 그러니까 지금 얘기된 것은, 가사노동이 물론 그 일의 성격상 시지프스의 신화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무미건조, 단순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회관계에서 그 노동이 연결되는 진정한 성격은 생산노동에 대비되는 재생산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그 노동하는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참된 가치를 왜곡시켜 왔습니다만, 다시 재정의 내릴 부분으로서 인간생활의 주요한 두 고리를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으로 상정할 때, 어느 하나에 편중될 수 없는 똑같은 중요성으로 가사노동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 결국 사회적 노동을 행하는 노동력 그 자체의 생산·재생산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동안 논의된 가사노동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교환을 전제로 한 생산도 아니며, 상품생산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노동이지만, 사회적 노동을 행

하는 노동력의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에 필요한 가정에서의 생계생산적 노동이라 할 수 있겠군요.

가사노동의 본질과 여성착취

김 지금까지 사회적 노동의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의 필요불가피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간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은 밀접한 고리체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시켜주는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논의를 진전시켜, 그 필요불가결한 가사노동이 자본주의하에서 어떠한 착취기제를 갖게되는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미 서구에서는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에 대한 연구라든지,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관계, 또 특히 여성해방론자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가사노동과의 관계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들 연구중에서 마지막의 문제, 즉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을 전체 경제구조와의 관련하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조 거기에 대해 약간의 보충을 한다면, 가사노동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결국 가사노동이 미지불된다는 점에서 임금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사노동이란 더이상 남편과 자식을 위한 사랑의 행위나 가족성원 간의 역할이란 면보다는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와의 관련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김 그러면, 그러한 식의 논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얘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가사노동문제를 여성해방론의 토대로서 이론화 내지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여성해방론 이전에도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도 논의되어 왔지요. 특히 가정관리학적 접근에서는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환산의 구체적 방법이나 가사노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성해방론의 경우 가사노동문제는 가사노동이 여성을 억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책임이 전가됨으로써 여성이 받는 불이익과 이와 더불어 자본가에게로 귀속되는 이익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노력이 경주되었습니다.

조 가사노동이 여성해방론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제기된 것은 60년대말이었습니다. 먼저 1969년에 발표된 한 논문(M. Benston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을 보면 여

성은 한 성(性) 집단으로서 가사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계급적 지위를 가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벤스톤에 따르면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서비스활동과 유용한 생산물을 창출함으로써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경제권 밖의 노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으로 파악되지 못하며 이는 자본에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 그렇죠. 벤스톤의 논문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근거는, 가사노동을 상부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 내에서 파악하여 이를 최초로 체계화시켰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녀가 비판받는 점은 가사노동도 계층마다 상당히 다양하고 임금노동과 병행함으로써 보다 모순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를 무시한 채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이 그렇지만 벤스톤의 의의는 이제까지 가정 주부란 전적으로 수동적인 '소비자'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가사노동을 전(前)자본제적 농업생산과 같은 신용가치를 지닌 생산활동으로 봄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한 이에 비해 일부의 논자들은(M. Dalla Costa & S. James)가사노동이 사용가치만 낳는 전자본제적 생산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창출하거나 다른 상품생산 노동처럼 생산적 노동이며, 잉여가치를 낳는다고도 하던데요.

김 그 점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아들은 왜 잉여가치를 낳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란 임노동의 착취만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통하여 무임노동자(주부)의 착취에도 기반하여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가사노동이 무임금이 되니까 자본에 간접적으로 이윤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던 거죠.

정 그러한 주장은, 가사노동이 노동력을 재 생산하고 그 재생산된 노동력이 자본제적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결국 잉여가치를 창출한다고 정리하면 되겠군요.

한 그런 식으로 즉 가사노동이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전업주부를 무임의 노동자군이라고 하는 식으로 파악한다면 주부를 하나의 계급으로 이해한 것이 아닐까요?

이 그렇죠.

정 그렇다면 계급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벗기 위한 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코스타 같은 이는 많은 마르크시스트적

여성해방론자들에 반대해 '일을 통한 해방'이라는 것을 신화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즉 여성의 해방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금노동에의 참여도 결국 자본의 착취를 가능하게만 할 뿐이므로, 주부들은 사회적 노동도, 가사노동도 모두 거부해서 노동의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의 모순에 항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항거에는 일반 주부뿐만 아니라 도시의 빈민여성들, 농촌여성들, 학생집단 등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정 그러니까 주부를 지역공동체(Community)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주요한 사회 세력으로서 보았다는 거군요.

조 그러한 주장은 매우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안이나 가사노동을 사적인 노동으로 유지 시킴으로써 자본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나 할까요.

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작 실천적 대안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요구를 주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코스타 자신은 가사노동의 임금화가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임금화를,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적, 전략적 방법 내지 단계로서 설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했지만요.

조 그런데 가사노동이 노동력가치(임금)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자본축적과의 관계를 분석한 예는 많으나, 가사노동을 곧바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상품생산노동으로 보는 사람은 코스타이외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 코스타 이후의 논의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가사노동과 자본주의 경제체계와의 관계가 좀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면 좋겠군요.

이 가사노동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행해진 일이지만 자본제하의 가사노동이 특히 거론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임금을 대체 내지 보완하는 활동을 통하여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많은 노동들을 자본주의적으로 사회화시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계속 사적인 생산방식(가사노동)으로 남겨 두었고 그를 통해 자본의 축적이 용이하게 된다는 데 대개의 가사노동 논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가사노동의 가치생산문제와 노동력가치에 대한 기여여부, 그 기여의 방식 등이 논쟁의 주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러니까 노동력가치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력의 가치란 전통적으로는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라 규정됩니다. 그러나 상품에 투여된 노동 외에도 시장에서 구입한 상품이 그대로 소비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여기에 부가적인 노동으로 가사노동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양육노동에는 상품으로 대체하기 힘든 미세한 부분들이 요구됩니다.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에는 상품형태의 생계수단 외에 가사노동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조 그래서 세콤(Seccombe)은 가사노동이 한 장인생산과 비슷하게 사적 방식을 통해 노동력 상품을 생산하지만, 결국 그 상품이 시장에서 팔릴으로써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노동력의 가치에 기여하는 노동이라 보는데요.

정 가사노동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주요부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자본제적 상품생산처럼 가치를 낳는 노동이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가치란 순수히 교환을 목적으로 한 생산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인데 가사노동은 교환되지 않더라도 행해지거든요.

이 그렇죠. 가사노동문제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가사노동은 분명히 노동력의 재형의, 그리고 세대적 재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으로, 상품생산노동과 더불어 노동력을 재생산시키는 또 하나의 생산활동입니다. 그러나 교환이 생산의 목적이 되는 사회에서 그것은 교환경제의 운동법칙에 포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마치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조 자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데 일치하면서도, 일부의 논자들(예를 들어 세콤이라는)은 가사노동이 가치를 가지는 상품인 노동력을 생산하니까 가치를 낳는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물론 가사노동의 산물이 노동력이고 그것이 임금형태로서 가격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생산방식이 자본과 임노동관계를 통한 것이 아닌 이상 가치를 낳는 노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즉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이지만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인 가치법칙에 의해 생산이 통제되는 노동은 아니지요. 따라서 임금지불요구는 사실상 허구의 논리이며 자본제사회에서 가사노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사회화를 통해서 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해내곤 합니다.

정 앞서 가사노동과 자본주의의 관계에서는

주로 가사노동이 임금외의 부가적 노동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었다는 점을 주로 논의했는데, 자본제와 가사노동과의 관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또다른 문제는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 산업예비군이란 자본주의적 생산발전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남성의 경우에는 달리 여성에게는 일차적으로 가사노동의 책임이 부담지워지기 때문에 여성산업예비군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가측은 가사노동을 사적인 형식으로 자본제부문 외부에 유지시킴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여성을 일단 가정에 묶어두지만 노동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여성산업예비군을 뒀다가 동원시킵니다. 그러다 과잉노동력 현상이 빚어지면 다시 한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여성을 서슴없이 가정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결국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산업예비군의 존재는 노동력 수요·공급에 적절하게 동원되는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셈입니다.

정 따라서 여성은 일단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 임노동을 해야만 할 때에도 노동시장에서는 주변적이며 취약한 노동력으로서만 활용되는 거죠.

이 노동시장에서의 주변적인 성격은 주로 전업주부인 중산층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가족규모의 축소나, 가사설비의 기계화, 혹은 가사산물의 많은 부분이 시장상품화되고 있으므로 중산층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전적으로 몰일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적인 노동에의 참여욕구가 생겨나고 사회는 그들의 노동력을 자원봉사나 시간제일 등으로서 주변적으로만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시간제일은 자본축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저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크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노동력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뒷받침되어 자본에 의해 부수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계층을 초월한 여성노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 가사노동과 자본가의 관계는 대략 설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책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조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의 이중노동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외국자료에서 보면 1주에

30시간 이상의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 책임으로 인해 남편보다 주당 총 10시간 이상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더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자녀수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그러한 조건과는 거의 무관하게 언제나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가사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양육노동의 책임은 거의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거죠.

한 그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사노동 중에서도 특히 양육노동이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것은 여성을 자녀 양육자 내지는 주부로 고정화시키는, 다시 말하여 성별 역할분담을 강제하는 사회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즉 여성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남성들간의 결속체계인 가부장제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김 지금까지는 가사노동을 특히 자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지어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까지의 가사노동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오해들을 환기시켜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바로 그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을 정의하고,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던 가사노동을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면, 결국 가사노동은 자본과 긴밀한 관계하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속에서 가사노동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여성의 노동력은 사적인 것으로 되며, 여성을 부수적이고 이차적인 노동자로 보는 이데올로기의 작용으로 자본의 이익추구는 더욱 부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 양자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가사노동의 계층별 실태

김 이제까지의 토의는 가사노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되어왔습니다.

다음은 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가사노동의 실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계층별 가사노동의 성격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이중노동의 부담 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사노동의 해결방안들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 서구에서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경비를 조사해 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가정관리 측면에서 다뤄져 왔어요. 1968년부터 1981년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해 가사노동의 시간별 구성이 나와 있죠 (표1 참조). 그 자료를 보면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여타의 노동부문에서 행해지는 1일노동시간에 상당하는 것이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는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시간인 데 반해 가사노동은 그 내용이 단절적이고 분산적이어서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총합의 수량이 약9시간일 뿐이지 실제 거기에서 소비되는 전후시간들을 감안한다면 거의 하루일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도시중산층 여성들이 주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각계층별 가사노동의 성격으로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상태에서나마 전업주부가 아닌 빈민여성의 경우를 조사해 봤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다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빈민여성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일과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참조).

조 그러니까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 반정도이고, 12시간 공장노동시간까지 합하여 도합 16시간 반이 '노동'에 쓰이는군요. 결국 휴식을 할 수 있는 때라곤 잠자는 시간밖에 없겠네요.

이 빈민여성의 가사노동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꼭 필요한 일들만을 아침·저녁으로 몰아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대들에 있어서 가사노동이란 빨래와 먹는 것이 주내용일 뿐, 자녀들과의 관계는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산층여성들은 3시간 정도가 아동관리를 위해 쓰여지죠.

조 또한 설거지나 집안청소 같은 일이 어린 자녀(그것도 주로 딸이지만)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많죠.

한 농촌여성의 경우는 (표3 참조) 빈민여성보다 시간이 약간 많은데 이것은 농번기에 주로 하는 새참 같은 음식준비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생각되는 것이 아이들의 문제인데, 논밭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도와야 하는 동시적인 일을 한다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농촌의 탁아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해결방안의 모색

김 이야기는 자연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

(표 1) 가사노동의 시간별 구성

	합 계	구 분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가족관리 및 가정경영
장명옥 (1975)	8.0	2.6	—	—	—
윤복자 (1975)	평일 8.4	2.6	1.1	1.7	3.0
	휴일 7.4	2.6	1.0	1.5	2.3
안녕희 (1977)	평일 10.0	4.2	1.5	1.4	2.9
	휴일 9.7	4.1	1.6	1.3	2.7
엄정빈 (1981)	평일 11.8	4.7	1.7	2.1	3.3
	휴일 13.4	5.1	1.9	2.4	4.0

*여성개발원, 『여성백서』, p. 150.

(단위: 시간)

(표 2) 사례연구

공장근로여성			행상여성
30세 자녀 3 (6세·8세·10세), 남편 평일: 12시간 근무 (8~20시)			34세 자녀 4 (6세·8세·10세·12세), 남편
낮교대일 때		밤교대일 때	
3	취침	공장근무	취침
6	빨래·식사준비		식사준비·설거지
9	공장근무	취침	행상
12			빨래·물건(상품)정리
15			행상
18		설거지·빨래·식사준비	
21	설거지(빨래)	공장근무	식사준비·설거지
24	취침		취침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리	합 계
근로여성	1~1.5	1~2	0.5	0.5	4.5
행 상	3	1~1.5	0.5	0.5	5

(단위: 시간)

(표 3) 농가 주부 노동실태

	1966	1973	1975	1976	1979		1983	
					연 평 균	농 번 기	연 평 균	농 번 기
농업노동	3 : 25	4 : 39	5 : 31	5 : 06	5 : 29	9 : 46	4 : 45	8 : 54
가사노동	8 : 25	6 : 40	5 : 15	7 : 36	5 : 40	4 : 28	5 : 00	4 : 29

*여성개발원, 『여성백서』, p. 150.

(단위: 시간)

아서 진행되어야겠군요. 우선 문제들을 제기해주시십시오.

이 일단 여성이 사회노동에서 대가를 못받는 것은 그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이라 할 때, 가족내에서의 역할분업이 사회적 성별분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현재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별분업, 예를 들면 경공업과 중공업, 의사와 간호원, 교수와 교사 등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정내 성별분업입니다. 따라서 가정내에서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 한 사회적 노동에서의 역할분담 해소도 어렵다는 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시스템의 문제도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될 영역이겠지요.

조 손쉽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회화가 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는데, 가사일은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가사노동을 여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성별 역할분담 폐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작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이론이랄지 이념적 해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핵가족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핵가족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소규모적 공동체, 확대가족 같은 식으로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 동감입니다. 사회적 노동영역에서는 성별 분업해소, 동일임금요구가 가능한데 가정내에서의 성별분업이 해소가 되려면 가사노동이 사회화가 된다는지, 가족이 재편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공동가족, 확대가족 등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회체제가 변하지 않고도 이 시점에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한 그런데 확대가족의 경우는 문제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층에선 이미 할머니·할아버지의 역할분담이 고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세교육에 역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정 그렇죠. 우리가 가족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 의식혁명의 문제 아니까요.

김 그런데 그 가족이 조금 더 확대되었을 때 할머니나 여아들이 가사노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좀더 조직화된 형태로 분업화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그것보다는 우선 효율성을 생각해 봅시다. 가령 시장을 볼 때 여러 가구의 것을 함께 구입하는 등, 개별적·분산적 노동을 집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매우 좋지 않을까요?

한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변하지 않으면 역할분담형태는 변하지 않겠군요.

정 전업주부의 경우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문제는 노동의 양보다는 노동의 형태가 소외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일텐데,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공동세탁장, 공동의 작업장 안에서 공동의 연대감을 고취시키면서, 대화모임을 가지는 식으로 소외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 그런데 전업주부의 경우, 그 공동화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약해서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도 같아요.

정 사실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상황에서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보호하려고만 하지 그 벽을 깨려고 하지를 않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세련됨, 특이성, 복잡성으로 가사노동과정을 정교화시켜 신분과시험으로써 가사노동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기층 쪽에서 가능하지, 중산층에서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한 참 아이러니군요. 정신병이 생길 정도로 가사노동에 갇혀 있는 층이 바로 중산층여성인데...

김 어쨌든 계층간 상이한 당면문제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가사노동이란 거대한 부담으로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군요. 그러면 이제까지 생각하고 제기한 문제들을 일단 정리한 후 해결방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가사살비의 기계화·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과연 합리적 방안인가,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또 계층별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정 거기에 덧붙여 얘기할 것은 기계화 내지는 사회화(물론 여기서는 자본에 의한 사회화부분을 말한다)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자본가에게로 돌아가고, 이것이 가속화되어 더더욱 기계화가 자본의 이윤추구로 왜곡되는 부분, 가령 세탁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자주 교체하도록 생산하는 것 등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개별적 기계설비란 우선 설비능력에 있어서의 계층적 문제가 있고, 또한 그 기계들이 동시적이며 개별·분산적으로 행해지는 개개인의 가사노동을 전체로 묶어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감인데요, 각각의 가정에서 똑같은 작업 -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하는 - 을 동시에 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치구니가 없는지 몰라요.

조 그것은 전사회적으로 본 가정경영의 에너지 절약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한 기계설비의 발전은 육체노동량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관리·경영부문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 그리고 계층별 수용문제는, 우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세탁기 놓는 장소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만, 연립주택만 해도 그렇지 않아 세탁기를 옮겨가며 쓴다든가 탈수만 이용하는 것을 봤어요. 세탁기라는 것도 역시 중산층의 주택 구조에 맞추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정 그외의 기계화라든지 난방설비도 웬만큼 살라는 동네가 아니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여전히 육체노동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인 기계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기계화의 혜택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정이지요. 기계화에 공동화가 같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한 그 전에, 완전히 기계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군요.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 개별적 기계화는 결국 자본의 필요, 즉 이윤을 확보하는 자본의 운동논리에 의해 진전되고 있다는 거죠.

조 하지만 현실점에서 가족의 분해란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기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 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그것은 결국 공동적 구입 사용인데, 그러니까 지역단위의 공동세탁장, 공동탁아소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정 공동세탁장이라고 하면 유명한(?) 곳이 있죠. 사북탄광촌의 예입니다. 탄광촌에서는 보통 세탁이 밀집되어 있고 그중 K사택은 800가구가 사는 데, 5~6평의 세탁장이 하나 있어 여기서 모여 빨래를 하는 거죠. 회사의 일이나 동네 일을 부녀자들이 먼저 알게 되는 정도로 마을의 중심지가 되어 '우물쭈물'이라고도 합니다. 장성·사북사택에서도 부녀자들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이런 원인이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조 과거에는 우물에서 하던 세탁이 가정내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여자들의 - 물론 현재에 한해서 - 공동체적인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 물론 이같이 일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집단적으로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체내에서 전문가 몇명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대만의 경우에는 공동식당이 잘 되고 있는데, 공동식당은 일체를 상품화시켜서 출·퇴근 길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제가 이야기 할 것은 공동탁아의 경우인데요, 키부츠 자료를 보면, 우선 키부츠 사회가 자녀중심적 사회여서 거주하는 집, 옷, 음식 등 모든 것이 자녀들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부부는 공동거주를 하지만, 아이들은 아동기숙사에 따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동기숙사에 설비되어 있는 의·식·주 생활을 하고, 아플 때도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보모(nurses)가 돌봐준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부모가 그들 자녀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공동체적 제도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죠.

조 종전에는 부모·자식이 따로 사는 것이 무조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녁에는 원하는 경우 자녀를 데려갈 수도 있게끔 되었지요.

정 그러한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보이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구증가가 잘 안되어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동구에서도 피임·산아제한법이 활발히 보급되다가도 인구증가가 필요한 시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통제되었으니까요.

한 그렇습니다. 인구문제가 물론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생산력과 균형을 맞출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여성에 대한 억압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 공동체적 해결을 얘기하다보니, 기계화보다는 공동화가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생각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구태여 세탁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화로 해결될 수 없는 가정의 세세한 부분들이 공동화로써 해결될 것도 같아요.

정 공동화·기계화의 문제는 계층별로 다르게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사노동의 경감으로 논의가 집중되는데 중산층의 가사노동문제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소외된 노동형태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는 것, 예를 들어 아파트 자치관리권을 여성들이 인수해서 탁아소를 공동운동하고, 가사노동을 어느정도 공동적으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그렇지만 공동구매, 공동탁아 등의 방법은 기존의 성별위계체제를 그대로 남겨두는 미온책이지 않을까요.

조 사실 아파트촌에서 이데올로기적 노력들

이 일어나야 하는데, 중산층은 그들의 가사노동만 가치를 부여받으려 할 뿐이죠.

정 아파트 자치권과 같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권이 주어지면 주부들의 창조적 활동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정 이야기를 좀 확대시키자면, 중산층여성들은 소비·육아 등 가족의 재생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상에서는 위협받고 있는 재생산관리를 확보해가는 운동, 즉 소비자운동, 공해운동 등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가사노동의 여성전담을 전제로 하지않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 해결의 추구라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분야의 해결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사노동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그것이 사회적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속에서 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를 찾으려는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주부가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산업에 비균으로 존재하는 것은 노동구조상 저임금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요?

이 그것은 여성운동 경험이 부족하고 여성의 계층성이 통일되지 않은 현단계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술적 차원에서 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는 60, 70년대 가사노동논쟁이 활발했던 일본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일본에서도 가사노동의 문제를 둘러싸고 실천적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과 임금노동에의 참여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일단 가사노동 가치인정에 박수를 보냈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임금노동에의 참여, 주로 파트타임제로 취업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에의 참여란, 결국 여성의 노동력은 사회와 가정에서 이중으로 이용, 억압되며 오히려 60년대 주부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독점자본에 대한 공격, 즉 공해운동, 소비자운동의 쇠퇴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 현재 우리의 생산력 수준으로 모든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담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한 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 과도기적 상태에서 일본여성운동이 담당했던 역기능적 전환을 밟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

서 현단계에서는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으로 나눌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것을 운동적 차원에서 어떻게 통일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한 그렇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제기될 것은 운동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이라는 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성노동운동이 있다고 해서 생산영역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당위적인 목표도 아니고...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여성은 노동과 모성의 정체를 다같이 갖고 있어서 그 구분이 덜 확실하고 두 영역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가정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생산영역에까지 연장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또한 모성이라는 문제도 가정에서 노동현장으로 밀려나는 게 아닐까요? 한 여성이 생산영역과 가정이라는 재생산영역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그 중 하나의 영역에서만 역할분담안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정 물론 그 두 가지가 통일되어야 하지만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분리현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즉 노동여성의 문제는 여성권리로 먼저 눈뜨기 보다는 노동자일반의 권리에서 시작하여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데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봅니다.

한 그렇지만 그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정에서의 관계가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는 그냥 노동운동이지 여성노동운동은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 여성의 모성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택소문 제만 해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충분히 요구 가능하거든요. 가사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변화이후에 거론할 것도 아닙니다. 사회구조가 변하기 전이라도 땅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요구는 여성 스스로가 사회적 영역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을 해야만 얻어낼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은 생산자인 동시에 재생산자적 존재인데 이 두 가지 면이 노동여성에게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중산층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부분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운동단계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안을 제기하였고, 또한 사람은 한 개인에 있어서 보다 총체적인 실천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자도 앞으로 더 고민해서 통일적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모두 웃음)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은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혼시 주부의 가사노동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가 되며, 주부의 사회보장을 위한 토대의 제공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에는 주부노동 가치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재해보상의 경우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수준이하로 과소평가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1. 재해·사망자의 배상문제

주부는 연소자, 무직자와 함께 화폐수입이 전혀 없어 장래의 최저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노동임금상당을 기준으로 그 일당 임금액에 월간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액을 한달 수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도시일용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건설물가』에 의하여, 농촌일용임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농협조사원보』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재판실무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1983년 3월 현재 도시일용임금은 여자 3,900원, 농촌일용임금은 여자 6,155원으로 도시의 가사노동과 농촌의 가사노동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법원행정처 발행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자료집에서도 현행의 주부임금에 의문을 표하고,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는 경우라도 휴일이 없는 가사노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월간전일수(30일)로 산정해야 되며, 가정부의 임금을 상회하도록 재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주부의 노동시간(1일 평균 8~11시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주부를 무직자와 동일하게 간주한 것은 부당하며, 게다가 가사노동에는 단순한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신적 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기해 볼 때 현행 가사노동 가치는 과

소평가된 것이다.

2. 이혼시 배상문제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재산명의가 별로 문제될 바 없겠으나, 현행 가족법은 이혼과실과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후의 생활능력이 없는 주부의 보호가 매우 소홀히 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재산의 절반을 뺏기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처분을 바라는 가련한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총계에 의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남편 재산의 20~25%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혼후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한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분을 인정한 것으로써 배우자의 협력에 의해 얻어진 재산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분한 것이기도 하다.

3. 사회보험·사회보장에의 적용

무급의 주부는 수입이 없으므로 사회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자신의 명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에는 불리하다.

또한 무보수 가사노동 종사자는 노후보장 없는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회적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객관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사노동으로 간주된 노동과업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가하는 것(내용이 다르고 작업조건이 다르며 노동력의 질과 성과

가 다르다는 특징 때문에 노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양과 질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움)과, 가사노동의 영역을 분리시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많이 논의되어 실제로 통용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평가작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적 방법

분석적 방법은 주어진 일자리가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조건 등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기업에서의 직무급제도와 같은 방법이다. 분석적 방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가사노동을 과제영역별로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 노동에 대해 서술한다.
- (2) 각 과제영역별 요구를 분석한다.
- (3) 각 작업별로 평가요소를 수량화한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노동에는 지식이나 책임 등이, 육체적인 노동에서는 숙련이나 작업조건 등이 중요시된다.
- (4) 각 평가요소에 가중치가 붙여진다. 평가요소의 가중치는 중요도의 차이를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일자리의 중요도가 고려된 가치지수를 얻을 수 있다.
- (5) 부분노동가치와 총가치지수를 산출한다. 여기에 따르면 다른 생산노동의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자녀양육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과제영역 : 자녀양육

요 구 사 항	점 수	가중치	부분노동가치
지 식	65	1.0	65
숙 련	50	0.8	40
책 임	55	1.0	55
정신적 부담	60	0.9	54
신체적 부담	40	0.8	32
환경의 영향	30	0.6	18
총가치지수			264

이 방법은 앞으로 다양한 가계모델을 선정하여 각 모델별로 표준적인 가사노동 가치를 산출하고, 일하는 사람의 개별적 성과가 평가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생산노동과 비교하여 가사노동의 상대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을 위한 자료제공 역할을 한다.

종합적 대체비용 방법

이 방법은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할만한 직업에 해당하는 보수를 임금효율표(tarif)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과 적절한 가사노동분류에 따른 올바른 임금효율표의 채택이라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가정관리직에 적용되는 타리프로는 가정부 타리프와 독일사무직근로자타리프(BAT)가 고려되고 있다. 주부는 가계운영에 있어서 완전한 책임을 짐으로 주어진 일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가정부 타리프는 적합치 않고 단지 주부가 사고에 의해 가사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부분적 가치평가가 문제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BAT는 균등한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가사노동의 특성에 따라 등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가장 유효한 평가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가사노동의 질적인 면이 등급화를 통해 어느 정도 고려된다는 점, 가사노동중 관리기능이 총체적 파악을 통해 고려된다는 점 등으로 독일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널리 적용되고 있다. 독일에 비해 우리 사회는 여성의 취업구조상 적용 관리직이 많지 않다는 점과 주부의 기능을 관리기능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의 결합방법

이 방법은 가사노동을 과제영역으로 나누어 각 과제영역별 노동에 소모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시정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김재은교수는 이 방법에 의거, 가사역할을 보모, 간호원, 영양사와 조리사, 유치원교사, 가정교사, 카운슬러, 조직공학자(재산관리인·집사·복잡한 인간관계를 처리·운영)의 역할로 보고 주부의 월노동량은 60만원 값어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중앙일보 1983.5.25). 김교수의 방법은 가사노동을 전문가의 역할로 보고 전문가대체비용법에 의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는 그 활동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는 것만큼 주부가 효율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 쉽다. 반면 가사노동을 너무 세분화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정신노동인 관리능력이 무시되고, 단순노동만이 강조되어 가사노동 가치가 과소평가될 소지도 있다.

기회비용원칙에 의한 분석방법

이 방법은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그 주부가 다른 사회적 노동을 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

는 소득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놓쳐버린 것들의 가치를 평가한 비용이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과 달리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해 이 경우 동일한 가사노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소지가 많지만 이 경우 동일한 가사노동이 주부의 취업가능 능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즉 높은 학력이나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기술을 체득한 주부와 낮은 학력과 단순노동만 할 수 있는 주부는 그 기회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겠다. 이 방법은 전체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주부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정과 직장 중에서 주(主)작업장을 결정하거나 재취업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상 가사노동의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 왔다. 동시에 선진제국에서는 판결을 통해 가사노동에 상당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음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가사노동의 수익성을 인정치 않는 중전의 태도에서 탈피하고,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수익성을 근거로 하거나 아니면 이에 상당한 손해를 인정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부의 재해시 생이득의 기준을 가사노동의 가치에 둔 것이 아니고, 잠재적 노동력 상실설을 채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최하위생계유지노동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수준이하의 과소평가라 생각된다.

앞으로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분석적 연구와 더불어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주부의 가사노동이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김 애 실 (외대경제학과교수)

I. 머리말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가정에 대한 여성의 고귀한 희생과 봉사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배상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주부는 무보수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액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도시 일용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정주부는 부부공동의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이나 보험 등 사회복지면에서도 주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주부의 경제적 가치 또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연속토론회 제3차 모임에서 발표한 것을 요약한 것임.

II. 평가방법

경제학자들이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기회비용방법(Opportunity Cost Approach)과 시장비용방법(Market Cost Approach) 두 가지가 있다. 기회비용방법이란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가사노동의 가치와 같게 보는 것이고, 시장비용방법이란 주부의 가사노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가사노동의 가치와 같게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① 주부의 주관적 평가(V1)

설문 "자신의 주부역할을 화폐로 환산한다면 월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주부의 응답을 주부 자신의 주관적 평가라고 한다.

② 생산노동 대체임금(V2)

주부가 가사노동 대신에 생산노동을 택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될 임금수준을 가사노동의 잠재가치로 본다. 경제학 이론은 가사노동의 잠재가치는 시장임금과 같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장임금을 알 수 없는 주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생산노동에 참여할 최소한의 임금을 가사노동의 잠재가치로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이 방법도 주부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설문 "당신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질 경우 최소한 월급이 얼마일 때 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다.

③ 가정부 대체비용 방법(V3)

가정부에게 주부역할을 모두 맡길 경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 이 방법은 총체적 대체비용 방법이다.

④ 전문 직업인 대체비용 방법(V4)

가사노동을 9개의 직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노동시간에다 전문 직업인의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표 1)은 가사노동의 분류와 전문 직업인 및 시간당 임금을 보여주고 있다.

⑤ 가정관리자와 단순노동자 대체비용 방법(V5)

가사노동을 가정관리 및 경영측면의 일과 설거지, 빨래, 청소 등 단순노동측면의 일로 분류하고, 가정관리인과 가정부를 고용하여 주부역할을 대체시킬 경우 드는 비용이다.

III. 표본조사 방법 및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① 조사방법

주부의 주관적인 가치평가와 주부의 생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할 시장대체비용 방법들을 위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했다. 조사기간은 9월 14일~24일사이의 평일 하루, 표본은 층별추출방법, 지역은 서울 시내에 한정시켰다.

② 표본의 일반적 특성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비교적 성실한 기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100명 가운데 66명의 응답자가 본 연구의 표본이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I) 나이: 20대 15명 (22.7%), 30대 23명 (34.8%), 40대 18명 (27.3%), 50대 이상 10명 (15.1%)
- (II)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명 (21.2%), 고졸 20명 (30.3%), 대졸 32명 (48.3%)
- (III) 소득수준: 월 40만 원 미만 27명 (40.9%), 월 40~80만 원 23명 (34.8%), 월 80만 원 이상 16명 (24.2%)
- (IV) 가족수: 둘 8명 (12.1%), 셋 12명 (18.2%), 넷 25명 (37.9%), 다섯 14명 (21.2%), 여섯 이상 7명 (10.6%)
- (V) 6세 미만 자녀수: 없음 38명 (57.6%), 하나 16명 (24.2%), 둘 11명 (16.7%), 셋 1명 (1.5%)
- (VI) 가옥형태: 단독주택 33명 (50.5%), 아파트 30명 (45.5%), 기타 3명 (4.5%)
- (VII) 가정부 또는 파출부: 없음 53명 (80.3%), 있음 13명 (19.7%)
- (VIII) 취업경험: 없음 25명 (37.9%), 있음 37명 (56.1%), 무응답 4명 (6.1%)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연속토론회 제3차 모임



IV. 추정결과 및 분석

추정결과는 〈표 1〉, 〈표 2〉,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① 주부의 생활시간

66명 응답자의 평일 하루의 평균 가사노동시간들이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은 식사준비로 하루 평균 2.96시간을 소비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합한 단순노동시간 총계가 평균 6.14시간, 관리적인 측면의 가사노동시간, 즉 자녀돌보기 교육, 남편 및 이혼시중과 관공서, 은행 출입, 장보기, 가계부 정리시간의 총계는 4.21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주부들 자신을 위해 사용한 여가시간은 장소를 집안과 바깥으로 구분했는데 집안에 있는 시간(2.89시간)이 바깥(0.26)시간 보다 많다.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합계가 13.40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상

의 일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소요시간을 가사내용으로 나누어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② 주부의 주관적 평가(V1) 분석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통 주부는 자신의 역할을 화제가치로 환산한다면 461,207원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2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설문지에 기록된 역수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다양했는데, 교육수준, 나이,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흥미 있는 것은 소득수준별 평균값이 가계 소득수준과 비슷한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는 남편의 소득에 못지 않게 높다고 생각하는 평등의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의 가치는 대략 385,701원~536,713원 사이에 들 가능성이 90%는 되고 있다. 이 값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12,856원~17,890원으로 추정된다.

③ 생산노동 대체임금(V2)

주부들이 가사노동 대신에 생산노동을 택하겠다는 임금은 월 20만원 미만부터 월 70만원 이상 사이에 끝고루 분포되어 있다. 20~30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고 다음은 30~40만원 사이 값이다. 이것은 주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경우(V1)보다 현실 노동시간을 염두에 둔 자신의 노동력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제시한 월평균 임금은 371,094원으로, 앞의 주관적인 가치평가액(V1)보다 9만원 정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역 주부의 90% 정도가 자신의 가치를 월 340,136원~402,052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정부 대체비용(V3)

가사를 모두 가정부에게 맡길 경우 한 달에 평균 170,669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가정부 대체비용으로, 가정부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다. 그 이유는 통계상 가정부는 하루에 9시간 일하나 주부는 10.35시간을 일하기 때문이다.

가정부는 모든 일을 맡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일용근로자 일당 4,000원보다는 높은 6,564원이 주부의 일당으로 산출되었다.

⑤ 전문직업인 대체비용(V4)

〈표 1〉에 분류된 가사노동의 종류와 이를 대행하는 전문직업인 및 그들의 임금을 사용하여 각 주부의 대체비용을



언제나 두배로 일한다.

계산한 후, 그 값들을 평균한 것이 하루에 10,459원으로 계산되었다. 한 달 월급은 26.0을 곱해서 계산했는데, 주부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전산업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같게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월 271,933원으로 가정부 대체비용보다는 약 10만원 높게 산정되었다. 서울지역 주부의 평균가치는 249,164원~294,702원 사이에 들고 있다.

⑥ 서비스 관리자와 가정부 대체비용(V5)

가족관리와 경영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총괄 관리자에게 맡기고, 단순노동은 가정부에게 맡겨 하는 경우, 하루에 평균 15,124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393,222원이 된다. 모집단(서울 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는 358,069원~428,373원 사이에 들며 화폐가치 90%이다.

V. 맺 는 말

① 다섯 가지 방법으로 추정해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계산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주부역할을 모두 가정부에게 맡기는 경우가 월평균 128,271원~213,067원으로 가장 낮은 추정값인데, 이는 주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값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주부역할을 따로 떼어 전문 직업인들에게 하나씩 맡긴다는 방법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부가 전문 직업인들처럼 효율적으로 노동을 하는지 의문이고 또 전문직업인이 1시간 미만 걸리는 일들을 시간당 임금 적용시킨 계산금액을 보수로 받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과대평가될 수도 또는 과소평가될 수도 있는 방법이다. 주부의 역할을 가정관리 및 경영측면과 단순노동 측면으로만 구분하여

각각의 일을 관리자와 가정부로 대체하는 방법은 앞의 방법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필자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방법인 것 같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값이 주부들의 주관적인 평가액인 월 평균 385,701원~537,671원과 생산노동 대체임금 340,136원~402,052원 값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시장비용 방법 중에서 가정관리인과 가정부의 역할분담 대체비용 방법이 주관적인 가치평가와 가장 가까운 값이라는 점은,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사회적 가치평가와 공적인 가치평가가 같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현재 주부들이 취업기회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면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조사결과 현재의 여성근로자 월평균 월급인 21만원선 이하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주부가 표본의 23%가 되고 있다. 기혼여성에게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다.

③ 이 연구에서 계산된 숫자들은 66명이라는 표본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표본 평균값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측통계학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모집단, 서울 주부의 평균값의 구간추정은 90%의 신뢰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통계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④ 세 가지 시장비용 방법들로 추정한 가사노동의 일당이 최저 6,564원이고 최고 15,124원으로 환산되고 있다. 이는 재해 사망 또는 상해시 가정주부의 경제적 손실을 도시 일용근로자 일당 4,000원으로 계산하는 현재의 법적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표1) 주부의 생활시간, 주부역할 대체직업 및 시간당 임금

생 활 내 용	시 간	대 체 직 업	시간당임금('83)
자녀돌보기	1.26	학령전 교육교원	961원
자녀교육	0.90	초등교육교원	1,745원
납편, 옷어른 시중	1.05	가사 및 관련서비스 감독	894원
관공서, 은행출입	0.30	경리원 및 출납원	771원
장보기, 가계부정리 계획	0.70	경리원 및 출납원	771원
가정관리 및 경영시간	4.2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자	2,268원
식사준비 및 간식준비	2.96	조 리 사	687원
설 기 이	0.84	가 정 부	469원
의 생 활	1.19	세 탁 공	679원
주 생 환	1.15	건물관리원, 청소원	553원
단순 노동시간	6.14	가 정 부	469원
총 노동시간	10.35		
물단장, 식사, 휴식, 취미, 오락(집안)	2.89	n. a	n. a
외출, 교양, 교육(집밖)	0.26	n. a	n. a
주부 자신을 위한 시간	3.15	n. a	n. a
총 시 간	13.40		

〈표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계산방법별 표본평균 및 모평균 추정치

(단위: 원)

평가방법	평 균		모평균(90%구간 추정)	
	1 일	1 개월	1 일	1 개월
V1 주부 자신이 평가한 가치	15,371	461,207	(12,856, 17,890)	(385,701, 536,713)
V2 생산노동 대체임금	14,273	371,094	(11,338, 13,402)	(340,136, 402,052)
V3 가정부 대체비용	6,564	170,669	(4,934, 8,195)	(128,271, 213,067)
V4 전문직업인 대체비용	10,459	271,933	(9,583, 11,335)	(249,164, 294,702)
V5 서비스관리자 및 가정부 대체비용	15,124	393,222	(13,722, 16,476)	(358,069, 428,373)

주1. V1, V2의 1일 평균은 표본조사에서 계산된 한 달 평균을 30으로 나누었고, V3, V4, V5의 한 달 평균은 1일 평균에 26을 곱했음.

주2. V3, V4, V5는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83의 월급여액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81-'83년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 21.8%를 '83-'85기간 임금상승률로 가정하고, '85년 현재 가치로 조정된 것임.

〈표3〉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계산방법별 및 표준특성별 표준평균 비교

(월 평균)

	(1) 주부의 주관적 가치	(2) 생 산 노 동 대 체 비 용	(3) 전 문 직 업 인 대 체 비 용	(4) 가정관리자와 가사 노동자 대체비용
전 체 평 균	461,207	371,094	271,933	393,222
교육수준				
중졸이하	217,857	250,000	254,009	382,169
고 졸	468,750	302,632	252,489	373,207
대 졸	578,571	467,742	291,916	410,576
나 이				
20 대	407,143	321,429	301,806	445,062
30 대	444,444	406,522	319,213	449,215
40 대	564,706	397,222	234,726	311,866
50대이상	387,500	312,000	180,381	330,741
소득수준				
40만원이하	309,615	279,630	261,799	392,789
40~80만원	489,474	381,818	291,377	423,243
80만원이상	723,077	520,000	261,039	350,786
가 족 수				
2 명	318,750	307,143	210,017	316,622
3 명	445,455	308,333	332,989	513,117
4 명	490,000	400,000	269,431	381,821
5 명	576,923	400,000	269,960	379,193
6 명	340,000	408,333	259,551	357,500
자 녀 수				
0	290,000	300,000	169,195	246,789
1 명	418,750	302,941	290,426	447,659
2 명	487,037	392,188	280,737	397,623
3 명	691,667	442,857	274,910	375,044
4 명	325,000	437,500	241,975	340,209
6세미만의 자녀수				
0	498,529	386,111	229,910	321,715
1 명	407,143	303,125	312,595	465,932
2 명	444,000	431,818	364,784	541,111

(1)열과 (2)열의 값은 표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고, (3)열 (4)열은 표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임금상승율을 감안하여 '85년 가치로 환산한 것임.

시평

상반기 여성운동의 흐름과 평가

머리말

상반기에 있어서 여성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예년에 비해 집단력의 행사가 무엇보다 두드러지면서 활기찬 모습과 함께 여성운동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그것은 1983년 봄 이후 정부의 유화정책과 그동안 힘의 축적을 통한 운동권의 성장에 힘입어 사회운동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대중운동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실천적 인식의 심화와 함께 여성운동도 독자적 영역으로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정착 하여 나가는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여성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공개단체들의 대중집회를 통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집단력의 표출과 둘째는 기층여성들의 생존권운동을 통한 폭발적이고 정치화되는 집단력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은 각각 독립적으로(고립되어) 이루어졌으나 공개운동이 상징적이나마 기층운동을 대변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층운동영역에서 과제를 제시하여 공개운동이 부분적으로나마 그 과제를 수행해나가기로 하여 기층운동의 영역으로 수렴되는, 전체적으로는 상호보완·상호침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표출되고 있는 여성운동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해명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실천적 인식의 심화와 함께 방향제시를 부분적으로나마 시도하고자 한다.

1. 상반기 공개단체의 활동

1985년 상반기 활동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는 연합활동을 통하여 중간중운동의 대중공간이 확보

되었던 점과 둘째는 기층여성문제의 범대중적 설득구조의 확보와 함께 기층여성운동의 과제를 부분적으로 담당한 것이라 하겠다.

1984년 하반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공개단체의 활동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의 성명서활동(비산내양자살사건, 여성노동자인권, 기생관광반대, 여대생추행사건 등)을 비롯하여 여성평우회의 여성문화큰잔치, 10개 여성단체연합의 여대생추행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의 성명서활동은 첨예한 여성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제기함으로써 정치문제화하여 여성운동의 정치적 공간설정을 기도했으나 기반과 실천력의 미비로 성명서 활동에 국한되었고 이는 연합의 계기를 준비하게 된다. 10월 26~27일 양일간에 걸친 여성평우회의 여성문화큰잔치(서울 1,700여명, 부산 1,100여명)는 문화매체를 통하여 기층여성문제의 대중설득구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0개 여성단체연합의 여대생추행문제에 대한 성명서 활동과 집회활동은 여성문제와 정치문제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정치적 경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1984년 하반기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연합이든 개별적이든 대중집회의 수행능력을 통하여 독자적 운동공간을 개척함으로써 1985년 활발한 여성운동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1985년으로 들어서자 2·12총선 이전의 분위기를 타고 교회 여성단체와 가정법률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81개 여성단체 명의로 된 1985여성유권자선언이 기초됨으로써 활발한 활동의 전개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그 사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의 이름으로 된 총선거부의 성명서가 잠시 주목되기도 하였다. 여대생추행대책위원회의 결성으로 형성된 연합의 틀과 문

제제기는 '85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의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선언으로 집약되었다 (3월8일, YWC A 중강당 300여명 참가). 이 대회는 '85 세계여성대회'가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짐에 착안하여 여대생추행사건에 대한 마무리 작업과 함께 새로운 출발로서 이루어졌다. '성폭력'의 개념은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성폭력'의 의미를 뛰어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억압의 형태까지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태운여성상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와 여대생추행 등의 특수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빈민·농민여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유니전·협진노조의 결성과정에서의 탄압사태, 목동의 철거문제, 농민여성의 토지문제 등이 대회에 등장함으로써 '84년 여대생추행사건대역연합집회'의 한계를 일정하게 극복하였다. 그것은 '84년 연합집회가 학생층을 포함한 중간층여성의 참여에 그쳤고 그 형식도 목요예배의 형식을 빌린 반면, 이 대회는 각 영역에서 기층여성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열기를 수렴하여 형성하고 미미하나마 대회(결기) 형식을 갖추어 대중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기층여성운동

올해 상반기 활동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중간층을 기반한 운동은 아니지만 5월 20일 한국노총 여성부 주체로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근로여성대회이다. 여성 및 연소노동자보호 강조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행사는 한번 동원에 2,500여 명을 참가시켰으며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로서 균질의 대중성을 지니면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던 신규노조의 노조결성에서 나타난 여성노동자들의 눈물의 투쟁기록을 통하여 2,5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벅찬 감동을 맛보는 순간은 외롭고 괴로웠던 지난 과정의 투쟁이 헛된 것이 아니며 모두 공유해야 할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는 감동을 안겨주었다. 과거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자문화소그룹의 활동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장(場)을 만나 여성노동자의 문화적 역량을 크게 배가시키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대중실득구조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근로여성대회에 참가한 7개 사업장인 효성, 몸코리아, 가리봉, 세진, 남성, 시그니텍스, 크라운 노조들은 6월 24일부터 이루어진 대우어패럴 동조농성에 실질적으로 동조, 가담함으로써 연대사업의 틀로써도 작용하게 되어 이 대회가 보여 주었던 진보성이 대회 이후에도 지속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던 노동운동이 4월 대우자동차 파업사건 이후로 정점에 이르고 그 열기가 공개운동의 상대적 성장을 훨씬 능가하여 뿜어나오자 역시 여성단체들에서도 그러한 기층여성들의 운동을 어떻게 지원, 연관을 맺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그것은 중간층운동의 자기 내용이 어느정도 기층문제를 포괄하는, 선전영역에 있어서 범계층성을 지니나 실질적으로 기층운동의 역량성숙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식상에 있어서 뿐 아니라 실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끊임없

는 고민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층여성들의 운동과의 관련성이 끊임없이 여성운동의 자기 과정으로 대두·부각된 지는 오래였지만 그것을 풀어나갈 주체적인 힘의 미약과 함께 실마리를 풀지 못하던 중 몸보이 불매운동이 학생층을 포함한 중간층 여성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몸보이 불매운동은 몸보이 (주식회사 성도어패럴)의 모(母)회사인 성도섬유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구타, 감금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탄압을 사회여론에 호소하면서 '불매'라는 방법으로 진행시켰던 것으로 상당한 호응을 보게 되었다. '불매'라는 운동의 방법은 전통적인 여성운동(소비자운동)의 영역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연대 및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몸보이불매운동은 12개 여성단체와 18개 여자대학 여학생회로 구성된 성도섬유해고노동자복지추진위원회 주체로 6월 19일 종로1가 몸보이매장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조직해내면서 여성단체들의 옥내집회 위주의 행사를 옥외에서 조직함으로써 시위적 효과를 심본 발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14명이 연행되어 구류 5일에서 7일을 받게 되고 몸보이 불매운동의 확산과정은 기층여성과의 연대라는 여성단체의 고민과 점을 부분적으로 던져주기도 하였지만, 앞으로 더욱 큰 부담을 안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몸보이불매운동은 그 동안 성장한 여성단체의 내부적인 힘의 성숙을 반영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중간층운동을 노동운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여성노동자들의 운동력의 미성만 발전과 힘의 확산과정 속에서 위치지워질 수 있다.



민중지향의 여성운동

일련의 발전 속에서 공개단체들은 그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어느정도 민중지향성(민중강향성)이 정착하게 된다. 여성평우회 6월 22일 창립2주년기념강연집회(6월 22일 서울 흥사단 500여명, 7월 22일 부산대대사여교 강당 1,000여명, 7월 23일 대구가톨릭근로자센터 300여명)는 상반기 공개단체 활동의 민중지향성을 최고의 형태와 주제를 보여주면서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된다. 주제강연 「분단(9년)의 여성현실과 민족통일」, 양공주, 분단가족, 고아 등의 실용과 환을 영상화시킨 슬라이드, 노동운동단합을 주제로 한 현장사례극 등 상당한 대중적 설득력과 동원력을 통하여 여성문제, 여성운동

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된다. 여성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모순 구조로서의 여성문제가 제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성노동자들의 실천성 속에서 극복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민중지향성이 최고조된 집회라 볼 수 있다.

중간층여성운동이 나름대로 법적 제도적 요구를 관철시키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에 대한 논란이전에 민중지향성이 먼저 정착하게 된 것은 여성운동 역시 민중으로서의 자기 범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여성운동 영역에 대한 개혁과 함께 실천적인 장(場)의 확보에 대한 탐문은 끊임없이 계속되게 된다. 여성평우회의 창립기념집회 이후 공개단체로서 여성운동체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독자적 영역구축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공개단체들이 하반기 활동에 무방비한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2. 상반기 기층여성들의 운동

상반기 기층여성들의 움직임은 예년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공개단체의 운동력을 훨씬 상회하는 운동성을 표출시켰다. 기층여성들의 생존권을 수호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운동으로 전화해나가면서 중간층운동의 제한성과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투쟁력의 발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기층여성들의 운동이 여성운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좀더 실천적인 논쟁을 거쳐야 하며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관을 거부하고 자신의 위치를 개선·변형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든 운동을 여성운동으로 규정하고 흐름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정은 많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성들의 존재와 위치를 남성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또는 재생산자로서 규정할 때 여성운동은 생산자의 권리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나 재생산자의 권리운동으로서 주민운동 등이 그 주요내용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기층여성들의 생존권운동은 여성운동의 포괄적 내용에서는 가장 핵심을 이루게 되고 대중성, 운동성 등의 발휘 또한 극대화된다.

올해 상반기에 있어서도 기층여성운동은 생산·재생산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었던 것으로는 빈민여성의 최저생계수준으로서 목동사태, 노동자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하는 운동 즉, 가족운동의 형태로서의 장성사태, 그리고 대우어패럴 동조인대파업으로 그 정점을 이루는 여성노동자들의 일련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들은 거의 90% 이상이나 여성들이 참여했으며 운동의 과정에서도 주요한 지도자로 부상하여 운동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열렬히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요소의 극복을 위한 이슈나 방법전개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성차별적 요소의 극복이라는 여권운동으로만 한정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역시 기층여성들은 생존권운동으로서 그 일차적 과제를 짊어짐을 뜻한다.

이 사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1,000여명 이상의 대중을 확보하여 집단력으로 풀어나가면서 시위·농성·파업 등의 투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과 함께 이들 사건이 정치문제로 비화하면서 일개 정치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의 모순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생산영역에서의 운동의 전개

재생산에서의 올해 상반기 기층여성들의 운동전개는 노동여성들의 노동운동에 비해 지속성, 조직성, 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간층여성의 소비자보호운동의 존재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재생산영역에서의 여성운동은 자신 또는 가족이 처한 재생산 조건의 위기에서 출발한다. 재생산의 조건은 가계수입(임금), 주거문제, 공해, 교육, 생필품 가격, 소비자보호 등 다양하지만 생존권의 위기로 절박하게 직결되는 가계수입과 주거의 문제가 이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3월 2일에서 4일까지 연 3일간에 걸친 장성사태는 가계수입과 관련된 노동조건의 문제를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재생산자의 권리운동으로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진 여성운동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성사태는 광산의 막장에서 몸소 채탄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광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지부장 선출에 있어 광산측이 대의원들을 부당하게 회유해서 어용노조 노릇을 해온 현 지부장을 억지로 재선거 하는 데서 발단되었다.

이것은 기업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탄광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계가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3월 2일 대의원대회 이후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며 시위와 철야농성을 한 것부터 비롯해 3월 5일 광업소 앞 시위과정에서 1,500여명으로 불어나고 오후 7시경 농성을 통해 일단락 되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광부 부녀자들이 시위와 농성을 주도하였고 탄압과정에서도 연행·구타되는 등 싸움의 전면에 나섰다는 사실은 여성운동의 명분으로도 구명되어져야 하는 운동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광부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경우 회사측의 정계, 민직 등의 사후보복조치를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전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자 가족운동의 형태로서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가족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미혼의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 경험도 기혼 여성의 가족운동으로 전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장성사태는 주민들이 단결하여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용노조지부장의 퇴진, 민주적인 지부장의 선출이라는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3일만에 많은 불씨를 안은 채 끝나게 된다.

장성사태가 그 일시성과 비조직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끝난 반면 목동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성과 조직성을 보여주면서 주민운동적 성격의 여성운동의 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작

년 하반기부터 봉만장 중심의 철거대책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여 서서히 조직되기 시작했던 목동사태는 1985년 초부터 본격화되어 3월 20일 방화사건을 고비로 일단락되기까지 폭넓은 발전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동사태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 하이라이트를 차지했음이 보여주듯 상반기 여성운동의 한 절정을 이룬다. 철거를 비롯한 주민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가는 놀라운 정도이지만 목동사태처럼 장기간에 걸쳐 시위와 농성을 조직해내면서 서너차례 이상의 오목고 및 양화교 순환도로 등을 점거 연좌농성, 시청 앞 시위, 유세장, 신민당사의 방문 등 운동력을 주도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 여성들의 대대적인 여성 지도력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놀라운 참가는 남편에 비해 가족의 주거를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주거의 문제는 가장 절박한 현실로서, 빈민여성문제의 핵심으로 주거문제가 설정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빈민여성의 빈곤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물론 '여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가 엉뚱하게 여성들을 운동에 참가하게 되는 용기로 작용하게 된 측면도 없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무차별적인 구타, 연행의 과정에서 굴하지 않는 배경을 이루게 된다. 특히 구속되어 일심에서 1년을 선고받은 최여수씨를 비롯 최순옥 씨등이 여성지도력의 확보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종래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했으나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던 것에 비해 운동의 과정을 지도하고 그 속에서 성장된 여성지도력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목동사태를 통해 성장되는 주민운동의 역량축적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역시 기층에서도 여성운동가가 확보되어가고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동사태는 이처럼 여성지도력의 성장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몇 가지 발전된 운동의 측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 참가한 대다수가 사회·정치적 의식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세입자들이 가옥주보다 웃도는 운동력을 표출하면서 50만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의 위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으로서 주거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셋째, 교회운동,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체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정치문제로 비화해 정치모순을 적나라하고 광범위하게 폭로하였다. 넷째, 운동의 층이 부너져, 세대주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학생층, 노장층 심지어 아동까지도 참가하는, 가족운동으로 나타나는 지역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생산영역에서의 운동의 전개

생산영역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통하여 성장하였다가 5·17 이후 주춤, 다시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무서운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생산자로서 여성노동자들이 갖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통하여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이르게 하고 국가의 기아적 저임금정책과 통제력의 강화는 상당한 시련과 함께 오히려 곳곳한 실천력을 배양하는 바탕이 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3월에서 5월에 이르는 임금인상투쟁을 통하여 정부당국이 제시한 극히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무너뜨리고 노총의 4월말까지 타결된 집계에 따르면 8~9%의 평균 인상률을 올렸다. 1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일소하겠다고 하는 노동부 및 민정당의 공언을 증빙하게 받아들여 각 노조단위로 폭넓은 조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철야농성뿐 아니라, 삼성제약에서는 금기시되어 오던 파업농성도 감행하기에 이르러 모두 임금인상투쟁의 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이처럼 임금인상투쟁의 열기가 높았던 것은 대우자동차의 파업농성과 함께 작년에 결성된 신규노조(효성물산·가라봉전자, 대우어패럴 등)가 확고한 단결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민주노조바람을 일으킨 데 많이 연유하고 있다. 이 열기는 대우어패럴 파업에 대한 동조농성, 파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상반기 노동운동의 절정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의 경우처럼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외롭고 어려운 투쟁 또한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없는 가운데 몇몇 여성노동자들이, 또 노조가 있다하더라도 그 힘을 빌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 여론도 받지 못한 채, 대부분 강제사직, 부당해고 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해태와 성도섬유에서의 부당해고사건 등은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은 해태의 경우는 한국교회도시산업선교회, 성도섬유의 경우는 여성단체들이 불매운동으로 지원하였던 것이다.

2개월여에 걸친 임금인상투쟁이 5월에 이르러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대중적 열기가 부분적으로 식어가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임금인상투쟁과정에서의 범법여부를 가린다는 구실로 6월 22일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김준용씨 및 장명자, 추재숙씨 등을 전격 구속하였다.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원만한 타결된 사건을 가지고 구속조치한 것은 민주노조에 대한 전격적인 탄압의 시발로 보여졌다. 이렇게 되자 대우어패럴 노조뿐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낀 각 노조들이 가세, 동조농성, 파업을 하면서 9개 사업장이 참가한 6월 24일에서 28일에 이르는 구로동맹파업을 날게 되어 노동운동은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해갔다. 이 구로동맹파업은 개별노조에 대한 탄압은 곧 닥쳐올 자신의 노조조직과괴로까지 이어진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70년대 각개격파되어 갔던 민주노조운동의 쓰러진 경험을 극복하였던 것이다. 2,000여명에 가까운 여성노동자들의 참여와 함께 탄압의 과정에서 나타난 놀라운 투쟁력과 단결력은 50여명의 구류, 40여명의 구속자와 700여명에 가까운 대량해고자를 내기에 이른다.

이처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7월 8일에서 7월 16일까지 약 9일간 노총에서 대한미이크로 전자 조합원 71명이 '단체협약 준수' '노조간부 징계철회' '봉근버스 운행' '민주노조 탄압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상반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함과 함께 하반기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전개가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암울한 신호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진 2교대제로 인해 장거리출근자에게 통근비스를 운행해달라고 한 요구가 9일만에 걸친 장기간의 농성으로 극한화되어갔던 점이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남자들로 구성된 구사위원회를 통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7월 16일 급속노련, 노동부인 천지방사무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가 '부당노동행위금지 및 구사대책위 해산' '노조간부 징계철회' '통근비스 11월부터 운행' '농성기간 임금 60% 지급' '농성자에 대한 보복금지' 등을 노조에게 서면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노조간부가 구속되고 10명의 조합원이 5일에서 7일까지의 구류처분을 받고 30여명이나 해고되었다는 점이다.



맺음말

앞서 상반기 여성운동을 공개단체들의 활동과 기층여성의 생존권운동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공개단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중집회 등의 기반이 대다수 기층여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중간층 중심의 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기층여성을 대상으로 한 카톨릭여성농민회나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등의 공개단체활동은 제한하였다.

현재 중간층여성의 공개단체운동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통하여 그 세력을 확장시켜나가는 반면 기층여성은 자신의 지역에서, 공장에서 생존권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공개단체운동은 여성문제에만 국한하려는 집착을 보이는 반면 오히려 기층여성운동은 '여성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저립운동의 공간이 분리될 뿐 아니라 이념적 기반도 공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여성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기층여성의 운동이나 중간층여성의 운동들이 여성운동이란 영역 속에서 어떻게 행명, 실천되어 통일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것은 여성들이 하는 운동은 모두 여성운동인가 아니면 여성문제를 이슈로 하는 공개단체의 활동만이

여성운동인가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의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여성운동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기반, 물질 토대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상반기에 전개된 여성운동을 통하여 그것을 해명해나가는 어렵다. 그런데 상반기에 전개된 여성들의 다양한 운동양태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음에 보여준다. 중간층여성단체와 기층여성의 운동들이 부분적으로 상호침투, 통일되어가는 모습이 행악적으로나마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층여성들의 자기존재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운동이 폭발적으로 비약 발전함에 따라 중간층중심의, 또는 소수의 지식인 중심의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기층에 기반한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전개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시 중간층운동에서도 중간층운동의 자기 계층적 범주를 뛰어넘어 민중지향적인 이념의 정착이라는 전보성이 표출됨으로써 이다. 그러나 아직 기층여성들의 운동이 여성운동적 차원에서 수렴·흡수되거나 기층운동내부에서의 여성운동적 방법론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자기지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에도 많은 논쟁과 함께 실천적 기반의 확충을 요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중간여성단체의 활동 방향성도 이념적 측면에서 보여준 민중지향성에도 불구하고 기층여성운동의 성과를 여성운동의 성과로 수렴하고 표출해내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 그것은 중간층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인여성의 선도체적 역할로서 자기설정이 미흡함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중간층여성단체의 배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인식의 한계에 연유한다. 그것은 첫째, 여성운동의 단계를 아주 낮고 초보적인 단계로 파악함으로써 현단계의 과제를 여성문제의 광범위한 대중전과에 어느정도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체의 독자적 설립이라는 현실적 과제로 인해 타부문에서의(기층운동이든 중간층운동이든) 운동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했거나 역량을 배치하지 않은 점, 세째는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치·사회적 재권리의 문제라는 측면보다 여성에게만 특화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여성문제의 독자적 영역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생긴 인식상의 오류이다.

상반기에 나타난 기층여성들의 놀라운 운동력 발휘는 중간층운동을 압도하고 앞으로의 여성운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나아가 주도할 역량을 구비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념적 측면에서 선도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간층여성의 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제한성은 대중성과 함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비상한 운동력을 발휘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층여성의 운동과 중간층의 운동을 통일해 내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실천적 인식의 재확립이 요청됨과 동시에 무엇보다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자기 모습을 갖추어 가려는 노력과 함께 산재된 여성운동력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운동체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시평

톰보이 불매운동과 여성운동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등 18개 여성단체와 18개 대학 여학생회가 성도섬유에서 부당하게 폭행, 해고당한 여성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복직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5개월 동안 이 회사의 제품인 톰보이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기층여성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과제로서 수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주요세력으로 표상되어 있는 중간층 여성운동단체들에 의해서 실천되지 못하던 중, 톰보이 불매운동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오랜 과제를 푸는 일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85년 6월 10일 결성된 '복직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18일자로 사실상 마감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톰보이 불매운동은 순산없이 끝나버렸다는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운동이란 당장의 승패보다는 어떤 경우 운동담당 주체들이 운동과정에서 획득하는 경험과 운동영역의 확대가 보다 소중한 결실로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면 톰보이 불매운동이 '복직'이라는 현실적인 승리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운동주체들이 해고자와 여성단체들의 운동역량 확대에는 어떤 성과와 안거주었는지 등 그간의 '복직추진위원회' 활동의 내용전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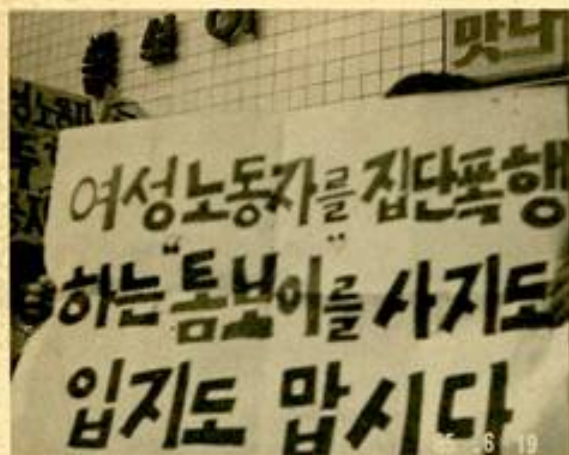
사건은 성도섬유(구로 1공단 위치) 측이 지난 2월 구정 연휴 기간 중 82명 노동자가 무더기 결근한 사태를 사전 선동했다는 이유로 강 회경(동국대 2년 중퇴)을 3월 14일 해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설립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모임을 노동자들이 갖는 것을 눈치챈 회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3월 10일 노동절행사를 하는 양평동교회와 홍제동성당에 회사간부를 보내 참석자를 파악하고 난 직후의 일로서 회사측의 노조결성 방해의 신호탄이었다. 그리하여 회사는 노동절행사에 참석했던 김홍해, 박남희, 장경림 등을 하루종일 감시하고 집에까지 미행하면서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다. 그리고 3월 20일 회사측은 관리직 사원 몇 명으로 노조를 결성, 설립필증을 받아냈으나 사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니, 소위 유령노조인 셈이다. 4월 정기임금인상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용노조는 노동자들의 가입원서를 받으려는 생각조차 않자, 4월 6일 김홍해, 장경림, 박남희 등은 '유령노조의 정상화'와 '일당 600원 인상하여 기본급 10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점심시간 식당에서 읽고 나누어주자 회사측은 남자사원을 보내어 이들을 개금듯 끌어내어 감금시킨 채 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들은 곧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출근을 했으나 회사측은 온갖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을 뱉는가하면 자가용에 태워 하루 종일 끌고다니다가 반월·송파 등에 버리듯이 팽개치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출근싸움을 강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공단파출소 등)마저 회사측에 합세, 정보와 사무실로 불려서 "죽어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따귀를 때리는 등 폭력을 자행하였다.

4명 해고자의 출근싸움이 계속되고 있던 중, 5월 23일 회사측은 신전숙(경상대 2년 중퇴)을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하고, 신양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던 민성남 등 6명을 부모님까지 동원하여 협박, 압력을 가하여 강제사표를 쓰게했다.

11명으로 늘어난 이들 해고자들은 여성운동단체, 각 대학, 노동운동단체들을 방문하여 성도문제를 호소하면서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복직추진위원회의 투쟁

해고노동자들의 주선에 의해 5월 31일 여성단체, 노동운동단체, 여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여 성도섬유 부당해고와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모임을 가지고, 우선 각 단체별로 진상 파악을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해고자들의 출근싸움이 끈질기게 계속되는 가운데 각 여성단체들은 회사측 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방문하였으나 회사측으로부터 번번히 거부당하였다. 이에 6월 10일 12개 여성단체와 18개 대학 여학생회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에 돌입, 복직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톰보이'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 '톰보이 불매운동' 플랭카드를 달고, 학생들에게 전단을 배포하였고, 여성단체들도 불매운동 스티카를 붙이고 전단을 배포하고 회원들이 조를 지어서 톰보이 매장을 방문하여 회사측의 부당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성있게 대응하였다. 불매운동 방법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6월 19일 종로 1가 톰보이 매장 앞 피케팅이었다. "톰보이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성도섬유는 해고근로자를 즉각 복직시켜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150여명이 평화시위를 벌인 이날 사건으로 해고자, 여성단체 대표, 학생 등 14명이 연행되어 5~7일씩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신문지상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고, 국회에서도 그 진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그후 성도섬유는 행정감사를 받게까지 되었다.

톰보이 불매를 호소하는 전단, 스티카, 캠프렛이 계속 제작 배포되자, 복직추진위 쪽으로는 격려와 문의전화(물론 회사측의 위협전화도 있었지만)가 잇달았으며, 복직추진위에 속하지 않은 단체나 대학생들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예컨대 서울 YWCA에서는 청소년캠프장 기금조성 바자회에서 톰보이상품을 한 품목으로 넣어 팔기로 하였다가 불매운동에 동의, 판매를 취소하였으며,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 전북 지방 대학 여학생회에서도 이에 동조하여 운동을 전개하였

고, 청주 기독교청년회에서는 불매운동 피케팅을 벌였다.

또한 해고자들도 일치 단결하여 6월, 7월,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출근싸움을 끈질기게 계속하면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고, 각종 모임에 나가 사례발표를 하였다. 회사측은 회사 정문 앞에 앉아있는 해고자들에게 죽은 쥐를 던지거나 물을 뿌려서 쫓기도 하며, 부모들을 시골에서 불러올려 딸을 강제로 데려가게 하며, 이들에게 동조하지 못하도록 현장 노동자들을 감시, 위협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도 이들을 유인물 제작 배포혐의로 구속하여 구류를 살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압력과 위협에도 이들은 굴하지 않고 5개월 이상을 끈질기게 싸우면서 매일매일의 일과를 점검하면서 노동운동의 결실을 다지는 일을 계속하였다.

불매운동의 효력과 마무리

5개월간의 불매운동이 회사측에 얼마만큼의 타격을 주었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단지 톰보이 매장 주인들이 복직추진위로 전화를 걸어 "제발 불매운동을 중지해달라. 하루 매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하소연에서 그 효력을 다소 느낄 정도였지만, 백화점의 톰보이 매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피케팅 직후 7월이 되자, 성도어패럴의 회사간부들이 여성단체와 교회기관들을 돌아다니며 문제가 발생한 성도섬유와 불매대상인 톰보이 생산업체인 성도어패럴은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불매운동은 억울하며, 부당하다는 호소를 하고 다녔으며, 전단을 만들어 주택가와 은행, 대기업 사무실 등에 배포하면서 초조함을 드러내었다. 여기서 잠깐 성도어패럴측의 이러한 주장이 근거없음을 해명하고 넘어가야겠다. 법적으로는 성도섬유와 성도어패럴이 별개의 법인체인 점은 인정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먼저 성도섬유와 성도어패럴의 주식소유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가족이 주식

	성도섬유	성도어패럴	비 고
최무정(아버지)	38.2%	15.8%	성도섬유 사장
최형도(아들)	31.2%	51.5%	성도어패럴사장 성도섬유 부사장
최	—	5.5%	
며느리	5.11%	5.48%	

의 70% 이상을 끌고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성도섬유의 일부제품을 성도어패럴에서 생산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도섬유의 부사장이면서, 대주주이며, 사장의 아들이 이 문제와 무관하며, 불매운동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톰보이 불매운동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가 효력이 없자, 회사측은 '절대복직불가'라는 처음의 입장을 바꾸어, 성도섬유에 복직하되 곧 자진사표를 내고 성도어패럴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교섭안을 타진해왔다. 그리고 이때 대학생 출신 2명을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2명을 제외

한 복직을 수락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것은 같이 해고당한 2명을 학생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소위 '위장취업 노동자 탄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같이 싸워온 사람으로서도 인간적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렇게 되자 문제는 현금의 노동운동 경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과 관련된 정치적 차원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여성단체, 해고자를 모두 고변에 빠지게 되었다. 정치적 장벽을 뚫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킬만큼 여성단체나 해고자의 역량이 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역량부족을 자인하고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획득된 것은 없고, 그동안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노동운동의 흐름에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 백기를 들 것인가? 해고자들은 후자를 택하기로 결정하였고, 여성단체들도 이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톰보이 복직이라는 타협안을 수락할 경우 불매운동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고자들은 그동안 지원해준 여성운동단체들에 대해 미안해했지만, 이 싸움의 당사자는 해고자이며, 따라서 이것은 노동운동의 입장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여성단체나 해고자 양측이 모두 인정하였으며 처음부터 그러한 전제 위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매운동은 전경에서는 패배하였지만, 전부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아니, 이 운동은 노동자나 여성단체들 모두 자신의 역량 안에서는 최대한 싸웠으며, 각자 앞으로의 운동에 대한 전망을 발견해 하였던 것이다.

사지도 입지도 맙시다!	
 톰보이 <티버드 스타운·맨투맨>	
이성노동자 항의전화 성도섬유 855-0211~4 성도어패럴 862-3711	집단폭행 불법감금 부당해고
당신의 불매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성도섬유해고노동자복직추진위원회 719-8071 742-9471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이번 성도해고자복직운동은 그동안 당위적 차원에서만 강조되었던 여성운동과 노동운동간의 연대, 또 어떤 의미에서

는 중간계층 여성운동과 기층여성운동간의 연대를 실천적으로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이 싸움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이것을 여성운동 속에서 획득한 경험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대의 성격과 주체설정의 문제이다. 사건의 발단이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노동운동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싸움의 주체는 분명 해고 노동자가 된다. 복직추진위원회의 결성 당시부터 이 점을 공동인식하고 추진위원장을 해고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였으며, 회사측과의 교섭 당사자에 해고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공통의 과제에 대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전략적 차원의 연대형식이 아니라, 힘없는 개별 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의 호소를 여성단체들이 자기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여성단체들이 주도하는 싸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싸움의 주체는 여성단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여성단체의 운동역량의 한계 내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점때문에 여성단체가 노동운동의 영역에 속하는 부당해고 문제를 낯은 단계에서나마 자기 과제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싸움의 방식에서 불매운동이 갖는 위력과 한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다. 자본측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생산영역에서 불매를 통한 방식이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 왔지만, 우리 경우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이 없었다. 이번 성도의 톰보이 불매운동은 불매운동의 위력을 다소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톰보이 상품이 주로 내수시장이며, 아주 고급품이 아니어서 불매에 호응할 수 있는 학생, 젊은 여성층이 구매자였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불매운동은 전단, 스티카, 플랭카드 제작 등 선전비용이 많이 들며, 끈질기게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채택할 방법은 못된다. 단 이번 종로 1가 피케팅처럼 몸으로 부딪쳐 회생을 감수할 때 물리적인 선전비용은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불매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영역에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호응이 있을 때 훨씬 가능해진다. 성도섬유 경우 워낙 내부조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해고 당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호응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싸움의 성공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출신 해고자를 제외한 해고자 복직이라는 정치적 성격이 가미된 회사측의 타협안을 뚫고 나갈 여성운동의 역량 부족이 결정적인 한계가 되었다. 즉 여성운동이 기층여성문제를 자기과제로 안을 때마다 결국은 정치권력의 장벽에 번번히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마저 뚫고 나갈 여성운동의 조직력과 역량성숙이 없을 때에는, 기층여성문제를 자기 과제로 안게될 때의 여성운동은 그 한계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역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운동 역량 역시 기층여성들의 조직적 역량의 성숙에 있음을 재삼 인식하게 된다.

시평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연합회

문제제기

지난 4월 '미혼여성의 결혼희박연령 25세'와 '가사노동 가치 일당 4천원'이란 이경숙씨 사건의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건의문, 성명서, 공개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그 부당성을 즉각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여성운동의 기동성을 보여준 바 있다. 현 여성운동에 있어 '조기정년제'와 '가사노동'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라는 판단에서 각 여성단체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별적으로 취했던 관심과 활동들을 통일된 입장으로 전개하기 위해 「25세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연합회」가 7월15일 결성됨으로써 이경숙씨 사건에 대한 대처는 좀더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합회는 6개 단체 — 「도하나의 문화」 「여성의 전화」 「여성평우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로 구성되어 여성차별적인 판례가 남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여성차별적인 현실을 널리 알리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압력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이경숙씨 역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이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활동과정에서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전체 여성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통일적인 입장이 조망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그것은 여성들의 계층, 혼인 상태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동안 미혼여성들은 결혼희박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중산층 주부들은 가사노동 가치척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었다. 반면 생산직 여성들은 가사노동 가치 일당 4천원에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일당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각 계층의 입장이 다양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생존권 박탈이라는 문제를 포함, 기층여성의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쟁점이 사무직 여성의 권익보호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문제에만 국한되어 중산층 여성운동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엇갈린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통

일해내고 범여성적 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각 계층성을 뛰어넘은 통합된 인식의 규명과 함께 그동안 전개된 여성운동의 반성을 통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첫번째 쟁점 - 조기정년제

첫번째 쟁점인 조기정년제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정년제도로써 조기정년제는 이미 은행원, 전화교환원 등의 직종에서 그 부당성이 지적된 바 있다. 1974년부터 여행원의 자각에 의해 시작된 결혼각서 폐지운동은 여성단체의 후원(여행원교육, 건의문제출, 여성지도자의 로비활동)으로 1976년 폐지되어, 조기정년제의 가장 핵심인 결혼희박제의 벼를 허물었다. 여행원들의 결혼각서폐지 이후 상황은 은행 내 성차별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진 못했지만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타 직종의 여성에 비해 양호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중견행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고시 신설, 승진기회의 부분적 확보, 일부에서의 출산휴직제 신설 등).

여행원의 조기정년제 문제제기와 함께 주목되는 사건은 43세 퇴직무효소송을 제기한 전화교환원 김영희씨 사건이다. 김영희씨 사건은 남녀차별의 문제를 여성운동에 있어 하나의 쟁점으로 제기했다는 점과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여성차별정년무효소송위원회」까지 결성되는 등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교환원의 정년연령이 50세로 높아졌다는 점은 그 성과부분에 있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여성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된 은행원, 전화교환원의 조기정년제 시정 움직임 이외에도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각 현장 내에서의 노동권 확보 움직임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여성들은 취업여성의 연령별분포도(29세 이하 84.2%)와 결혼

상대별구성도(미혼 84.2%)를 볼 때 차별적 조기정년제에 의해 노동권이 박탈되거나, 요즈음같은 불경기 때 강행되는 감원조치에 의해 여성의 조기정년 추세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조기정년제의 심각한 현상을 감안할 때 은행원, 전화교환원의 조기정년제 폐지운동은 개별 현장, 개별 직종 내의 문제에 머무른 한계를 보여주었다. 개별현장 내 문제해결이 여성운동의 확산에 도움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성문제를 인식하는 시각과 운동의 전개과정이 특수 직종, 특수 계층에 머물렀으나, 기층여성의 문제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여성운동의 공간확보와 성격 규정에 중요한 의미를 띠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간의 조기정년제 폐지운동은 운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각 계층의 전반적인 문제로 제기하지 못했으며, 특히 조기정년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사회현실에 대한 구명을 통하여 대중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조기정년제의 사회적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통적인 남녀역할분업론에 기초한 가부장적 통념은 단순·미숙련 직종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가치절하시키고, 여성을 단기간동안만 값싸게 활용하려는 기업가의 이윤추구논리와 결합되어 조기정년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모성보호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의 결여, 핵가족제도, 차별적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의 여성노동현상은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요인들이었다.

이러한 것은 여성을 개개인이 극복해 내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구조적인 장애들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조기정년 무효화란 곧 취업상에 나타난 여성차별의 종식이 아니라 서막이 되는 셈이다. 또한 이경숙씨 사건은 개별 현장 내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차별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체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실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두번째 쟁점 - 가사노동

두번째 쟁점인 가사노동가치 일당 4천원 판결은 '가치'로서 논의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해 준 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논의를 최초로 전개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상반되게 존재되어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해 나가는 필요노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숭고한 가치라는 인식과,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무보수로 담당했다는 점에서 하찮은 노동이라는 인식이 여성들의 의식 속에 혼재되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미혼·산된 영역으로 남아 있던 가사노동을 법적인 차원에서 최하위 노동으로 못박아 버렸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을 숭고한 가치라고 인식한 층에 많은 충격을 줄과 동시에 많은 반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노동가치 일당 4천원은 여성노동현실의 일

면을 반영한 것이다. 즉 미혼여성들은 공식부문에 취업되는 반면, 기혼여성들은 일단 결혼퇴직으로 밀려나갔다가 재취업형태를 취할 때 미혼 때보다 노동조건이 취약한 일용공이나 임시직공으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이 판결 역시 전문직종을 제외한 기혼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혼 후 수입을 도시일용임금노동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재해보상시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확보와 함께, 고립된 가사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여성운동 전략에서 풀어나가야 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과제와 전망

이경숙씨 사건은 개별현장 내, 특수계층 내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동안 여론화 과정에서 형성된 조기정년제 철폐운동은 여성단체들의 연합활동 계기와 함께 과거에 부분적으로 진행, 축적되었던 성과를 수렴하여 범계층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경숙씨 사건을 둘러싸고 현단계 여성운동에 있어서 전개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우선 남녀평등에 기초하여 성안된 법조문이 실체화될 수 있도록 법정투쟁을 지속시키는 일이다. 물론 법정투쟁 자체는 거기에 총당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전 여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접근방법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경숙씨 사건의 관계가 여성들의 재해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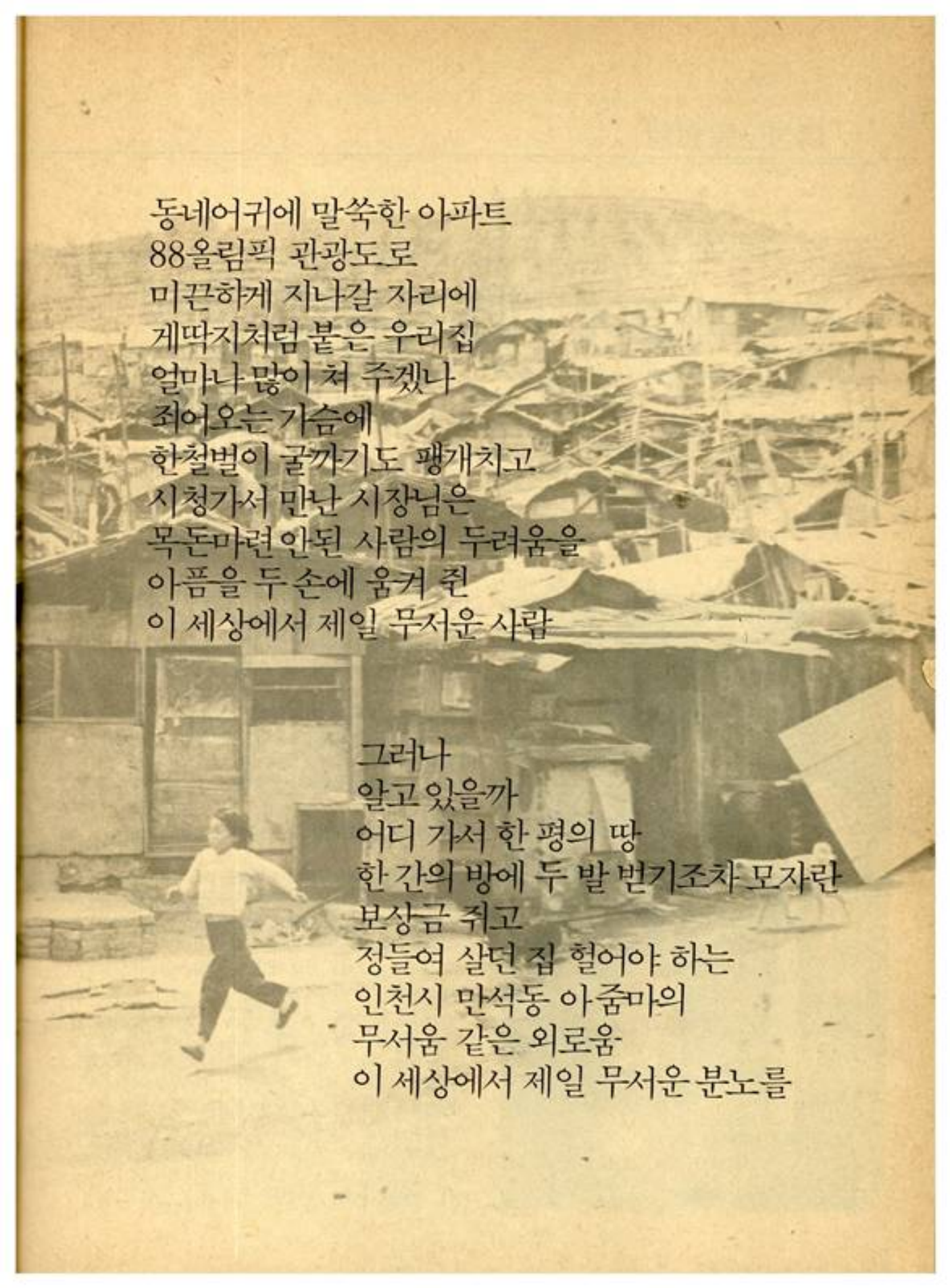
둘째, 그동안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특정 계층에 머물렀던 오류를 극복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조기정년제 및 가사노동의 문제가 특정 계층, 특정 직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계층에 적용되는 구조적 산물임을 명확히 조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차별적 저임금과 조기정년제를 통해 여성을 가사노동에 종사하게 하여 산업예비군화시키고 또한 가사노동의 고립, 가치절하를 통하여 여성의 위치를 더욱 열악화시키는 악순환구조에 대한 다양한 선전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역량이 미진한 상태에서 철저한 이론적 규명과 이를 강화하는 활동은 여성운동의 실체화를 위한 첫 관문으로써 중요한 것이다.

셋째, 앞서 제기된 인식상의 극복과 함께 모색되어야 할 점은 양적·질적으로 확산·비약될 수 있는 운동전략 및 운동방법의 개발이다. 그동안 전개된 운동과정을 보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거나, 계층적 수준에만 머무른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정 지역에서 벗어난 운동전개는 여성대중의 확보와 여성운동의 공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강도높은 방법론 개발은 여성운동의 질적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정착화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인천시 만석동 43번지 사는
아줌마에게 그런 꿈
15평, 보증금 300만원에
월부금 12만원씩
보일라 돌아가는 아파트
없었을까
루핑지붕에 돌었고
판자창에 비닐 가리던
아줌마에게
겨울소마람 보다 더 무섭게
다가온 크런 꿈

피난오던 발길
인천 찐물을
황해도 고향가는 길목인양
갯벌을 내집 마당삼아
판자를 대들보로
짓던 농사 틀어엮고
막벌이로 먹고 사는
영순이네 처마랑 나란히
다닥다닥 붙어 살고부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판자촌에 나는 불



동네어귀에 말쑥한 아파트
88올림픽 관광도로
미끈하게 지나갈 자리에
게딱지처럼 붙은 우리집
얼마나 많이 쳐 주겠나
죄어오는 가슴에
한철벌이 굴까기도 팽개치고
시청가서 만난 시장님은
목돈마련안된 사람의 두려움을
아픔을 두 손에 움켜 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그러나
알고 있을까
어디 가서 한 평의 땅
한 간의 방에 두 발 번기조차 모자란
보상금 쥐고
정들여 살던 집 헐어야 하는
인천시 만석동 아줌마의
무서움 같은 외로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노를

집단해고에 대항하는 안내양

— 상마운수



서울 상마운수 소속 시내버스 안내양 130명은 자율버스 운행계획 철회를 회사측에 요구하면서 신정동 소재 안내양 기숙사 3층에서 농성을 벌였다. 6월 1일 오전 3시 30분부터 시작된 농성사건은 당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회사측이 버스의 6개 노선 중 1개 노선 42대를 자율버스로 운행케 함으로써 일당제인 자신들의 수입이 월 5만원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율버스 제도로 안내양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당면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자율버스=안내양 해고

그러나 상마운수 안내양들의 농성은 보도된 것처럼 자율버스로 인한 수입감소의 방지라는 단순논리의 표출이 아니다. 도리어 자율버스 운행이 자신들에 대한 해고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생존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벌인 집단농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지금까지 안내양들의 문제는 '땡땡' 시비와 인권문제, 작업조건개선 등을 이슈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시위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84년 5월 28일,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114번 보성운수소속 안내양들이 집단농성 및 승차거부를 시도하였다. 또한 창진운수소속 안내양 장길복양이 억울하게 해고당하고 자살하자, 동료안내양들이 집단시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들어서 보성운수(114번), 신촌교통(139번), 북부운수(205번), 창진운수(55번) 안내양들이 임금인상, 몸수색 중지,

노동조건개선을 선결문제로 내걸고 집단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일련의 사건중에서 이번 상마운수 소속 안내양의 농성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율버스 시행 이후 조직적이며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해고조치에 대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최초의 집단농성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버스회사측의 이익을 위해 만든 자율버스는 수많은 안내양들을 거리로 내몰고...

안내양 농성의 근본원인

요금선불제 실시 이후 안내양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민자율버스가 등장하자 안내양들은 버스회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서울시내버스협회의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요금선불제 실시 이전인 84년 10월 25일, 7,978명이던 안내양 수는 85년 5월 8일 현재 4,559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불과 6개월 동안 약 3,000명의 안내양이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마운수 소속 안내양들도 자율버스가 자신들의 일터를 앗아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쌓여 있었다. 마침내 자율버스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상마운수측은 교양시간을 통해 "우리 회사는 자율버스를 절대로 시행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는 등의 말로 안내양들의 불안을 무마시켰다. 안내양들도 월 15일 근무시키려면 자율버스를 운행하지 말 것을 제의하고 부족한 안내양은 자신들이 구해오겠다고까지 제의했다. 그러나 5월 31일 저녁, 다음날 배차시간표가 예정시간에 나오지 않자 안내양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평소 오후 5시만 나오던 배차시간표는 그날 9시가 훨씬 넘어 게시되었다. 배차표에는 109번에 배차된 안내양이 하나도 없었다. 안내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자율버스를 절대 시행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 회사측에 배신감마저 느낌과 동시에 이 제도가 확

산되었을 때 단척을 해고사태가 바로 코 앞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안내양들은 다음날 새벽 2시 50분 한방에 모여 "자율버스 시행하지 말고 부족한 안내양 확보해서 15일 근무시킬 것"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상마운수 소속 안내양은 총 180명으로 130명은 신정동 숙소에, 50명은 난곡 숙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신정동 숙소에서 동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곡에 있던 안내양들이 달려왔으나 농성장에는 이미 경찰과 회사 간부들이 배치되어 합세할 도리가 없었다.

회사측은 안내양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해 안내양들은 오전 10시에 농성을 풀었다. 그들의 요구는 일단 관철되었으나 회사측은 안내양과의 개별면접을 통해 주동자 색출은 물론, 고참안내양들에게 사표쓰기를 종용하고 있다. 또한 안내양 모집공고를 붙이기는 했으나 연령을 18~19세로 한정하고 이력서를 가져와도 잘 받지 않아 모집공고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율버스 실시 이후 많은 안내양들이 회사를 떠났고 남아 있는 안내양들도 수입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물론 퇴직위기에 직면해 있다. 버스회사가 안내양들을 해고시키는 양상은 꽤나 다변적이어서 언뜻 보아서는 감추어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고참들은 오래 있을수록 퇴직금에 손해가 나니까 사표를 빨리 쓰면 쓸수록 유리하다"는 반강제적인 위협이 거의 모든 회사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저역의 경우 행방을 유도한 후 적발, 고발 안 할테니 사표쓰라고 강요하고 퇴직금조차 주지 않은 채 내쫓는가 하면, 운수는 기숙사 규율을 강화, 피머·화장·메니큐어에까지 간섭하다가 지나친 규제에 항의하면 못 견디겠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안내양들을 거리로 내모는 자율버스제도는 왜 생겨났는가. 또한 자율버스로 인해 시민과 운전수는 어떠한 불편을 겪는가.

자율버스는 왜 생겨났는가

자율버스제도의 실시취지는 다음 세 가지이다. ① 시내버스 요금 수수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② 이용시민의 자율정신 및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③ 안내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운송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①, ②는 '자율버스는 곧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은 ③의 운송원가절감이 자율버스제를 확산시키는 제일 원인이 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내양 수

현재 안내양의 수는 차량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버스 1대당 적정인원은 2.3명이나 83년 7월말 현재 안내양 수는 1.18명에 불과하다.

안내양 수의 절대적 부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는

버스회사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안내양을 적정인원수보다 적게 고용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며, 두번째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이 낳은 높은 이직률이 빚어낸 현상이다.

안내양들의 이직률은 83년도 연평균 85.6%로서 타직종 여성근로자보다 3배나 높다. 월평균 입직율이 6.3%인데 비해 이직율은 7.1%에 달하고 있다. 이직의 주된 이유는 저임금 28.5%, 비인간적 대우가 26.4%로 나타나고 있다(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설문조사 참조).

안내양들은 첫차를 배정받을 경우 새벽 5시부터 근무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0:30까지 하루 1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하면 격일제 혹은 복격일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보통 3일 연속근무에 하루 휴식하거나 심지어는 8일 계속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회사도 비밀비제하다. 게다가 차에서 내리면 차내 청소까지 떠맡아야 한다. 규정상 청소원을 따로 두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안내양들의 수면시간은 3~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안내양들의 대다수가 17~20세 소녀이어서 "여자와 18세 미만 연소자에게는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안내양의 임금도 전산부문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임금체제도 지극히 불안하다. 월수령 임금에 중 기본급은 5만원 정도여서 봉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도의 성과급과 가산급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일당식 월급제는 고정된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아 생활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근속급제도의 미확립은 장기근속자의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귀속감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 아래에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해서라도 연장근로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임금손실부분은 다른 어느 직종보다 높다. 도로에서 운행되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개문발차사고나 안전사고가 잦고 이로 인한 수입감소를 감소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성질병에 기인한 병가 및 결근에 따른 임금손실분도 큰 것이다.

이외에도 손님들로부터 받는 비인간적인 모욕감이 안내양들의 이직율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내양부족 해결위한 자율버스, 오히려 안내양 해고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안내양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이르자 당국은 부족한 안내양을 화석버스와 자율버스의 증가로 해결하려 하였다. 안내양 부족해소라는 미명하에 자율버스를 급격히 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 오히려 안내양 감원수단으로 탈바꿈시키고 말았다. 실제로 버스회사측은 안내양부족을 내세워 자율버스를 신청한 뒤 자율버스를 구실로 안내양을 해고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자율버스 한대 당 10,000~15,000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자율버스의 폐단 - 이용에 큰 불편

자율버스는 안내양의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운전수와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율버스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 기능을 빼앗기고 있다. 초행자는 불안에 떨며 버스를 타야하고 노약자 및 신체부자유자는 부축을 받을 수 없어 급정차 시나 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삐거나 넘어져 다치기 일쑤이며 심지어 귀한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 노약자 및 신체부자유자는 물론 일반승객까지도 버스를 내릴 때는 불안해 한다. (출발·정지신호 없이 앞에 있는 운전사가 문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자율버스이후 문틈에 끼인 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수의 경우를 보면 업무부담은 2배 3배로 늘어난다. 고유업무인 운전 외에 앞문과 뒷문을 차례로 열고 닫으라, 요금을 확인하라, 뒷문으로 타는 사람 없나 감시하라, 운행 중 안내방송 하라, 이 북새통에 누가 어디에 내려 달라고 해도 잊어버리기 십상이며 결국은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운전기사들은 자율버스를 배차받아 한번 돌고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고 피곤함이 훨씬 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기능이 마비된 자율버스는 초행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일종의 폭군이며 운전수의 업무강도를 높이고 안내양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버스회사에서 밀려난 안내양들은 배운 기술도 돈도 없이 과연 어디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인가. 유흥업계로 흘러들어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자율버스는 갈수록 확산, 서울 시내를 유유히 배회하고 있다.

자율버스는 정당인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33조 6항에 의하면 버스에는 항상 안내양이 승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한 기계를 사용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65조 66항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식문에서의 개문발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기문식도어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의 공식적 인가도 받지 않은 자율버스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며 직장인으로서의 안내양이 누려야 할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율버스제도는 선진국 운운하면서 걸만 번드르르한 허울을 이제 벗어던지고 고용자측의 이익보장 측면에서가 아닌 안내양의 생존권 보호와 보다 편리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현실

폭력으로 얼룩진 부흥사 연대파업

이글은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3명에 대한 구속조치후 이에 항의하여 연대농성을 벌인 (주)부흥사의 한 여성근로자가 쓴 것임.

6월 동맹파업 당시 저는 부흥사 완성반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사는 1,200명 생산직 사원들이 연 순이익 10여 억원을 남기는, 봉제공장으로서의 매우 드문 큰 이익을 자랑하는 공장으로서 생산품인 잔·피엠티 한 벌에 16만원씩 하는 고급 기성복으로 거의 전량을 수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로자들의 월급은 다른 봉제공장 수준보다도 훨씬 떨어져 시다 초임일당이 2,200원, 저 같은 완성반 프레스공은 2,500원을 받았습니. 2,200원이면 전업안할 때 66,000원을 받게 되니, 거의 세 달을 일해야 하루에도 500여벌씩을 손으로 다리거나 꿰매내는 그 혼한 양복 한벌을 겨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될지 뻔한 일입니다. 또 오래 근무하면 나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일로 쫓겨난 완성반 김영심양 같은 친구는 16살때부터 올해까지 8년을 근무했는데도 일당이 2,000원 이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부흥사가 이런 불황중에도 봉제공장으로서의 드물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이유를 더이상 말안해도 뻔한 일이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 '84년에, 전혀 활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정으로 저희를 위해 일하려는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어용노조를 합법적인 대의원선거를 통해 뒤엎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를 몇번의 농성을 통해 힘으로 관철시켜 무려 일당 860원 인상의 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조합의 힘을 깨달은 동료들은 며칠사이에 200여명이 조합에 가입하는 등, 비로소 우리의 뜻이 단결과 승리로 실현되었다는 기쁨으로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민주노조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대우어패럴 조합간부들이 구속되고 9개 노동조합과 20여개 사회여론 단체가 동맹파업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거의가 여공인 그들의 용감한 파업농성은 부흥사까지 술렁이게 만들어 사방에서, 일반 동료의 입에서도 농성에 가담하자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보다 늦게 6월 27일 조합 간부 임원들은 파업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업이 결행된 6월 28일 아침은 저는 물론 부흥사의 많은 동료들에게 인생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7시 55분경 갑자기 공장 곳곳에서 3층 재단실로 올라가라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조합간부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외친 몇사람 외에는 파업결정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회사측에서는 깜짝 놀라 재단실로 오르는 통로를 남자 관리사원들을 동원해서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금방 파업의 뜻을 알아차린 300여명의 동료들이 주저하지 않고 몰려들어 승강기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변의 몇사람을 데리고 서둘러 계단을 오르는데 주임 과장들이 통로를 막고 밀어내려 겨우 뚫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재단실에는 이미 150여명이 올라와 있었는데 관리자들도 몰려들어와 완성반 남자들을 주먹으로 때려 끌고 내려가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에 30여명가량의 여자들도 끌려 내려가서 도저히 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다리가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하여 열심히 노조활동을 해온 대학출신 공계전씨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형광등을 깨며 안내려가면 때리겠다고 소리치자 겁에 질린 관리자들은 순식간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4개 출입구를 재단다리로 막아버리고 모두 모여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총가」, 「흔들리지않게」를 불러 사기를 높이고 인원점검을 했습니다. 총 18명이었는데 그중 남자는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스무살 안팎의 앳된 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우어패럴에서처럼 수도물이 끓길 것에 대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통에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두는 한편 준비해간 비상약을 점점하고 문바다 남자들이 보초를 섰으며 창문을 모두 폐쇄하고 밖으로 플랭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석방과 부흥사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을 뿌리기 위해 창밖을 보니 미처 들어오지 못한 동료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며 올라오는 게 보이고 회사의 휴업명령으로 관리자들에게 의해 마당에까지 들어온 통근차로 밀려가는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관리직들은 기숙사에 들어가 1인당 3만원씩 주고 잠에 가라고 동료들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피커가 없어 종이를 말아, 가지말라고 외쳤지만 통근차로 한대씩 회사밖

으로 떠났고 10시경에는 회사안에는 우리외에 노동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다.

회사 정문밖 길가에서 통근차를 타지않고 우리를 지켜보던 동료들 30명가량도 경찰과 남자들에 밀려나 버렸습다.

그리고 바당에는 살기등등한 남자사원들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한동안 모두 없어지는 것이었습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들은 사장의 명령에 따라 각목과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산시킬까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11시경에 마침내 물이 끓어났습다. 우리는 곧 창문들에 올라가서 수도물을 틀라, 아니면 무신하겠다고 외쳤습다. 그러자 30분만에 다시 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다.

점심시간이 지나며 허기가 지자 우리는 물에 설탕과 소금을 타서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운 분위기를 잃지 않았습다. 몇몇 여공들은 불안에 떨기도 해서 오후에는 7명씩 팀을 짜서 이야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다. 분위기는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따뜻하고 자유로웠습다. 수십년의 켜든 일속에서 갑자기 해방된 듯한 한없는 기쁨, 같은 운명에 놓인 동지로서의 끈끈한 애정이었습다. 시간이 갈수록 허기가 저서 해방출을 추고 나면 한참 쓰러져 있어야 했지만 아무도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았습다. 저의 공장생활 10년동안에도 그날처럼 혼돈스럽고 그러나 행복했던 때는 없었습다.

4시가 됐을 때 관리 하나가 스피커를 통해 "빨갱이가 조원들을 선동했다. 이제라도 모두 내려오면 용서해주겠다"는 방송을 시작했고 우리는 회사에 그만 아무하라고 외치며 맞서 구호와 스피커 소리가 서로 요란하게 싸웠습다. 30분후 디어상 말을 못하고 스피커가 조용해지고 우리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다. 그런데 5시반쯤 됐을까, 갑자기 세일 큰 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려하는 것이었습다. 우리는 들어오면 무신자살하겠다고, 옷감에 불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옷감으로 바리케이트를 다시 치려했으나 갑자기 문틈으로 소화기 가스가 쏟아져 들어와 순간적으로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는 아우성을 쳤습다. 저를 비롯한 농성주동자들은 곧 막대기를 들고 싸우자고 소리치며 마주 소화기를 쏘아댔습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계획대로 창문에 소화전을 대고 물을 뿜었습다. 사방에서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오자 심약한 여공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다. 그동안 문은 완전히 열리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든 100명 가까운 남자들이 다치는 대로 두들겨 때려 뛰어들어 오고 있었습다.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우리를 개패듯이 두들겨 농성자들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피루성이 되어 쓰러지고 비명소리와 구석에 숨었던 여공을 끌어내어 구둣발로 목과 가슴을 짓이겨 울부짖는 소리로 농성장은 지옥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다.

문앞을 지키던 남자 한 사람에 10명이 달려붙어 파이프를 전신을 때리고 구둣발로 짓밟아 피가 낭자하였으며 여공들이 매를 맞으며 한쪽으로 밀려 스크립을 짜고 주저앉아 남자들은 재단다이 위에 올라가 그들의 머리위로 뛰어내리고 발을

푹푹 짓이겨며 목과 어깨위로 뛰어다녔습다. 그리고 스크립중에서 노래를 가르치거나 구호를 외쳤던 주동자가 발견되면 발길로 걷어차며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내는 것이었습다. 그 잔인한 전경들도 스크립을 풀려면 손을 잡아끈다는데 경찰과 회사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머리채만 잡아당겨 끌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놈들이 사람 다 잡으려는가'고 외치며 막아서다가 순식간에 머리채를 휘어잡히며 등, 다리, 어깨 가슴을 난타당하고 반쯤 실신한 채로 질질 끌려 나갔습다. 나중에 우리의 빠진 머리카락을 모으니 양손으로 움켜쥔 만큼 많았습다. 모든 동료들이 온몸에 적어도 10군데 이상 피멍이 들고 살갗이 터져 나갔습다.

약 30여분 동안 농성장은 완전히 도살장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하게 맞아 실신상태에 빠졌거나 감지도 못하게 된 10여명이 업혀 나가지 않으면 안됐는데 그동안 밖에 서 있던 경찰들과 신문기자들이 무얼했는지 모르겠습다. 더구나 주동자라고 분류된 30명은 따로 감금되어 회사 관리들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다. 회사관리들은 무슨 형사라도 된양 뺨을 때리고 위협을 해가며 여공들을 옥박질렀습다. 또 나머지 80여명은 완성반 작업장에 죄인처럼 무릎 꿇린 채 앉아 사표를 강요당했습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따귀, 주먹, 위협, 육설로 옥박질러 모두의 사표를 받아냈습다.

저를 포함하여 15명은 아예 폭력으로 고발하고는 내버려 두었는데 우리가 있던 기숙사 방에는 우리의 동료들이 모두 부상과 고통으로 쓰러져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다. 게다가 가장용 감히 싸웠던 사람 중 한 명인 공개전씨에 대하여 관리자들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병신주제에 주제파악하라'는 등 신체적 고통에 대해 모욕을 주며 쇠파이프로 후려쳐 거동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역시 용감했던 문운수군은 갈비뼈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다음날 입원까지 했습다. 두명의 여공이 매를 맞는데다 정신적으로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발작증세를 일으켜 입원했으며 그날 곧바로 사표를 쓰고 쫓겨난 설명회 양은 며칠 뒤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다. 또 한 여공은 쇠파이프에 맞아 어깨가 으스러졌는데 집안의 압력으로 고향에 그대로 끌려가 아직 소식을 알 수 없습다. 그 밖에도 우리 모두의 몸에는 사건이후 보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열군데 이상의 멍자국이 남아 있으니 그날의 폭력이 얼마나 심했단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 경찰에 연행된 14명 중 5명이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입건으로 일단 풀려 나왔지만 재판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특히 연약한 여공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무자비한 폭력은 곧 이 나라 현정부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며, 그날의 상처, 그날의 환희와 더불어 그날에 보여준 정부와 자본가의 본성도 모든 사람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다시 떠오르는 들불이 되어 이땅에서 불의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걸고 그날의 비극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중한 노동과 무권리의 현실



'85년 4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23일 아침 6시 강동구 암사동 380번지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 동네 신우희(여, 31세)씨가 상치값이 폭락하여 손해를 본 것을 비판, 자살했다는 간단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신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야비지를 설득하여 1,800여평의 비닐하우스에 상치를 재배했으나, 지난해 가을 상치 1근 가격이 1,200원에서 600원으로 폭락하여 500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현재 재배중인 상치마저 작황이 나빠 값이 떨어지자 이를 비판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살은 신씨 한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신문에 보도된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17일에, 강동구 고덕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상치를 재배하던 함씨도 상치값 폭락으로 1천만원의 손해를 보자 자살하였다. 또한 지난 '80, '82, '83년 계속하여 고추가격이 폭락하자 경북, 충북 등의 고추생산농가는 파산하여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마늘도 '79년 두껍에 400원으로 값이 폭락, 마늘을 재배했던 농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82년의 양파농사도 농민들이 양파를 「땅아래기」 「담아내기」로 부름써 길가에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고, 피눈물을 흘린 농민이 한두명이 아니었다. 이번 신씨의 경우는 특히 여성농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농촌여성이 짊어지고 있는 이중부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농촌여성은 농업정책에서 벗어지는 농촌빈곤의 문제와 가부장제로 빚어지는 여성 문제라

는 모순을 한꺼번에 지고 있는 점이다.

한국의 농촌이 '60년대 이래 겪어온 심각한 농촌문제는 다음과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고도경제성장을 위하여 대외의존적 수출산업전략으로 일관하였고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해 도시의 저임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저임금 유지를 위해서는 저곡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농산물가격이 노임값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자, 자연히 농촌의 빈곤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생계유지조차 힘든 이 가난한 농민을 농촌에서 밀어내 이농현상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농촌에는 노인과 아이 부녀자만이 남게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심각한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농촌부녀자들이 농촌의 주요한 농업참여자로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80년대에 들어 농업정책은 저곡가정책의 계속적인 유지와 함께 개방농정과 복합영농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방농정은 '83년 레이건대통령 방한 이후 김요해진 미국의 수입개방요구에 따라 외국의 농축산물을 도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도입으로 400여종의 농축산물('83년의 경우 21억 9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520억원, 총수입의 10%)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였고 따라서 농가경제의 파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도입으로 가격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의 복합영농의 권장은 특용작물이나, 축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유인한 면도 있으나 계획하에 생산을 유도한다거나 가격 및 판로의 보장이 없는 정책으로 생산과잉을 일으켜 작물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번 신씨의 사건도 농가부채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농가부채의 증가는 양적 증가도 심각하지만 더욱 농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이 점차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빚잔치를 하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농약먹고 자살하는 사태는 바로 그점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 문제 외에, 신씨가 짊어져야 했던 또 다른 문제는 농가부녀자로서 겪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민으로서 당하는 문제는 '빈곤과 성차별'의 이중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의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농업이 처해 있는 농가경제의 열악화에 따른 상대적 빈곤의 문제이며, 성차별 문제는 가부장적인 봉건잔재의 남은 유제가 농촌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농가부녀자가 가족노동에 투하하는 노동투하량이 1970년에 33.8% 이던 것이 1980년에는 41.7%로 7.9% 증가하였고, 고용노동에서는 26%였던 것이 42.6%로 16.6% 증가했고, 품앗이에서는 34.8%였던 것이 50.5%로 15.7% 증가했다. 특히 품앗이의 경우, '80년에는 남성이 42.6%를 차지한 반면, 여

성은 32.6%에서 42.6%로 노동투하량이 10% 증가되어 여성의 농업노동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수산부, 「농가경제 조사보고결과」, 1981).

가장 중요한 시기인 농번기에 농촌주부의 노동시간은 어느 계층이나 14시간 정도의 노동투하를 하고 남성은 13시간 정도인 것을 보면, 여성에게 농업생산 담당자로서의 위치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성들은 집안농사의 돌일과 논일을 하며 이에 더하여 현금수입을 위해 따로 더 일을 해야 하며 요즘은 여자들의 품앗이와 농사일 참여가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동네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농업노동에서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높아진 만큼 농사일의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남성의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가부장제적 의식의 잔재로 인하여 여성노동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비하되거나 무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농민은 대부분 중요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바에 따라 노력봉사하는 식으로 참여하며, 간혹 여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남자가 주도권을 가로채가고, 여자들을 집안으로 돌려보내거나 신씨의 경우처럼, 농작물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주도하여 남편과 시아버지를 설득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자기 자신이 압력과 책임감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노동력을 담당한 농민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민여성은 농민의 당연한 과제인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여성으로서의 문제인 가부장제적 억압적 사회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여성농민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농민운동을 하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농민운동 참여의 정도를 남자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앞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바로 그 가부장제적 통념을 깨부수면서 농민운동의 궁극적 목표가 가난과 가부장적 억압의 철폐를 포함하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농민운동이 주위사람에 의해 제기되기 보다 바로 여성농민자신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장 여성운동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경북 성주에서 여성들이 민주적 이장선출이라는 농촌의 권력구조를 바꾸는데 까지 운동을 이끌 수 있었던 예는, 여성농민들이 농민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훌륭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농촌여성현실과 여성농민운동」, pp. 33~39」).

앞으로의 추세로 보면 농촌여성이 농가부녀자가 아닌 여성농민으로, 농업노동력의 주요한 담당자로 계속될 추세이며, 농민운동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증가되어 여성으로서의 문제도 함께 풀 수 있는 여성운동 또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대회평

근로 여성 대회



지난 5월 20일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여성부 주최 85근로여성 대회는 여러가지 점에서 특이하고도 인상적인 행사였다.

한국노총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떻든간에 노총의 조직동원에 의한 2,500여 노동여성대중이 참여했던 이 행사는 규모 자체로만 봐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는 것이었고, 더구나 약 5시간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개가 주최자측이나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들기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한 일체감과 열기로 고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대회는 기존의 (특히 노총에서 행했던) '대회' 나 '행사'가 갖고 있던 상투성과 의례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여성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공동체적 유대감에서 출발하여, 이를 하나의 지향점을 향한 공감대의 형성 -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제반 조건에 대한 분노와 나아가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운동(노동조합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결의 - 으로서 성취·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점에서 3부 근로여성대동놀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행사 전체를 냉정한 눈으로 분석해 본다면 대회 주최측의 입장 차이로 인한 다소 모순되고 단절되는 듯한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여 노동문화운동의 새로운 방법론 및 단서를 발견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일차적으로는 그 객관적인 보고(報告)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로서의 1차 자료, 즉 연설문의 내용이나 공연대본, 식순, 그림 등은 그 일부가 당일 캄플렛의 형태로 나오기는 했으나,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3부 공연의 상세한 대본을 노총에서 차후에 발간하겠다고 미루어 아직 입수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상과 입장이 개입되는 불가피한 제약을 무릅쓰고 가능한 한 대회당일의 자세한 보고를 통하여 1회적 공연의 형태로 증발해 버린 대회 현장의 열기와 그 의미를 기록해 두고자 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85근로여성대회는 금년도 노총이 주요 목표로 설정한 모순투성이의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의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 및 연소노동자보호강조기간에 마련한 축제적 성격의 행사였다.

대회는 1부 개회행사, 2부 발표와 토론(합쳐서 약 2시간), 3부 근로여

성대동놀이(약 2시간 반)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대회사 및 모범근로여성 표창, 그리고 내빈 축사로 이루어진 개회행사는 어느 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의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에서부터 노총 지도자, 국회의원, 여성단체회장 등의 내빈 축사가 매우 장황하고도 공허하여 노동자들에게는 자부심을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격식에 불과한 느낌이었으며, 특히 노총 지도자를 '우리들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등, 진행측의 발언들은 극히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풍겨 대회 이념과 모순된 것이었다.

2부에서는 두 편의 주제강연과 토론(5분 발언)이 있었다.

첫번째 강연은 미국노총 여성활동 책임자인 쉐시아 맥킨(Cynthia McCaughan)이 발표한 '여성의 권리와 노동'이었는데,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성,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과 적극적인 조합활동 및 투쟁이 가져다 줄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국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한 장황한 소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노동여성 대중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영어로 한 강연이 청중들의 집중력을 약화시켰으며, 이어서 계속된 강연 내용의 번역 전문 낭독이나 두번째 강연,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의 진행과정이 관객들의 분산된 주의력과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를 수렴시키지 못한 채 계속되었다.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만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조문의 구구한 해석과 방향성 제시보다는, 좀더 실증적인 사례와 접근하기 쉬운 설명으로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시키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을 듯한데, 그 '필요성'마저도 관객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2부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5분발언은 4~5명의 노동자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여 주의·주장을 펼치거나 현실을 고발하는 '현장의 소리' 순서였는데, 다시 관객들을 한 마음, 한 호흡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지극히 감동적인 자리였다. 대한마이크로전자의 부당노

동행위, 노조탄압사례, 대우어패럴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84년도 가을 단체협약시의 싸움과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한 보고, 운수노조대표의 안내양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고발과 정부의 자율버스운행제 실시에 따른 실직 노동자 문제의 제기, 금융노조 대표의 여성차별현실에 대한 규탄 등,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여성노동자들의 한(恨), 울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했던 것이다.

그 '현장의 소리'를 통해 모아진 절규와 합성이 노동자들의 연대감을 만들고, 3부 근로여성대동놀이로 이어져 뜨겁게 타올랐다. 토론회 직후에 70~80여명의 풍물패가 장단 소리도 높게 입장, 길놀이를 시작하면서 장내 분위기를 점차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악법 개정하라!' '8시간 노동제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님, 평등님, 자유님, 정의님……'께 '해방의 그날이 하루 속히 오도록' 기원하는 감동적인 고사문이 낭독, 소지된 후에 본격적인 놀이마당이 펼쳐졌다.

놀이마당은 크게 노래놀이와 극놀이를 구성되었으며, 풍물패와 함께 입장한 40~50여명의 잡색들이 노래·유행(4박자 춤, 「늬은 노동자의 노래」에 맞춘 해방춤, 「흔들리지 않게」에 맞춘 단 걸박수 등)과 잡색놀이(사용자측과 노동자측으로 편을 갈라 싸움, 미지기, 진풀이 등을 엮은 놀이)를 하면서 관객들을 연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노래놀이 속에는 촌극(노래극)이 곁들여져 재미를 더했는데, 작년 7월 전주전차회사에서 여종업원들을 알몸수색하여 물의를 빚었던 '영아 사체유기사건'을 근간으로 하여 일반 여성노동자들의 사랑과 이별, 모성 보장에 관한 문제, 생활의 애환을 친근한 대중가요와 함께 신파극으로 꾸며 관객들을 열광케 했다.

뒤이어 앞놀이 격인 잡색놀이를 편을 열고 극놀이를 다시 연결시켜 나갔는데, 먼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사형을 선고하는 근로여성 모의법정이 열렸다. 이 재판극은 노동자들의 잠재된 문화적 역량의 엄청난 힘을 실감케 했으며 근로

놀이를 통해 맺힌 한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속에서 맺힌 한을 되씹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진짜 싸움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근로여성대회의 참 뜻을 살리는 길.

여성법정의 무대설정과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등의 형태로 보여지는 증거물 제시, 마임의 적절한 구사, 합창단이 부르는 독창적인 개사곡 등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끊임없는 폭소와 승격을 던져주었다.

다시 한번 검색놀이가 벌어진 후에 마당극으로 이어졌는데, 작년 상반기에 결성된 신규노조 효성물산의 조합원들이 꾸민 노조결성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제로 한 첫번째 마당극은 연기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진실한 것만이 살아 있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명제를 확인케 한, 참으로 감격적인 마당이었다. 한밤중에 기숙사에 침투한 노조결성 방해공작원들의 행태를 재현한 폭력적 장면이나 칠전 팔기·노조결성의 소원이 이루어진 결성식날의 감동을 상기하는 장면 등은 연기자들과 관객 모두를 가슴 뭉클 눈물 도가니로 몰아넣고 '단결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에 서로가 진저리치게 만든 생생한 순간들이었다.

눈물을 닦고 단결된 힘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을 통해 당당히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개선의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협의로 들어가는 두번째 마당극은 거들먹거리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용자측의 횡포와 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발동으로 농성 및 단식투쟁을 강행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사태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촛불의식이 있은 후에 관객들 사이 사이에 자리 잡은 연기자들이 메가폰을 통해 구호와 주장을 외쳐대고, 이제 문화체육관은 농성 현장으로 바뀌어 전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자세로서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

'8백만의 함성으로 노동3권 쟁취하자'는 천장을 찢을 듯한 구호가 외쳐진 후에 곧바로 가사를 구호로 바꾼 민요 '배지나 청청 나네'의 함창으로 들어가니 바야흐로 대회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한 듯이 보였다. 풍물패는 뜨거운 장단으로 관객석을 누비며 돌아가고 2명의 노동자가 마이크를 구호를 외치면 다 함께 빛소리를 받고, 점점 휘몰아치는 장단이 절정에서 막 멎었을 때 대회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촉구,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관리의 시정촉구, 모성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촉구, 여성운동의 중심적 추진세력으로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적극적인 노동운동에의 참여를 다지는 결의문이 조목조목 읽히질 때마다 노동자들은 환호로서 동의하였고, 이어 노총 간부가 폐회를 선언함으로써 사기충천했던 근로여성대회는 막을 내렸다.

폐회 후에 놀이마당에서는 노동자들이 함께 어울려 군무를 추는 댄스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성급하고도 미숙한 끝마무리 때문에 대회의 열기가 공중분해되어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노총이 주관하여 문화체육관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가 나름의 한계를 갖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일회적인 행사를 통해 노동여성대중이 안고 있는 축적된 모순과 한을 일시에 풀어버리고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더구나 이런 떠들썩한 행사로서 '여성및 연소자노동보호 강조기간'의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자위는 노총으로서는 크게 경계해야만 할 일이다.

대회는 일관하여 끌어올렸던 여성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사에 이어지는 것이니만큼 그 성과를 검허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매체를 통한 교육·선전작업의 강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배적 문화에 대항하는 노동자 문화의 주체적인 양식을 찾아내고 확산시키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갖는 일인 만큼 '놀이'를 통해 맺힌 한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 맺힌 한을 되풀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진짜 싸움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근로여성대회'의 활력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화민주대동제

‘이화민주대동제’는 이화여대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99년이 됨을 기념하며, 일백년의 이화가 이제는 한국의 암울했던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우뚝 서야 할 도약의 시기임을 시사하였다.

이화민주대동제는 5월 28일 전야제(장승제)를 필두로 하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민주·민중·민족의 문제와 함께 여성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화여대가 대학이 갖는 진리와 정의추구라는 보편성과 여대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기의 현실에 맞는 문화를 창조해가며 그러한 문화적 풍토에서 여성해방·민중해방의 선봉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 대동놀이의 의의

99주년 기념 이화축제가 ‘이화민주대동제’라 하여 대동놀이의 양식을 전반적으로 택한 것은 민중·민중해방 속의 여성해방이라는 주제를 공동체적 공감대로 형성·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왜곡 속에서 의식까지 침식되고 비틀려 건전한 감수성의 발로가 차단당하고 창조적 삶의 공간이 열려 있지 못한 현상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문화형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식공동체의

회복 및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대동놀이는 현 문화의 구조적 모순의 본질이 문화의 창조자와 향유자의 철저한 괴리와 분리로 규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활동을 통해서 놀이주체로 일어서는 집단적인 과정인 동시에 노동에서 소외된 우리들의 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동놀이는 집단적인 동질성을 확보해 가면서 개인적인 한을 집단적인 한풀이로 전화시켜 삶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신명풀이다. 즉 공동체 형성, 주체적 문화의 회복으로서 오늘날의 대동놀이는 현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공동의 열원을 실현하는 일과 개인주의적 사고를 일소하는 집단적 단결과 결속을 도모하는 놀이인 것이다. 대동놀이 과정에서 의 민중·민주·여성해방의 의지는 장승제와 상항극, 대동줄다리기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표출되었다.

2. 여성해방을 향한 의지

먼저 29일의 장승제는 여성해방양행(女解放行)과 민중해방군(民衆解放軍)을 합한시켜서 학생회관 앞에 심었다.

장승제란 마을의 수호신인 장승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여성해방양과 민중해방군의 혼례식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여성해방 그리고 민중해방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대동놀이는 집단적인 동질성을 확보해 가면서 개인적인 한을 집단적인 한풀이로 전화시켜 삶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신명풀이이다.

하는 이화인의 열망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서 민중들이 처한 억압구조와 더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계층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의 축제 방향성을 밝혔다.

다시 말하여 해방이후 식민지·반봉건 잔재세력의 미청산과 미국에 대한 의존에 따라 또 다른 식민상황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부채의 누적, 경제의 외자의존적인 체질, 농촌의 파괴와 저임금의 노동문제 등과 함께 이에 대한 민주화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묵살되어 온 한국의 현실을 보며, 우리 대학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재고해 보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을 밝혔던 것이다.

이외에 이화내의 여성문제인 성(性)적으로 대상화되는 여성의 문제, 즉 이화인의 화려한 외모와 광고속에서의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새 이화운동'을 전개하여, 강인하고도 주체적인 여성상 설립을 위한 작은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동절에서의 여성문제 제기는 축제가 끝난 후에 계속적인 연계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축제속의 행사가 이화내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과제를 남겼다.

3. 한국현대사에 나타난 민주화예의 의지

'살아! 민족의 꽃들이여'는 30일에 거행된 상황극이다.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그 이후 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 사건까지를 연결해 극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극은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와 연관하여 한·미관계의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행사였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폭도들의 광주사태가 아니라, 왜곡된 역사로 점철된 한국사에서 민중의 예내르기를 실제로 나타낸 민중항쟁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여론화를 위해 미문화원에 들어간 학생들의 자세, 이

념을 나타냈다. 또한 해방이후 우리의 영원한 우방으로 애기되는 미국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야 함을 밝혔는데, 한·미관계는 세계전라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의 유지라는 측면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광주민중항쟁시 미국의 용인하에 군의 투입이 이루어졌다는 일례를 통하여 미국의 본질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의지를 가다듬게 하였다.



이어진 '악귀는 몰알로 민중은 이리로'의 거리극은 학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어지는 가상시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1 장은 자율화조치 이전의 시위 형태로서, 색이렌이 울리고 주동자가 건물 배란다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는 만장한 사복경찰에게 무참하게 끌려가는 모습과 건물 밑에 있던 학생들이 스크린을 짚고 구호를 외치며 사복경찰과 맞부딪치는 모습을 현실감있게 묘사하였다. 2 장은 자율화조치 이후의 집회의 모습을, 3 장(운동장에서 거행)은 이화교에서 전경과 학생이 최루탄과 투석전으로 대치하는 상황을 표현하였다.

4. 대동줄다리기

대동줄다리기는 줄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까지 전이화안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행사였다.

5월 23일부터 줄을 모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5명이 한 조가 되어 손이

부르르도록 줄을 꼬고, 목이 터지도록 '영차 영차'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흥이 나면 술과 먹을 것을 둘러싸고 다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현대의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적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가슴 벅찬 감정을 맛보는 진한 감동을 자아냈다.

또한 꼬아진 줄을 잡아 주는 일, 70여 개의 100여m의 줄을 모두 모아서 커다란 몸체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고 하다 보면 신명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5월 31일은 아침부터 가쁜하게 옷을 입은 채 각 과의 깃발아래 모여서 놀이패(풍물패)와 함께 교내 곳곳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면서 시작하였다. 각 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놀이패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내를 한바퀴 돌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개촌식의 고사를 통해 대동줄다리기가 진정 우리의 대동의 의지를 모아 이 땅의 모든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이 땅의 모든 개인주의적 형태를 일소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고, 이 땅의 모든 압제를 불사르고, 또 이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 오기를 기원하였다.

다음은 줄을 옮기는 순서였다. '민주쟁취' 팀과 '민중해방' 팀으로 나누어 줄을 옮기고는 놀고, 또 조금 옮기고는 놀고 하여 정말로 줄다리를 하는 시간은 4시가 넘었다. 줄다리기의 양고와 수고를 연결하여 거대한 하나의 줄을 완성한 다음, 줄다리를 하였는데, 1만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의 대동의 의지를 모두 '민중해방'과 '민주쟁취'를 외치면서 줄다리를 하였는데, 승패를 떠나서 이긴 팀도 진 팀도 모두 어울리어 뒤풀이를 하였다.

선봉춤, 해방춤, 그리고 4박자춤을 추며 어깨에 땅이 들고 다리가 아파도 즐거운 마음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수천의 사람이 강강수월래를 하며 운동장을 돌 때의 감격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이화인이며,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이 땅의 역사의 질곡을 걸머지고 나갈 젊은이임을 느끼게 했다.



5. 앞으로의 방향성

대동놀이는 기존의 소비적인 축제 양식을 과감히 청산하는 새로운 민속형식의 하나로서, 모든 이화인들이 놀이의 주체로 참여하여 동질성을 느끼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형제임을 느낄 수 있는 장이다. 또한 공동의 염원을 공동의 놀이판에서 공동의 신명으로 끌어버림으로써 어려운 삶을 헤쳐갈 용기와 단결력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염원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대동놀이는 대학축제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 대동놀이는 한국의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민족·민주·민중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즉, 대중문화 속에 허덕이는 비자율적, 개인적, 익명적, 비주체적인 풍토와 소외를 극복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이 사회가 염원하는 종속의 극복, 즉 해방의 장이어야 하며 민주·평등사회 건설의 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전통속에서의 민중들의 공동체이념과 문화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대동놀이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이화의 대동놀이는 100년의 역사 속에 힘찬 맥박으로 이 땅의 자유, 민주화, 여성해방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결집하는 광장으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동놀이는 기존의 소비적인 축제 양식을 과감히 청산하는 새로운 민속형식의 하나로서, 모든 이화인들이 놀이의 주체로 참여하여 동질성을 느끼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형제임을 느낄 수 있는 장이다.

투고

평생직장과 여성

— 사무직 여성의 경우

회사 선택 한 분이 결혼을 앞두고 퇴직을 했다. 우리 직장은 여직원이 결혼을 하고도 다닌 전례가 없어, 새로운 전례를 세우려는 용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불문율은 계속되고 있다.

나는 충분히 전례를 세울 분이라 믿었던 그 선택이 그와 같이 무기력하게 포기를 하기까지의 생각들이 궁금해서 한번 알아 보았다. 선택은 자신의 의향을 제의하려고 중역분들을 만나 보았지만 우회적 반응을 보이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부딪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결심했다고 했다.

중역은 상대방의 진의(眞意)를 알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생각만으로 설득하려 했다.

“네가 직장에 오래 있으면 다음에 올 후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마치 오늘날 실업자가 느는 이유가 여성들의 장기 근무 때문인 것으로 돌리고, 단편적이고도 도식적인 설명을 늘어놓았다. 실업율이 느는 원인을,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면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게 아닌, 개인적인 일면만을 가지고 전면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건강부회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선택의 결혼이 발표되자 담당부장은 선택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면서 사표를 종용했고, 가끔 대하는 상무 역시 평소부터 결혼을 종용해 왔으면서도 막상 지금에 와서는 퇴직만이 남은 것임을 은근히 강조하였다. 결혼을 앞두고 하루 빨리 사표를 제출할 것을 권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선택 자신은 이

러한 회사측의 한계를 더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간에 오래정이 들었던 직장과 좋게나 헤어지고자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동료들끼리의 모임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이야기되었다. 이야기 내용은 첫째, 이번 기회에 회사측에 여직원 전원의 서명으로 결혼퇴직폐지를 건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것 둘째, 건의서도 좋지만 우리끼리라도 뜻을 같이 한다면 선택과 함께 사장한테 직접 제의할 기회를 갖자는 것 셋째, 사장과 대면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니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대책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론을 튼튼히 세운 다음에 순리대로 나아가자는 견해였다. 의견이 갈라져 결국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선택이 당면한 일이 앞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결국 한 개인의 포기로서 이 사건을 치유하고야 만 것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입장을 취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돌파구를 모색하는 쪽으로 진보했지만 세번째의 입장, 즉 이론과 행동의 이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아직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음도 부인하기 어려웠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직장 내에서는 1박2일의 사원 연수가 있었다.

전행중 각 조별 분임 토의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연수원측에서 경영주측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정한 인상을 짚게 풍기는 것이었다. ‘시간 엄수 조

건’ ‘물자절약’ ‘독서의 생활화’ ‘주인의식의 함양’ 등.

그중 어느 한 조에는 ‘평생직장의 조건’이란 주제가 주어졌는데 주제 선정측의 의도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조에 있던 한 동료는 이 주제 밑에서 여성의 평생 직장 문제가 충분히 토의되어야 한다고 믿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

그 동료는 토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발표하면서 여성의 평생 직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강조했다. 그 동료는 현재 사회적으로 교육계나 일부 전문직 중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차별 임금은 물론, 결혼 퇴직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회 문제를 지적했다.

발표 후 직원들의 반응 속에는 직접적인 반대론도 없었던 반면, 그래도 문제 제기만큼은 필요했었다는 긍정적인 지지도 있었다. 분명 겉으로는 그랬다.

회사 경영주측의 반응 또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간접적으로 옮겨들은 바에 의하면 ‘좀 까분다’는 식으로 일축했다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의 발언으로만 보고 간과해버린 나머지 더 이상 전체의 문제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고용주측에 즉각 긍정적으로 수렴이 되고, 단시일 내에 해결되리라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구조와 회사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서로의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피고용인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고용주의 동향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여직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확실한 대안없이 한 개인만 다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정도였고 우리 회사 내의 사정을 알고는 그러한 제의가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는 없다고 미리 주저하였다. 스스로는 막연히나마 불리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향한 접근에 있어서는 자신이 느끼는 문제가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더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

직업 - 일당 4,000원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은 직장내에서의 불이익과 결혼 퇴직과 같은 성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우가 결혼전에 잠깐 머물다 가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여성 자신의 의식이 높은 당연한 결과라면.....?

이렇게 직장내의 여직원의 문제를 각자 달리 인식하는 자체가 큰 취약점이다. 우선 우리의 문제를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 안의 여직원들은 물론, 다른 부서의 여직원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마련되면 서로가 회사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 등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라면 공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공통의 문제화시키는 데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부서마다 일의 종류가 다른 데서 오는 비교우열적 심리, 단순직과 전문직간의 임금격차로 인한 위축감, 열등의식, 그리고 단순히 인종차별에 대한 책임의식부족과 단순한 보직만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장래성을 갖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 못하는 점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동료간의 소모임활동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연령으로 인한 동질감은 크게 도움이 되지만, 서로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모임을 통해 바라는 내용이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말 자신의 문제로 통감하는 정도가 달랐고, 문제를 해결키 위해 중론을 모으고 조직력을 키워 한걸음씩 접근하려는 데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지적인 이론과 체계는 더 많이 알고자 하면서도 사실상 그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행동면에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 한다. 조직력이나 협동은 머리속에서만 랩도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 구체

적이고도 실제적인 면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런 양상은 중산층 특히 화이트 칼라(white collar) 계층이 갖고 있는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머리속으로는 많이 느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는 있어도, 막상 직접 해결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면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부족한 이론을 더 세워야 한다'면서 더 많은 지식과 철저정연한 이론만을 강조한다. 해결에의 실천을 위한 이론적 바탕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이론을 위한 이론'을 추구하다보니 모순만이 크게 자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한 우리의 모순적 요인을 나누어 우리가 자라온 교육과정과 그를 둘러싼 주변환경에서 찾고 싶다. 지금 이 직장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 그야말로 평범한 의식을 지닌 부모 밑에서 어려움이라고는 조금 치도 모른 채,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거의 충족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자라왔다.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를 제대로 깨닫고 시련을 극복해 보지 않고 자란 상태에서 문제 상황을 피부로 인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고통 받는 이, 억압 받는 이들을 내용같이 알고 도우라는 말은 무리임이 틀림없다.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남과 나누려 하기보다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면서 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런 우리에게 노동자·농민이니, 저임금이니, 노동쟁의니 하는 인간의 기본권과 가장 밀접한 일들이 가슴에 와 닿을 리 없었다. 이렇게 자란 우리로서 의 한계는 앞으로의 현안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무수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깊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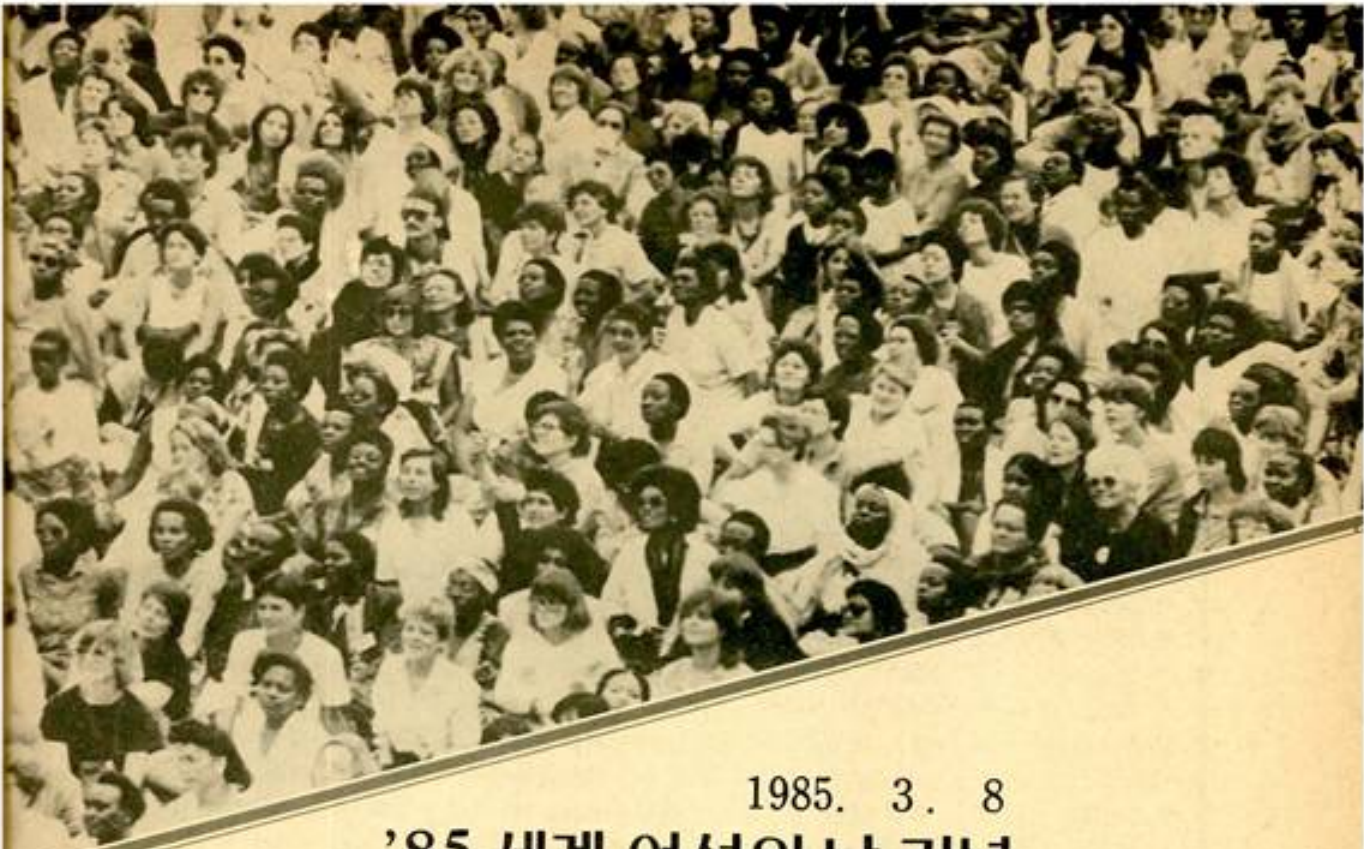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직장의 여성들이 단지 여자라는 성의 차이로 인해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마치 이 시대의 여자면 누구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온연중에 세뇌되어온 우리들의 의식은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가? 그 경직화된 우리의 의식이 급격적으로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요인에 연유한다 하여 사회가 먼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만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관습에 세뇌되어온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인지한 후에 오는 선택의 자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나의 삶의 방향에 뚜렷한 확신이 없고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배들 또한, 선배들의 뜻을 이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또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적 차별 대우를 계속 이어받으면서 누군가 시정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인가'가 저절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직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직장내에서 다시 한번 의식화 작업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나 자신이 역사의 연장선상에 서 있음을 자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새로이 깨달아야 한다.

나의 의식이 이제까지의 행동을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한 걸음으로 재촉하게 될 때, 나와 우리 후배들은 한 국가 내의 한 민족으로서 공존 공영의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누릴 것이며,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길을 같이 찾고 함께 모색할 것이다.



1985. 3. 8

'85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 대회사
- '85 여성선언
- 주제강연
- 사례보고
- 사례극



대 회 사

이우정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선언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908년 수천 명의 여공들이 작업조건 개선, 임금인상, 미성년들의 노동금지,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 등 민중 중의 민중인 여성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외쳤던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세계 여성의 날 유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운동하면 근우회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여성이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장관, 정부요직, 국회의원에 앉는 것이 여성운동의 척도인 것처럼 여성운동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민중인 근로자, 농민들이 중심이며 이런 모임이 우리나라의 참다운 여성운동이 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째로 오늘의 주제인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민족·민중과는 관계 없는 여성운동인 반면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운동을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특수한 여성운동이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운동하면 민족이나 나라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별로 효과적인 운동이 못됩니다. 민족·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야말로 참다운 여성운동이므로 우리의 주제가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새로운 여성운동의 계기를 선언하는 것이라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을 주체한 단체들을 보아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기성세대라 볼 수 있는 교회단체들, 젊음과 창의성을 가진 젊은 여성단체들, 여성노동자 단체, 여성농민단체, 민주화운동을 하는 단체들, 모두 하나로 뭉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될 사례를 보면 여대생 추행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사람을 짓밟는 폭력의 대표적인 예가 여대생 추행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은 이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빈민여성과 철거문제, 기생관광문제, 여성농민과 토지문제, 여성노동자와 저임금문제 등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의 최대부정은 경제권재라고 말해지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고발하는 의미에 있어서 사회의 정의, 경제정의는 우리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를 고발하는 것도 여성운동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사례 중 기생관광에 대한 고발이 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 등 경제구조의 부정사례로서 국내적인 정의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의를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정의까지도 포함한 여성운동이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전기라 볼 수 있습니다. 기생관광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의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가치전도가 된 문화, 여기에 도전해서 존엄한 인간성을 되찾는 근본적인 문제 역시 여성운동의 과제라 볼 때 오늘의 주제 역시 새로운 여성운동의 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운동을 전개해왔던 근우회 등 선배들의 바람직한 여성운동을 이어받겠다는 의미에서도 뜻이 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대회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85 여성운동선언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세계여성운동과의 연대를 확인하며, 동시에 한국여성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국여성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극아래 계속적인 남북한 군비경쟁의 위협에 살고 있다. 과다한 군사비의 부담과 핵무기 배치, 경제권 이데올로기 투쟁은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며 사회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0년 이래 외자에 의존한 수출주도적 경제정책은 약 500억달러의 외채를 부담하게 하고 막대한 국내 경제인여를 미국, 일본등으로 유출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다수 서민층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소수 자본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반민중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서민대중의 불만을 비민주적 법률과 공권력으로 억눌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여성들은 노총이 발표한 월 최저생활비 16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1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건강한 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무차별한 외국 농산물 도입으로 농촌경제가 파탄이 된 상황에서 여성농민들은 이농에 따른 농업노동력 결핍으로 농사일과 함께 가사노동까지 고스란히 떠맡는 현실과 아울러 적자영농으로 200만원 이상의 농가부채까지 짊어진 채 농약중독에 쓰러져 가고 있다.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농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도시판자촌의 빈민여성들은 노점상, 행상, 가내하청 등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대책없는 철거정책에 의해 생존이 위협당하는 극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계속 심화되는 대외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생관방을 정책산업화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성을 외화획득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가세하여 대중소비문화의 조장, 왜설 오락영화의 범람은 여성들을 소비노예화 시키고 성적 노리개하며 국민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외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단지개발계획은 외국 자본의 직접적 지배와 향락문화의 조장, 한국 여성의 성적 수탈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대표적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 아울러 성차별을 제도화시키고 있는 가족법의 온존 및 사회문화적 차별 의식은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여대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 등 정의와 진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현실을 볼 때,

한국의 여성운동은 단순한 여성지위 향상이나 여가활동의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대다수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을 외면한 채 특권층 여성의 점유물이나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바른 여성운동은 분단을 고정화시켜 이익을 꾀하는 외세를 물리치는 민족통일운동으로,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생존권 획득을 위해 투쟁하는 대중적 조직 기반을 갖춘 민중운동으로의 성격을 띠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 一.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민족분단의 고착화와 한반도의 핵전략 기지화를 반대하며,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전개하고, 민족의 회생을 강요하는 대외종속적 정치·경제·군사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 一.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여성들의 힘이 민주세력으로 결집되어 군부통치의 장기화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一. 여성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가족법이 개정되고, 취업·승진·정년의 불평등이 시정되며,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가부장적 차별의식이 종식되어야 한다.
 - 一.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8시간 노동제와 최저 16만원의 생계비가 보장되고,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 一. 여성농민의 모성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농산물가, 외국 농·축산물 도입이 중지되고, 농가부채가 탕감되어야 하며, 농협의 민주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 一. 빈민여성의 모성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 대책없는 철거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 一. 대일무역적자를 메꾸려고 여성을 희생시키는 관광기생정책이 철폐되고 새로운 매춘여성과 향락산업을 유발시키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정책은 중지되어야 한다.
-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만세!!

1985. 3. 8

또 하나의 문화
주부 아카데미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여성부
가톨릭여성농민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선교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이 효 재

민족·민주·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민족·민주·민중운동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한국교회여성단체와 타 여성단체가 모여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 대회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이 우정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시 두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주정치의 봄을 맞는 이 계절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를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책임의식이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표현된 결과 민주화의 희망과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여성단체들이 여성유권자 선언을 하였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유권자들도 진정한 민주투표를 한 결과 이 기쁨을 더욱 실감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여성운동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참정권 행사는 권력형 시녀의 역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도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의 주인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둘째로, 세계여성의 날이 지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운동이 국제여성운동과 연대성을 천명하는 데 있습니다. 민주적 여성운동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관주도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여성의 인간화와 계급, 모든 면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여 정의롭고 민주적인 인류향상을 기하는 데 있

어서 국제여성운동과 같이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운동목표가 세계 여성운동의 발전적 방향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한국 여성의 민족적, 국제적 의식은 우리의 선배인 근우회성명서에서도 천명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여성운동이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해 분투하는 것 이외에 세계여성을 위해 분투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노력은 결코 고립되고 외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배들의 위치를 이어받아 우리시대의 과제인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주인노릇을 해야 합니다. 민주적 통일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을 띠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땅의 주인인 여성들은 언제까지나 분단사회의 피해자로서 한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로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한숨만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정치적 불안에 질려 해외로 도피하려는 도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민족국가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의식이 있기에 우리 세대는 주인의식을 더욱 굳게 하며 민주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민족국가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의식이 있기에 우리 세대는 더욱 평화통일 운동을 전

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6·25 동란을 저지른 과거, 남성 정치인들의 과오를 밝히며 앞으로의 실책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도 한반도를 핵전쟁의 시험장으로서나, 통일을 구실삼아 독재정권을 유지시키려 민족을 탄압하는 남북한의 남성권력층들이 있다면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민족분열의 위험 앞에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어머니로서, 딸로서 민족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민주여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민족사적 원칙에서 여성운동은 앞으로 단체 조직에 있어서나 활동의 과정에 있어서나 새롭고 활기있는 방법을 창조하며 개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여성단체가 필요

먼저 여성단체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깨우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키워야 합니다. 단체활동의 민주성은 대원의 수가 많고 적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두사람의 시대적 역량이나 재정적 후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단체는 권력지향적인 지도자의 출세지향적인 발판이 될 수 없습니다. 명실공히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직될 수 있으며 적은 집단들의 연합조직으로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자 중심이 아닌 회원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앞으로 민주정치로 발전하며 민주제도가 뿌리내리게 하려면 여성단체와 같은 모든 민간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이 지배권력에 의존하며 아부하는 어용단체의 고질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율적 민주단체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력의 개입을 거부하며 자율적 민주단체로 책임있는 조직활동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치적 입장에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며 공명정대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문제의 과제는 심각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여성운동의 과제를 세가지로 좁혀서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둘째로, 가부장제도에서 벗어나는 운동, 셋째는, 가난한 여성들의 모자보건법, 가족의 생존권 보장, 복지정책에 관한 과제입니다. 남성들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부장적 제도에서 오랫동안 억눌리고 소외되어 온 여성들의 문제를 여성운동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민주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여성이기에 차별받는 제도적 문화적 질곡과 의식의 단계를 제거하지 않는 한 달성될 수 없습니다. 여성이기에, 더욱 가난한 집에 태어난 딸이기에, 교육을 못 받았기에 당하는 모든 성적 차별, 빈부의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여성운동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정의로로운 선진조국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선진사회를 이룩해야만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을 언제까지나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기본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생존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않고서는 산업사회의 선진화는 관철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이기에 주부이기에 얼마든지 차별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직업에 대한 권리를 기본인권으로 의식하는 입장에서 취업해야 할 것이고 이로서 각 직장에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껏 노동운동은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미혼여성들만의 문제로 방관되어 왔습니다. 이들이 70년대 민주 노동운동을 외롭게 이끌어 왔습니다. 취업과 권리의 탄압을 받으며 맨손과 알몸으로 단결하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지금도 외롭게 해오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위한 민주 노조운동은 여성운동으로 기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노조운동은 직업을 가진 모든 여성들의 권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육받은 여성이나 여성단체들은 노동운동을 여성 모두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의 기회와 직업구조에서부터 여성취업의 발판을 넓히며 직장에서 인간다운 처우를 누리며 책임 있는 직업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을 합법화시키는 운동이 모든 여성의 운동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직업의식을 가진 노조운동을 통해서만이, 생산적에 종사하는 근로여성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나간에 노동의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회인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의식과 노조운동의 진전이 있어야 앞으로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겸하는 데 따르는 자녀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적 문제로 투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여성노동운동운동과 연대할 필요성을 더욱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기반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권력구조 등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표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가부장제도는 타파되어야 한다

민주헌법이 남녀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법만이 이 헌법에 위반되는 가부장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위주의 권력층, 국회의원, 기업가 등이 우리 여성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기본 사회제도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성운동은 가부장제도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분단시대의 여성운동에 있어서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습니다. 70년대 이후 범여성운동 과제로서 명맥을 유지해왔으나 아직도 목적을 달성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부장제도에 기반한 가족법이 모든 여성들의 인권과 모든 계층의 가정의 민주화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적 문제 차원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제도의 피

해자로서 희생당한 여성들의 한과 연결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각계 각층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단일한 방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압력단체로서의 독립적이며 단결된 힘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도를 뒷받침해온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 윤리는 남성의 성적 쾌락과 혈통 계승을 위해 가정의 안정만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 바치며 그 집안의 존속과 안정을 위해 일부종사해 왔습니다. 자기 아내와 딸의 순결은 존중히 여기면서 가난하고 약한 여자들의 몸은 자신들의 쾌락과 남성다움의 과신을 위해 노예 취급을 하여 왔습니다. 이중적 성윤리는 책임있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윤리로서 대치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부부생활을 좀먹고 있습니다. 더욱이 권력과 금력으로 여자들의 섹스 서비스를 강요하는 예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여자의 매춘을 외화회득의 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조시대의 수청제도, 관기제도가 현대판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민주화는 가족법 개정으로

그동안 여대생들에게 가한 경찰들의 성적 추행과 폭행은 이러한 남성들의 전통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가족법 개정운동은 법 개정뿐만 아니라 성 윤리를 파헤쳐 비판하고 고발하는 일과 진정한 가정생활을 위한 일부일처제 성윤리를 계몽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까지 파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며 남성의 쾌락만을 위해 노예화하는 어떠한 성윤리도 배격하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70년대 교회여성연합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것은 가부장제의 성윤리를 배격하는 운동으로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 섹스산업의 확대를 심화를 막아야 하며 공창제도가 불법화된 지가 오래인데도 요즘의 섹스산업체는 공창제도와 다를 바 없이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가정을 민주화하는 운동으로 분화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며 자율적 인격으로 양육하기 위한 가족의 민주화가 가족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민주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모자보건법과 복지정책 수립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존재와 모성

역할을 한 가정만을 위한, 남성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밥벌어 먹고 돈벌어 주는데 여자들이 무슨 잔소리나 하는 태도로 여자들을 예측해 왔습니다. 모성역할은 한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인격적으로 기르며 건강하게 기르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홀로만의 책임이 아니며 아버지와 함께 공동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특히 도시나 농촌의 가난한 가정의 모자 복지문제, 남편과 사별하여 이혼하여 혼자 사는 독신녀의 가정생활을 위한 생존권 보장이나 복지 정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모성역할이나 가사노동이 국가 사회를 위한 책임인 것을 자각할 때 가난한 여성들의 여성문제 자녀문제는 우리 여성 운동의 과제이며 복지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성이 홀로 삼중 사중 짐을 짊어지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자 가정을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사회경제적 권리를 누리며 경제성장의 혜택을 당연히 요구하는 주인의식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민주운동의 주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러가지 과제 이외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사회문제가 많은 만큼 여성 운동의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현실성있게 연대적으로 시작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는 지도자 중심, 선각자 중심의 운동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는 여성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 이후 대학 안팎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젊은 여성세대 그리고 여성학이나 여성운동을 통해 의식화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뼈아프게 경험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연구하려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들의 관심과 노력은 민주 여성 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이끌어가는 주동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는 여성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성운동의 과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식화된 세대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여성운동의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목동 주민의 호소

저는 목동주민의 한사람입니다. 1964년 10월, 12월 해방촌 남산 영등포지역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곳에 살던 저희들은 현재 살고 있는 목동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차에 끌려서 아무 혜택없이 내 군대에 말뚝을 박고 사에서 저희들에게 준 것은 말뚝과 새끼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는 사람 먹고 살기란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어쩔 수 없어서 흙벽돌을 찍어 집을 짓고 낮에는 품팔이로 어린아이들 등에 업고 생계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게 웬 황재냐 하는 식으로 1983년 4월 10일 토지수령을 내려 신시가지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집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반가워서 이제까지 고생한 보람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저희들을 보낼 때, 당신들의 보금자리니 살고있을 때까지 살라 하고 내주신 자리였는데 때마침 날벼락, 이게 웬일입니까? 신시가지 공영개발이란 허울좋은 말로 복부인들만이 황재하고 22년 동안 고생한 저희들한테는 단돈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쥐어주고서 호화판 아파트를 지어 평당 105만원을 주고 들어가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중심지 그것도 한복판에서 150만 원짜리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집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2년 쌓아놓은 공동 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생각을 하

니 우리 어머니, 형제 자매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물도 없었을 때 목동에서 살려면 배를 타고 양남동까지 가야 수도물을 길어다가 먹을 만큼 살기 어려운 생활이었어도 안락한 보금자리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랑곳없이 정부가 빼앗아가는 처사가 과연 민주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건설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 것입니다. 울분이 넘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선량하게 살았습니까. 정부에서 내라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수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내라는 모든 공과금은 모두 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반포대교를 누구의 돈으로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의 세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도블록도 다치지 못하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만 시멘트가 아닌 좋은 고속도로를 밟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도 간악합니까?

이 자리를 빌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신문기자들이 많이 와서 인터뷰해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때문인지 신문 보도에는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이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보도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런 것도 아랑곳없이 어느선에서 커트가 되는지, 우리가 22년 동안 쌓아온 재산을 150만원에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50만원 받아가지고 평당 105만원을 주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 장의 휴지조각밖에 안되는 허울좋은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걸 쥐놓고 보상금이라고 너스레 떠는 사탕발림입니다. 150만원을 가지고 평당 105만원에 들어가려면 20평 기준에 2,100만원이 됩니다. 22년 동안의 공동 땅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22년 후에야 또 가옥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 억울한 사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 22년전 토대를 닦아놓은 이 땅, 저버렸던 이 땅을 지금 와서는 기쁜 땅의 대부분을 당신들이 쓴다고 하는 이런 처사는 대한민국 법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 법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13일부터 계속 철야작업을 하면서 계속 본부장을 지키고 있고, 길거리에 있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라는 속담이 있듯이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저희들을 밟아놓고 저희들 재산을 찢었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곤봉으로 때려 22바늘이나 꿰매고 입원하는가 하면, 군화발로 때려 입원도 하고 감옥에 가두는가 하면 서울 시내 곳곳에 안가본 경찰서가 없습니까. 선량하게 살다보니 경찰서에 기본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목동 주민들은 그러나 내 재산 지키자는 것뿐인데 왜 짓밟고 때리는 것입니까?

호소합니다. 저희들 애절한 사연을 들어 주시고 여기 온 형제 자매들 무엇 때문에 목동주민들이 울부짖는가 호소문도 들으시고 낱알이 전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뜻은 꼭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동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잠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 목동주민의 주거보장 대책없는 신시가지 개발을 전면수정하라. 서울시는 목동주민을 빌어 얻은 이익금을 전면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라.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곤봉과 구두발로 짓밟는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빼앗고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주거보장 없는 개발을 진행한다면 목동 주민들은 목숨을 바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부자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없는 시민의 재산, 그것뿐인 저희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시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 믿고 형제 자매의 뜨거운 손길로 세계 만방 아니면 대한민국 산간벽지, 곳곳까지 저희 호소문이 들어가기를 빌면서 이 자리를 물려가겠습니다.

사례2

목동의 세입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저희들의 실정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동에 사는 세입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입자로서 정치권에 나와 투쟁하기보다는 가옥주에게 보상금이 떨어질 때 저희 세입자에게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나 기대를 걸고 묵묵히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대책없이 집은 마구 헐리고 가옥주들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 자기집을 자기가 하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세입자들은 천막을 칠 수밖에 없고, 그 천막도 치지 못하게 마구 때려 부수는 속에서 어거지로 천막을 치고 엄동설한을 보내오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8,9월부터 구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진정서를 냈어요. 구청장님 우리들은 살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수많은 진정서를 넣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것은 보잘 것 없다는 태도로 아무런 답변이 없고 면담하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을 때 주민이 모두 몰려가서 구청앞에서 농성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말 좀 해 주시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강서구 어버이로서 구청장님이 우리의 갈 길을 모른다면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전경대들을 풀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아가엄마가 전경대 발밑에서 짓밟히는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다시 몰려가 농성하다가 저희들 전부가 부상자가 되었읍니다. 대학생들처럼 정치가 잘못했다는 데모가 아니었읍니다. 오직 우리는 10 만원에서 20만원의 보증금 그것도 보증금이 없

어서 다달이 세내고 사는 3만원의 세도 내지 못하여 쫓겨나는 형편에 있었는데 갑자기 철거로, 신시가지 개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길거리로 쫓아낸다면 2,000세대가 넘는 주민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밖에 갈 수가 없었읍니다. 수없이 갔었어요. 그곳에는 구청직원들, 장패들등등이 다섯섯 여섯걸음 싸가지고 정문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형편에 있을 때 저희들은 싸우다 짓밟히고 짓밟힌 사람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나머지는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달라고 강서구 내에서 아무리 소리질러본들 누가 알아주었읍니까?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를 개발한다고 신문에 떠돌아다닐 때는 서민 아파트를 지어 그곳에 사는 주민을 위한 신시가지 개발이라고 떠돌아다닐 때는, 목동 가옥주나 세입자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달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는 신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인터뷰는 많이 해 갔읍니다.

**“왜 10만원에 사서 140만
원에 파는 땅장사는 하면서
우리에게는 줄 수 없
단 말입니까?”**

농성을 많이 하니깐 어느날 구청장이 면담을 하러 오시오 했읍니다. 주민 300~400명이 몰려가면 대표 10명만 면담할 것이니 나머지는 돌아가시오 합니다. 대표자만 들어가니까 세입자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 지금 추진중이니까 기다리시오 밤이 솥에서 끓는데 된밤이 될지, 설은 밤이 될지 모르니 잠자코 기다리시오. 얘기가 뱃속에 있는데 딸이 될지 아들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유산이 될지 알지 못하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읍니다. 유산되면 다시 만들어야지요. 얘기가 유산됐다고 안 만들면 그 가정의 자식은 손을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말도 했었읍니다. 쫓겨 나가면 살 수가 없고 그 뒤에 방값은 수없이 올라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여기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 아래 300명 400명이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다보면, 전경대들 몇 천명 풀어서 저희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막고 매리고 해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애를 업고서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발가락이 부러지고 허리가 다쳐 꼼짝도 못하고 하혈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있었읍니다. 구청장님에게 많은 진정서를 넣었지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휴지 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그래도 안되겠어서 400~500명이 시청으로 나갔읍니다. 시청에 나가 1시간 반을 농성했읍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부시장님이 면담을 합시다 하나 우리는 그전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구청장을 통하여서 시장님 면담을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는 세워준다는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으나 끝끝내 거절을 당했읍니다. 그래서 민정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셔도 싸웠읍니다.

시청에 나와 떠든 그 결과로 부시장 면담을 하였으나 저희들에게는 임대아파트도 지어 줄 수 없고 집단이주도 해 줄 수 없읍니다. “왜 10만원에 사서 140만원에 파는 땅 장사는 잘 하면서 우리 목동 철거민에게는 그 목인 땅 하나도 줄 수 없습니까?” 하고 항의했으나 개인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풀어서 줄 수가 없고 불우 이웃 차원에서 여러분을 길거리에 내쫓지는 않을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시오 그런 답변밖에 듣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의했읍니다. 우리는 불우이웃 차원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차라리 모금함을 들고 모금해서 살겠읍니다. 불우이웃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시겠읍니까. 몇 백만원 못받고 돈 십만원이나 줄텐데 우리는 그것 갖고 살 수 없읍니다. 항의나 부시장님 면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책이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가

서 농성할 때 어째서 전경대를 푸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데모할 때 그 학생들을 막는 데만 전경대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어째서 살 집이 없어서 살 집을 달라는 목동주민들에게 전경대 수 백명이 필요한지, 가난하고 애기 업고 어려운 엄마들에게 필요한지

전경대장이 저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최루탄 가스를 터뜨린다고 엄포를 놓을 때 불되고 항의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아무 대책도 안 세워 주고 전경대가 수백명의 와서 막느냐. 시 당국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어찌해서 경찰당국에서 주민들 뺨동무니만 줄줄 쫓아다니는 거냐.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항의도 했지만 그런 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서민 임대아파트를 지어 저희들도 200만원이나 100만원 보증금을 넣고 100만원에 4만원을 주고 사는 것처럼 월세를 물고 살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장의 말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세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목인 땅을 풀어서 집단 이주할 테니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다 천막을 치고 살든지, 집을 짓고 살든지 살 길을 찾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보고 양심이 없답니다. "집세나 빼가지고 가면 되지 남 돈벌 때 돈도 못벌고 구청장님 앞에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총무가 "개같은 년, 청년들, 귀찮게 왜 매일 와서 떠들어요"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구청장 물러가라, 내집 철거 못한다"를 써 붙이고 60여차례나 나가 떠들었습니다.

60여차례 나가서 떠들 때 "구청장 물러가라"는 소리는 한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청장이 요번에 갈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하여 저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결단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

국도로 빼앗긴 내 땅

저는 충남 부여군 남면 내곡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자로서 너무나 공부가 짧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답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경지정리가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 구부러진 땅이 반듯반듯 해진다고 말해서 좋게만만 들어 주는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은 경지정리 하기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경지정리만 되면 좋아진다 좋아진다 했는데 좋아진 반면 모두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품팔이 먹는 일도 빼앗겨서 우리는 품도 팔아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골 도로는 울퉁불퉁해서 소화가 안되는 사람은 그 차만 타면 만병통치처럼 소화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었어요. 그런데 경지 정리하는 땅에서 도로포장한다 하면서 2,326평이라는 땅을 국도를 내는데 회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요. 동네 한지(담당자)가 2명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를 마음대로 2,326평을 회수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듣고 보니 너무나 속상해요. 우리가 나쁜 땅에 살면서, 울퉁불퉁한 땅에 살면서 빗없이 살아야 되는데 빗지고 좋은 땅만 다닌다면 무엇하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리

는 2,326평을 빼앗길 수 없다. 우리 여자들이라도 한번 알아봐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여자 6명이 노력했어요.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기 가서 알아봐도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개량 조합에 무조건 찾아가서 조합장을 만났어요.

우리는 빗없이 사는 게 좋지 매끈한 땅에 살면서 빗만 늘일 수는 없다고 하자 당신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면 농민들이 협조해야 하는데, 우리 일에 당신들이 협조하지 못한다면 이 동네가 발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까 너무 잘 살면서 힘을 키워야 나라도 잘사는 건데 빗 속에서 살면서 나라만 잘되면 뭐하냐 하면서 반항을 했어요. 농지정리에 편여한 한사람이 자기들이 농지정리해 줄때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수고한다는 소리 한번 해봤다고 해서 당신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준다면 고맙지만 당신들은 당신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 손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하니까 사실 그런것은 생각지 못했다고 해요. 당신들은 돈만내고 사먹었지 농사짓는 데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있는지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2,326평만 돌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서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 181명의 서명을 받고 이를 위에 올렸어요. 청와대로 올리고 도지사로 올리고 내무부장관한테 올려서 그렇게 해주라는 답변이 왔는데도 우리에게는 되돌려지지 않았어요. 농조에 찾아가니까 조합장이 그만한 대가로 다른 것을 요구해라 그래서 다른 것은 싫다. 부정하게 다른 것은 싫고 정정당당하게 내 땅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보따리를 들고 군수를 찾아 갔어

요. 군수실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무조건 군에 찾아가서 들어시키니 이상한 기분이요. “왜 왔냐” “나 군수 만나러 왔다” “왜 군수를 만나러 왔다” “아했거나 군수나 만나게 해주세요” 뒤떨어진 촌사람이 만나러 왔다고 하니깐 비웃었어요. “비웃을 것 없다. 5분만 이야기 하면 되니까 군수만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군수님은 우리를 만나줄 생각은 안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군수님 되시냐고 하니깐 그렇다고 해요. 아니, 군수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뭐가 잘못이어서 하찮다고 만나주지 않냐. 내가 군수라면 약한 여자들이 왔으니깐 자살하게 이야기해서 설득을 해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를 무시하고 안만 나누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까 하면서 알까지 가로 막으면서 한번만 만나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러냐고 하면서 나만 딱지 군수님을 막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을 만나는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했지만 거기서, 군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돌아오니 협박이 들어와요. 우리 오빠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여성 농민 운동을 하고 다니면 네 오빠가 전기고문을 당한다. 네 오빠가 직장을 못 다닌다. 죽는다. 감옥에 가든다 하면서 협박이 들어와요. 남편에게도 왜 마누라가 그러고 다니는데 못 막는건 남편이 바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나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당당 옳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오빠가 직장을 잃어지며 오빠가 전기 고문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도 나는 방황하지 않고 전진했어요.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내가 잘못이라면 벌써 잡아 가두었을 것이다. 나 같이 국민학교 문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 군수앞을 가로 막았을 때 왜 나를 안 잡아갔겠어요. 남편한테 설득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조금도 잘못이 아니니까 나만 따르시오. 내가 가정을 위하고 동네를 위해서 2,326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협조는 못할망정 왜 못하게 하냐고 하니깐 남편도 생각하니깐 사실 내 말이 맞거든요. 그러더니 협조를 하고 내가 군에 가도 아무말 않고 별 상관을 앓더라구요. 그런데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일흔 다섯살, 아버지는 일흔 여섯살인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희 오빠 직장다니는게 그렇게 배아파서 그러고 다니냐고 딱 사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빠 직장만 떨어져 봐라 떨어지면 내가 가만히 안 있고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자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경지 정리건은 그때까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번 또 찾아가고 했으나 군수는 우리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만나주지를 않고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내가 배움이 있었

상태에서 2,326평 별 때 0.5%씩 다 뺐어요. 길가에 사는 사람만 뺐 것이 아니라 길가에 살지 않는 사람까지도 0.5%씩 다 뺐거든요. 1마지기가 200평이면 반평 풀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기에 그것을 언제쯤 줄 거냐 하니깐 술을 마루기만 하지 말을 안해요. 처음 경지정리 할 때는 7.7%라고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깐 12%가 됐어요.

그런데 12%가 될 때까지 0.5%는 죽어도 안넣었다는 것이예요. 7.7%가 12%까지 올라갔는데 0.5%가 왜 안들어 갔느냐고 말하니깐 가원지 때는 0.5%를 뺐는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니까 0.5%를 정원지때는 넣어서 그랬는지 0.5%를 모두 뺐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명하고 군수를 찾아간 것은 무엇이나 그러니까 말하기를 2,326평이라는 것은 여섯 마을들이 산 것인데

“이번에 군수님을 못 만나면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찾아 갔는데 그날은 군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2,326평을 언제 돌려 주실 겁니까 물어 보니까...”

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아니다 무식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서 또 찾아갔어요. 이번에 군수님을 못 만나면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또 군수님을 찾아 갔는데 그날은 군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2,326평을 언제 돌려 주실 겁니까 물어 보니깐 경지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땅은 평당 8,400원씩 나오는데 경지정리한 상태이니깐 감정결과가 새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감정결과를 보아서 나가야지 지금은 안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깐 12월말이나 1월말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월말까지 기다렸어요. 1월말까지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군수님을 또 찾아갔어요. 12월말이나 1월말이면 된다는 것이 왜 아직까지도 안됩니까 하니깐 경지정리한

군에서 이것을 사는 것이니까 거기서 다 찾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감정결과가 나와서 돈이 나오면 다 알게 된다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원지때는 뺐는데 정원지가 되었다면 0.5%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지 않고 많으냐 하니깐 이리저리 서류를 잘 해놔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현상에서 우리는 땅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무조건 투쟁하는 중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각오와 결심이 심어져서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내무부장관, 부지사, 청와대로 가서 전두환 대통령이라도 불렀고 물어져서 분명히 찾으려고 각오하니깐 여러분들도 부어군 남편 농지 개량조합 경지 정리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례 4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압축되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다가 정부와 구청, 노동부의 탄압속에서 무참하게 깨어져 버리고 회사를 주축으로 한 어용노조가 들어선 3개의 회사, 주식회사 유니전·주식회사 전도·경동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라면 저임

금주식회사 유니전의 예를 대표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니전은 한국수출공단 3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카세트, 라디오 제조업체로서 거의 대부분의 생산량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공단 내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초임이 높다고 하는 이 회사의 초임이 3,250원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초임이 높다고 하는 이유는 구로공단의 경우 아직도 봉제회사에서 시다들의 초임이 1,800원인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회사 같은 경우도 초임이 낮은 회사는 2,300~2,400원 정도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25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라고 자랑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로 계산했을 때는 1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이죠,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월차나 연차, 생리휴가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속에서 관리자들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어내며 공포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용무자라는 핑계를 달아야 했고 선진조국 노동자라는 아름다운 이름하에 바쁠 때는 일주일에 12시간씩이나 잔업을 함으로써 주당 일하는 시간이 60 시간을 상회하는 그야말로 열악한 노동현장이었고 우리 친구들은 별보고 출근하고 달보고 퇴근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것 이외에도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대우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유니전에만 한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례를 소개하겠는데요, 한주 전자에서 작년 연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 핏덩이 아기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 사고를 저지른 여공이 누군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장장, 의사 입회하러

**납땜 연기가 가득차서 항상 현장은 안개가 서려
있는듯이 뿌옇고 납땜 연기와 더불어 온갖 연기를
삼키면서 자신의 몸이 썩어들어 가는 것을 어
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니전의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금과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노동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누구나 당하고 있는 억압적인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힘든 조건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있는 것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근간으로 해서 비인간적인 대우까지 우리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동현장의 현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공장에 한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납땜 연기가 가득차서 항상 현장은 안개가 서려 있는 듯이 뿌옇고, 납땜 연기와 더불어 온갖 연기를 삼키면서 자신의 몸이 썩어들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니전의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10만원 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는 한달에 방값내고, 차비내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나머지 인간적인 욕구를 억누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령 친구를 만난다든가, 친척집을 찾아 가고 싶다든가, 책을 사보고 싶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전에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X년아" 이런 상소리가 난무 하는

400명 여자 종업원 모두의 하체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한주 전자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유니전의 경우 불량이 많다고 해서 퇴근후의 모두 집합시켜 놓고 열중섯, 차명, 이런 구호를 몇번이나 되풀이 한다든가, 그리고 경동산업 경우 3,000명 종업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10개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여자노동자들의 경우는 그냥 바닥에 바지를 벗고 방뇨할 수밖에 없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것이 바로 가까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결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인간으로서의 더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자학하고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희망이자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유니전에서는 1984년도 9월 1일 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를 무릅쓰고 노동조합 결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식을 하게 되자 이것을 안 회사에서는 무지무지한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박과 심지어는 회사관리자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당신 딸이 지금 빨갱이의 편에 넘어가고 있다, 당신 딸을 회사에 출근시키지 않으면 내가 당장 200만원을 주겠다는 식의 회유에서부터, 조합간부들을 새벽 2시까지 차에 끌고 다니면서 조합원 그만두라고 협박을 했고 급기야는 부서이동을 시키더니 9월 17일 6명의 조합간부를 모두 해고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조합 설립을 보면 분명히 노동조합법상에 신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일단 결성식을 하게 되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허락을 내린다 안 내린다하는 허가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주식회사 유니전을 한국 유니전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은 일례를 든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김순자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순자를 잘못해서 이순자라고 했을 경우 이를 김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결혼한 사실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유니전을 한국 유니전이라 썼다고 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시킨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은 9월 5일 강제사표를 쓰긴 했지만 결성식 당시에는 유니전의 공원이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구로구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시켰고 한편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조합간부 6명을 해고시킨 것에 대해서 6명에 대한 해고는 합법한 해고이므로 더 이상 할가할부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노동자 탄압이라는 것이 단순히 회사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구로구청, 노동부가 합쳐서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법의 기초인 단결권이 이렇게 주식회사 유니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법찾고 질타 받고 높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대로 절차를 어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법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나서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요구를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계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용노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결성하면 행정관청이나 노동부가 힘

을 합쳐서 설립신고서를 반려시키고 신규노조 결성을 방해하고 깨면서 노조간부들을 해고시키고, 회사간부를 주축으로한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면서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례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5년도 1월에 들어서만 해도 인천에 있는 경동산업, 주식회사 진도에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주식회사 유니전에서 노조가 깨지고 어용노조가 들어서까지의 과정과 너무나 비슷하고 한치의 틀림이 없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노조탄압사례는 회사 단독적인 탄압방식이 아니라 노동부 내지 관계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유니전, 경동산업, 진도의 노동자는 함께 모여서 노동자의 주체적 단결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중지하라는 활동을 계속 벌일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하는 저희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사례 5

제주도의 매춘관광

우리나라 노동조합 설립을 보면 분명히 노동조합법상에 신고 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관청인 구로구청은 9월 1일 결성된 주식회사 유니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서류를 반려시켰는데 반려시킨 이유가 너무나도 기가막힌 것이었습니다. 반려시킨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유니전이라는 상호를 한국 유니전이라고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원중의 부위원장 하나가 9월 5일 회사의 강요에 의해 강제사표를 쓰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해서 반려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창 고도성장을 하고 있을 당시 1973년 10월 26일자 주간 아사히 신문에 실린 문교부 장관 민모씨의 기생관광에 대한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여성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기생, 호스텔스가 대거 일본에 진출해서 몸을 바치며 밤낮으로 분투하는 애국 충정은 훌륭한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땅의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몸

을 팔고 있는 관광가생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광가생 숫자가 공식적으로는 20만이요 공식·비공식을 합치면 1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대의 '군수품'의 일부이며 일본군인들의 정자 배출 화장실용으로 끌려가서 하루에 50~100명을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상대해야 했던 우리 선친들의 이야기에 분통이 터지면서 정말 가슴아프게 들어야 했던 우리들에게, 다시는 이 땅 위에 이런 일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가생과 매춘관광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부 아카데미협의회 공언을 통해서나 교회여성연합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80%가 일본인이요 그들의 관광목적은 기생파티가 대부분이며 관광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은 요정 1위이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 중에 80%가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기생파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 요정은 3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일본 관광객들 중에 대부분이 기생파티를 목적으로 관광을 오며, 이들의 대상물이 되어야 하는 이 땅의 딸들은 변태성욕자에게 시달리고 온갖 성적인 학대에 시달리며 돈을 벌어야만 하는 관광가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춘이라는 말조차도 쉬쉬하며 싸야 했던 이 땅에서, 윤락행위를 방지하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매춘관광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한 매춘관광이라는 말도 수치스러운데 한 나라를 대변해야 하며 역사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이 땅의 딸들에게 기생종을 발부하며 돈 안들이는 외화획득이라고 이 매춘관광을 장려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더 놀랄 일은 제주도 신재

주에서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계획이후 대낮에도 관광객들이 다방에 앉아 여성들의 젖가슴을 주무르며 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제주도가 자유지역이 되면서 매춘관광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정식코스도 순전히 와서 자고만 가는 그런 코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여성들에 의하면 어머니들이 이러한 타락되어진 성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며 이 나라의도덕윤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자유지역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한 자유지역이며 무엇을 위한 개방인가? 이 나라의 딸들이 팔아 먹히는 자유며 개방인가? 이 땅의 딸들의 몸이 온통 외국인과 매관 자본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자유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땅으로 관광객을 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광가생 숫자가 공식적으로 20만이요. 공식·비공식을 합치면 100만”

러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딸들을 외국에 기생으로 파는 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만 있는 사실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사람이 성상품으로 팔려가서 언어도 안통하는 그곳에서 회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춘관광으로 인한 기생이나 매춘부들은 저 멀리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웃의 문제며 우리 전체 여성의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여성들이 관광가생이 되는 것은 누구는 기생이 되고 누구는 영원히 기생이 안되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관광가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 몇 가지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는 봉건제 사회에서의 성차별이, 자본제 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무엇이든지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면 팔았고 여성은 열등하며 남성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남성우위의 성문화속에서 여성의 성은 돈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 상품에서 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또한 성을 핵으로 하는 각종 향락산업의 비대화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여 매춘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을 매춘의 길로 쉽게 빠져 들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적 유인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기존의 여성은 열등하다는 성차별 의식을 자본에 이용하여 비싼 임금을 주어야 하는 남성노동자 대신에 열등한 여성이라는 미명하에 싼 임금을 주고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필요없을 때는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해서 여성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저임금으로 인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여 필요한 계기와 적당한 대가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노동력이 아닌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여성이 처한 불리한 위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뿌리깊은 원인으로 국제적 불평등 구조에서 오는 경제적 침략주의와 다시 말하면 제1선진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수탈과 성적 수탈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시아 국가 내부의 매관 세력과 뿌리깊은 성차별 구조입니다.

오늘날 성을 둘러싼 온갖 형태의 억압과 수탈 구조는 그것이 비록 그 당사자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평화적 형태를 띠더라도 사실상 불평등 구조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동으로 처야 할 책임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더우기 여성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묶어두면서 수많은 여성을 매춘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성적 욕망의 배출구를 찾는 국내의 남성 중심의 성문화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후진국의 여성을 매춘부화시키는 내부적 요인이 됨을 생각할 때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극 / 도깨비 마당

들꽃은 쓰러지지 않는다

도깨비: 흥, 흥! (냄새 맡는 흥내를 낸다. 관객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다)
 가)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지? 흥, 흥, 이게 무슨 냄새냐? (머리를 가우뚱거리다가 무릎을 치며) 오라, 알겠다. 농무성이 여편네를 일하느라고 몸뚱아리가 쪽쪽 썩어지는 냄새로구나. 설겜이통에서 나는 김치국 냄새. 빨래통에서 나는 원갈 모랑내. 논갈아 밭갈아 땀냄새. 돼지 키우느라 돼지통 냄새. 아, 남편 밭대주라 자식새끼 젖 맥이라, 시에미 통받으라, 시누년 눈치보라, 어디 그뿐인가. 농협에서 외상 비료값 독촉장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며 인간적, 본질적, 근본적, 근원적 고통에 찢어 나는 냄새. 게다가 수입 육우까지 썩어 자빠라지니 왜 메스껍다. 메스꺼워. 그 화려한 근대화 인지 산업화인지 되기 전에는 가방 끈 짧은 촌년들 상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지금 각가 정책을 시행하고부터는 요망이 내 땅이더라. 하하하, 뼈골 뼈지게 땅파서 번 돈은 비료값으로 팔려, 돼지 새끼통 치우며 키워 번 돈은 사료값으로 팔려, 모조리 굶어다가 팔려, 꾸물려, 다 삼키며 예행, 농협빚, 농협빚만 한무더기 생겨다가 안겨주었지.
 ('산타루치야' 곡에 가사바꾸어 노래한다)

창고에 쌓인 쌀, 누구의 쌀이나, 니 배는 고프냐 내 배는 부르다, 쌀 털러 가자 쌀 털러 가자.

음음, 그런데 이 무식한 촌년들, 땅팔아 집팔아 집도 절도 없이 마구마구 도시로 가더니만 내 그런 년들 죄 잡아다가 몽땅 도시 빈민 만들고, 대책 없이 내쫓아 칠거민 만들고, 땡땡거리며 대드는 년들! 다 잡아다가 구속시켰지.

그랬더니 내 얼굴이 이렇게 번드르르... (모종의 행동) 대가리 좀 굴린다고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합네 하다가 몽땅 들먹거리서 땅바닥이 뽕수라고 땅바닥만 탕탕 두들기며 우는 년들, 그 모든 것이 다 요 머리님 대갈님 덕분 아니겠어? 그뿐이냐, 내가 또 공순이년들 부려먹으려고 공업화를 무전장 무조건 무작정 무질서 무차별로 강행시켰더니 못난년들 모두 다 내 곁에 빠져들더라 이거야. 아 공순이들이야말로 진정 내 구미에 당기는, 입맛에 맞는, 배짱 풀리는, 통집 실리는, 근대화의 기수, 조국과 민족의 위대한 산업역군 아니겠어? 고년들 피 빨아서 덩핑 수출 수출 증대, 고년들 뼈 갈아서 외자도입 합작투자, 으하하하, 하지만 공순이 부려서 내 배만 채웠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누굴 위해 썼느냐? 머리 노랑고 코 크신 어르신네, 이 몸을 어여뵈 여겨 주시니 이 몸이 또 한 신나고 신나고 계속 신난다. (한바탕 논다)

야, 너 인물이 잘났어, 가문이 좋아? 하벌이 높아, 집안이 빠근해? 그렇다고 남편감 잘 물 견수라도 있어 응? 너 왜 사니? 뭐? 여성해방? 뻑! 해방놓는 소리하고 있네. 너같이 좀 배웠다 하는 년들 물갑 떠는 거 얼마나 눈물 신 줄 알아? 우아한 척, 고상한 척, 세시한 척, 야, 이년아 니 남편하구 이불속에서나 남너 평등해라, 너같은 년이 나한테 시집올까봐 겁난다, 이 쌍년아! 지 애비 애미 등골 뼈지게 일해서 비싼 등록금 내 주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년들 모조리 굶아다가 전무경찰 시켜서 빨가벗겨 폭욕 시키고, 평생동안 얼굴도 못보고 다니게

만들어야 한다구.

야! 너 이리 나와봐. (한 명을 불러낸다) 니가 민주화가 좋다고 했냐?

아냐, 가랭이 벌리고 앉아 (불려 나온 사람, 시키는 대로 한다) 뒤로 누워, 가랭이 들고 너 술치르고 담배 피면서 부르는 노래 불러봐. 다리로 박자 맞추면서 그거, '삼천면' 불러봐. 빨랑! (다리를 걷어찬다. 노래하지 않자) 이렇게 배운 년들일수록 명석 짊어주면 못한다구. 이게 바로 지식인의 속성입니다. 야, 이년봐라, 오늘같은 날은 날 좀 끌라서 나와야 할 거 아냐. 저년 생리중이야, 어휴 냄새, 저리 꺼져라. 이년아, 니가 안 부르면 내가 부른다.

(‘농민가’를 부르고 퇴장. 사례극으로 이어짐)

(회사측 2명, 노동자 2명 등장. 회사측은 계속 역할바꾸기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장 : 생산과장! 목표량 달성!

과장 : 김주임!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 점심시간 30분 단축, 퇴근시간 30분 연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량 달성! (사장이 김주임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듣는다)

주임 : 반성 위장병은 게브랄티로, 관절염은 '맞다 게보린' 내지는 아스피린으로, 무좀 따위는 간편하게 아까징거로 때우고, 설사 오줌보가 부풀어서 풍선이 된다고나 할까, 마, 굳이 표현한자면 에드벌론이 되어 승천한다고나 할까, 죽어도 동료됨이 없이 강인하고 곳곳하게 목표량 달성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 목표량 달성!

노동자 1 : 아니, 그 목표량이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2 : 말도 안돼요.

주임 : (과장에게) 말이 안된다는데요. 골때린답니다.

과장 : (사장에게) 뭘이 풀린다는데요. 눈깔나 온답니다.

사장 : 야, 너 지금 누구한테 월급 받냐? 사장한테 월급 받는 거냐? 노조한테 월급 받는 거냐?

과장 : 저 공순이년들 둘대거리보다 더 안돌아가는 대가리는 무슨 대가리파에 속하는 거냐? 그것도 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주임 : 대가리도 대가리나름이지요.

(노래가사를 바꾸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른다)

어느날 난 텅빈 내 머리를 붙잡고 내 머리의 허전함을 느꼈죠.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빠져버린 것이 아닐까. 빠져버린 내머리를 다시 찾을 수 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머리없이 살았군요. 난 참 머리없이 살았군요. 난 참 머리없이 살았군요. 우우우 우우우 쪽 팔려.

사장 : 초재기 실시하라구.

과장 : 초재기 실시!

주임 : 초재기 실시!

(노동자들 기계충을 추려할 때, 주임, 이들을 약 올리듯)

주임 : 시-이작! 요-이망! 레-디고, 원투 쓰리 포, 쓰리 투 원 제로!

(주임, 초시계를 들고 '째깍 째깍' 소리 내며 시간을 재고, 노동자들은 정신없이 앞 뒤로 돌아다니며 기계충을 준다)

주임 : 스톱! 자, 봐라. (만족한 듯) 60초에 이렇게 뿔았잖니. 그럼, 하루에 몇 장 뿔나 볼까? $60 \times 60 \times 60 \times 12$ 는? (노동자 얼굴을 컴퓨터 누르듯이 똑똑 눌러대다) 뿔, 자, 증거가 이렇게 있잖아?

노동자 1 : 우리가 로보트예요? 혁명!

2 : 우리가 기계예요? 기계예요?

주임 : 야, 시끄러워, 기계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이나 잘 해주지. 기계만도 못한 년들이.

노 1·2 : 아니 뭐라구요?

(노동자들 험악한 눈빛에 주임 멍청하고 있고, 사장이 나온다)

사장 : 이것 봐, 그러니까 연말 보너스 지금 한 다잖아. 조금만 참고 일들 하자구, 응?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목표량 달성하는 겁니다. 자, 자.

(사장, 노동자들을 달래서 일하게 한다)

노 1 : 보너스도 좋지만 기계처럼 일만 해야 한다니... 노동자로 태어난 게 너무 서러워.

노 2 : 그럴 어떡하니? 연탄도 들여놔야 되구, 설날에 빈손으로 고향 갈거야? 할 수 없어, 사장이 약속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꼭 참고 하라는 대로 해보자.

(노동자들 일하고 있을 때, 한 쪽에서 쑥 덕거리고 있다가 주임이 나와서 월급을 준다)

주임 : 자, 월급이에요.

(노동자를 월급 봉투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노1 :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나스가 없잖아?

노2 : 어머, 너도 없니?

노1 : 예, 속았어, 우리가 또 속은 거야.

노2 : 보나스를 준다고 우리를 기계처럼 부려 먹더니, 이젠 말도 안돼.

노1 : 안되겠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우리가 한 두 번 당하는 거야?

노2 : 맞아, 단단히 따져야 해.

(노동자들 몹시 화가 나고 흥분해서 회사 측으로 따지러 간다. 이때 회사측 간부가 나와서 선을 긋고, 선 안으로 못 넘어 오게 막는다. 잠깐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노1 :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연말 보나스가 없잖아요?

사장 : 살살 말해라. 귀 안 먹었다. 회사 사정이 안 돌아가는 걸 뉘들 어떡하냐?

노2 : 뭐라고요? 저희들 연말 보나스, 언제 주실 거예요?

노1 :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언제 주실건지 약속을 하시라고요.

사장 : 그래,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불경기가 돼서 말이야.

노1 : 불경기, 불경기! 재작년에도 불경기, 작년에도 불경기, 올해도 불경기, 내년에도 불경기겠네요? 아니, 그렇게 뻔뻔 불경기인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노2 : 그러구, 사장님. 불경기인 줄 뻔히 알면서 보나스 준다고 거짓말 하셨단 말이에요?

사장 : 하! 노조가 애들 다 버리네. 니네 노조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냐? 어디 애비 같은 사람 앞에서 눈알을 부라리고 달려드냐, 달려들길.

노1 : 사장님, 여긴 공석이니깐 반말하지 마시고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노2 : 저희가 사장님 딸이에요? 사장님한테 용돈 받으러 온 줄 아세요? 우리가 거지예요? 일한 대가를 달란 말이에요. (노동자들 대들자, 사장, 안절부절하다가 시침을 때며)

사장 : 너희들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서 노사협회의란 말을 모르는가 본데, 내가 설명을 해주지. 노사협회의란 말야, 너희같은 노동자하고 사장님같은 사용자하고 회사사정을 요모조모 따져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너희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찾자

는 거야. 그러면 너희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무엇이나? 회사가 잘 사는 길이이지, 응?

(사장은 혼자서 횡설수설 떠들고 있고, 노동자들은 서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이때 주임이 뛰어들어와서)

주임 :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생산량이 1/3로 떨어져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요. (사장, 혼자 떠들다가 벌떡 화를 내고, 노동자들 후닥닥 나간다)

사장 : 뭐야? 생산량이 1/3로 떨어져?

주임 : 예, 1/3.

사장 : 아니, 그럼 노조에서 태업을 시켰단 말이지?

주임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노조에서 태업시킨 게 아니라 연말 보나스를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니까 이것들이 자포자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장 : 좌우지간 장수는 뿔어야 할테니까 일단 보나스 30% 만 지급하라고. 내 이년들을 그냥 (중얼거린다)

주임 : 자, 여러분 연말 보나스 30% 지급한다. (연말 보나스 30% 지급한 다음, 노조원 두 명을 끌어다가 협박한다)

회사간부1 : 눈알 골게 떠!

회사간부2 : 야, 이 씨가지없는 년들아. 거기 앉아. (노동자들 질질 끌려와서 찬 바닥에 꿇어 앉혀진다)

간부1 : 야, 나야 대하나왔겠다 여길 그만두어도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세고 켜지만 너희야 이거(미성 밟는 시늉한다) 밖에 더 해봤나?

간부2 : 너, 그렇게 방방 뜨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로 끌려간다. 여자가 ××에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치명적이에요. 애도 못놓는다더라. 야, 그러면 시집이나 갈 수 있을 줄 아냐? 그러다가 자살한 애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내 말 들으라고.

간부2 : 좋은 말로 할 때 탈퇴하라고, 노조가 평생 가냐?

간부2 : 효적에 빨간 줄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거라고. (간부 두명이 노동자들을 앉혀놓고 노조탈퇴를 강요하면서 회유, 협박한다)

간부1 : 자, 이해하겠지? 내가 탈퇴서를 이렇게 다 작성해 왔으니깐 너는 도장만 '땡' 찍으면 된다구. 어때? 한번 읽어볼까?

간부 2 : 이 문구를 작성하느라고 우리가 밤을 새웠어요 고맙지? 눈 딱 감고 찍는 거야.

간부 1 : 한번 굳게 잠먹으면 뭐 못 찍을 거 있냐. 응? 자, 들어보라구.

간부 1·2 : 노조없는 태장 메리아스, 회사발전 나라 발전!

간부 1 : 어때? 근사하잖아?

간부 2 : 자, 찍어.
(간부 1, 2, 노동자에게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고 하나 노동자들 완강히 거부한다)

노 1 : 찍을 수 없어요.

노 2 : 우리가 무얼 잘못했나요. 저희는 기계가 아니예요 인간이에요.

노 1 :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건 말도 안돼요. 우리더러 죽으란 말인가요?
(노동자들 강력히 항의한다)

간부 1 : 아니, 이년들이 정신나갔나? 맛을 좀 봐야 정신차리겠어?

간부 2 : 여러 말 할 것 없이 말 안듣는 년은 무조건 해고닷!
(간부들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노동자들을 끌어낸다. 노동자들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간부들은 구타를 한다. 때 맞고 실신한 노동자들을 발로 밟고 간부들 나간다. 쓰러져 있던 노동자들 '선봉에 서서' 노래를 천천히 부르며 일어선다. 판을 돌려 노래하고 난 뒤 취직을 하러 돌아다닌다)

노 1 : 저, 모집공고 보고 왔는데요.

회사측 1 : 이름은?

노 1 : 김덕순...

회사측 1 : 아니, 너 태장노조 아니야? 야, 너 여기까지 몰들일까 겁난다. 썩 나가!

노 2 : 저,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요.

회사측 2 : 전에 어느 회사에서 일했지?

노 2 : 태장 메리아스요.

회사측 2 : 그런데 왜 쫓겨났지? 오라! 너 블랙리스트로구나. 누구 망하는 꼴 볼려구 그래? 필요없어. 다른 데나 가보시지.

회사측 1 : 아니, 너 노동부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내려온 거 몰라?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구.

회사측 2 : 너를 쓰면 우리 회사 원단 공급이 끊긴다. 내 모가지도 언제 날라갈지 모른다구.

회사측 1·2 : 나가, 꺼져! 나가라니까! 필요 없다니까!

회사측 1·2 : 블랙리스트 사절!

(노동자 1, 2 서로 위치를 바꾸어 가며 점 점 지쳐간다)

노 1 : 예전엔 미성소리가 지긋지긋하게 들리더니만 이제는 미성소리가 노랫소리보다 더 그렇게 들리.

노 2 : 미성에서 일하고 싶어.
(노 1, 2 잠시 헤매다가 위장취업을 한다. 판 중앙에서 기계음을 주고 있다)

회사측 1 : 아니, 이년들이 20일 동안이나 나를 속이고서 일했잖아? 이런 과열치한 년들.

회사측 2 : 야! 너 누구 죽는 꼴 보려구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

회사측 2 :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면 뽕밥행이야, 뽕밥행!

회사측 2 : 당장, 나가.

회사측 1 : 해고다, 해고.
(노동자들 다시 쫓겨난다)

노 1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운 것 없고 힘 없는 노동자가 되었다지만 정직하게 일할 권리마저 없단니까?

노 2 : 우린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배앗으면 배앗기고...이제는 블랙리스트라는 명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괴물처럼 우릴 쫓아다니다니.

노 1 : 차라리 우린 죽는 게 나야!

노 2 :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제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노 2 : (노동자들 절규하며 온다. 지쳐 쓰러져서 '이 세계 절반은 나'를 부르는 동안 노동자의 남동생이 누나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다)

편지 : 누나, 그동안 잘 있었어? 누나가 지난 번에 보내 준 연말 보너스 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교과서도 사고 운동화도 샀다. 엄마는 누나 사진을 꺼내 놓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 말쑥은 살림 밑천이래. 우리 옆집에 영철이 누나 있잖아. 서울 가서 대학다니는 누나 말이야. 개네 누나보다 우리 누나가 난 훨씬 더 자랑스러워. 누나, 고생스럽지?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면 언젠가는 꼭 잘 살 날이 있을 거야. 누나 내가 공부마치면 아주 행복하게 해줄게. 누나 용기를 내서 조금만 참아. 요새 감기 지독한 거 알지? 감기 조심하고 특히 연탄가스 조심해 누나. 그럼 이만 줄일게. 근사한 우리 누나에게 동생 철이가.

【회사측과 경찰이 나온다. 큰소리로 웃으며】

회사, 경찰 : 하하하. 우리는 블랙리스트 잡는 삼위일체! (손바닥을 서로 마주 친다) 하하하. 오늘은 2 위일체군요, 네.

회사측 : 저번에 대장노조에서 해고당한 년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다.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러면서 두서없이 지랄발광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노동부가 이자리에 못 나오셨군요.

경찰 : 하하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배후에는 막강한 노동부가 저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설쳐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측 : 물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후, 노동부가 있기에 블랙리스트가 있고.

경찰 : 블랙리스트가 있기에 선진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고당한 년들이 복하면 관사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한다고 지랄을 하는데 우리(부드러운 어조로) 선진 경찰에서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느끼며, 휴대용 컵라면을 가지고 다니며 단식하는 아이들 앞에서 호르록 암암 호르록 암암 먹으면서 식욕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네.

회사측 : 역시 선진경찰단군요. 휴대용 컵라면이라.

경찰 : 저들이 배고르면 달려들어 먹겠지요? 하하하.

회사측 : 이년들이 우리를 약간 아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도는데 빨리 우리의 현장을 외침시다.

회사, 경찰 : 블랙리스트 현장! (선서하듯 손을 올린다)

하나,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블랙리스트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둘, 이땅의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뿌리뽑을 때까지 불철주야 노력한다.

셋, 승공 봉일 조국의 영광된 앞날을 위하여 빨갱이보다 더 간악한 검은 무리, 블랙리스트를 초전 박살내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옵시다.

자, 박수!

(회사측과 경찰, 블랙리스트 현장을 낭송하고 만족해 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온다)

사장 : 모시 모시. 하이, 아세아 스소니데쓰. 하이? 불순분자? 간첩발입니까? 빨갱이

노가 우리 아세아 스소니에 잠입했습니까? 블랙리스트데쓰까? 하! 하이, 하이, 쏘오데쓰!

(사장, 전화에 대고 급실거린 뒤 전화를 끊고 노동자에게 다가간다)

사장 : 아, 나가 김덕순이노지? 너, 불순단체에 가입했지?

김덕순 : 불순단체가 아니라 지오체예요.

사장 : 불순단체에서 당장 탈퇴하지 않으면 해고!

김덕순 :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고 아무리 사장님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지만 이렇게 아무나 해고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장 : 뭐야? 와, 눈깔나온다데쓰.

노동자 : 노동력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노예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개 돼지같은 짐승도 아니라고요. 노동자의 주체성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힘을 합했다고 해서 아예 생존권까지 박탈해 버리고 이렇게 내몰다니 우리가 전염병 환자입니까? 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여길 나가면 파출부를 하든 뭐든 하든 제 한 목숨이야 먹고 살겠지만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어요. 끝까지 일할 거예요.

사장 : 뭐야?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측 남자 사원이 달려들어 김덕순을 끌어내려고 한다. 완강하게 버티는 노동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한다. 그래도 악착같이 일을 하자. 사장.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노동자들을 제러본다. 사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주임에게, 주임이 쟁패에게 무언가를 지시한다. 쟁패는 다시 지명수배자인 후배 청년을 시켜서 김덕순을 강간하도록 지시한다)

쟁패 : 자, 100만원이다. (돈을 건네주며) 실수 없이 처리하도록.

청년 :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청년 : 그럼 이번 한 번만 하면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 거요?

쟁패 :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일 끝나고 좀더 생각해 줄테니 잘 알아서 하라구.

(쟁패, 멀리서 김덕순을 손가락으로 가

리켜준다. 청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노동자들, 일을 끝내고 누워서 자고 있다. 청년, 손에 칼을 쥐고 두리번거리며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누워있는 노동자 한 명의 다리를 밟는다. 놀라서 깨어난 노동자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칼로 위협한다)

노동자 1 : 누,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청년 : 시끄러! 큰 소리내면 죽인다.

(노동자들 서로 붙잡고 앉았다가, 침착을 되찾으며)

노동자 1 :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 우린 다 알아요.

청년 : (당황하며)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노 2 : 그래 여긴 어떻게 왔죠?

청년 :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안해? 안 그러면 죽여 버릴거야.

노 1 : 우린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노 2 : 그래요. 개죽음을 당하기는 싫어요. 당신... 우리 회사 사장이 시켰지요?

노 1 : 죽이라고 하던가요?

청년 :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노 2 : 그럼 강간하러 왔어요?

청년 : 음... 음... 일종의 강간...

노 1 : 당신 도대체 몇 살이에요?

청년 : 스물 두살...

노 2 :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지?

청년 : 나는 형집행정지중이에요. 신분증도 없는 데다 쫓기는 몸이에요. 선배하고 약속을 했어요. 남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노 1 : 무슨 죄로 우릴 해치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울먹인다).

노 2 : 당신도 보십시오. 우린 가난한 노동자일 뿐이에요. 저번에도 공장에 들어갔다가 노동조합원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번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무 데도 취직을 못 하게 하더니, 이젠 이런 짓을 다...

노 1 : 당신도 생각을 해 봐.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잖아.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본놈 사장이 시켰다고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청년, 고개를 떨구고 칼을 내려 놓는다. 노동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는 일어서서 그냥 나가려고 한다. 김덕순 청년을 뒤쫓

아 나가며)

김덕순 : 잠깐만. 당신 집이 어디야?

청년 : 저쪽이에요. 저 여관에서 친구하고 선배하고 잘 기다리고 있어요.

김덕순 :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 줄 수 없겠어?

청년 : 나는 형집행정지중이에요. 저 사람들 말을 안 듣게 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김덕순에게 달려들어 손을 꼭 잡는다)

청년 : 누님, 안 되겠어요. 나를 봐주는 셈치고 한번만 누님.

(김덕순을 강간하려고 한다)

김덕순 : 왜 이래. 이거 봐. 안돼. 그냥 가서 했다고 하면 되잖아.

(김덕순, 청년을 뿌리친다. 청년, 한 걸음 물러갔다가 다시 달려든다)

김덕순 : 좋아.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없어. 저기 여관으로 가.

(청년과 함께 여관으로 가다가 도망쳐 나온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 간부가 와서 이리저리 살피며 피식피식 웃는다)

간부 : 이봐, 지난 밤에 어디서 잤지? 이 더운 여름날 뭘 긴팔이야?

김덕순 : 남이야 긴팔을 입든 짧은 팔을 입든 무슨 상관이에요?

간부 : 목에 뭘 상처지? 정말 지난 밤에 무슨일이 있던 게로군.

김덕순 :

간부 : 참 내, 처녀가 말이야... 너도 시집가긴 다 글렀다.

(간부, 빈정대며 퇴장하고 김덕순 관객을 향해)

김덕순 : 전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했지만 소위 배웠다는 높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고 했는데, 피땀 흘려 일하고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이제 여자라는 약점 때문에 강간위협까지 받게 되다니 이게 대체 어찌 정의 구현 사회입니까?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휴지조각처럼 찢어버리고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인가요? 여기 강간범이 쓴 회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 용악 범죄조차도 고개를 돌리는 이런 살인적인 만행을 뒤에서 사주하고 조작하는 놈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이 인간입니까?

(김덕순의 절규로 끝난다)

여성평우회의 지침

1. 우리는 남녀를 차별하는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개혁을 위해 일한다.
1. 우리는 남녀 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 일한다.
1.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일한다.



여성달력은 여성평우회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여성달력은 일터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값 2,000원

구입에 관한 문의는 여성평우회
전화 717-1060으로 해주십시오.

일반회원 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회비 24,000원을 내거나 두번에 나누어 내면 여성평우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회보·팸플릿을 받아보고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

회비는 회원의 권리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입금 후 성명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한일은행 005-02-417751 홍미영

한국주택은행 4127-01-84-3058 홍미영

여성평우회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179-14 태창빌딩 302호 ☎ 717-1060

-----절취선-----

입회원서

이름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회종학력	(기혼·미혼)	
자택주소		
자택전화		
직장명		
직장전화		
일반회비	1년 24,000원(2회 분납가능)	
본인은 귀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8 년 월 일		
①인		
● 가입하게 된 동기		

창간호 <1984. 6. 15>

- 창간사
- 여성해방에 관한 史的 小考
- 소외된 여성을 찾아서
- 여성계 소식

제 3호 <1985. 3. 15>

- **논단** /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재평가 II
—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
- **특별기획** / 제 3 세계 여성운동 이론
사례 I : 칠레여성운동
- **시평** / MBC시위사건과 여권 운동의 방향
여성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좌절
파티마병원 간호원 농성 사건과 사우디 취업간호원 복귀거부
각계각층에 가해지는 성적 폭력
「헤이본 펀치」 사건과 한일 관계
12대 총선에 나타난 각당의 여성정책 및 선거 공약

- **투고** / 가족법 개정의 좌절을 딛고 노동조합을 통해 새롭게

- **부록** 1. 여성문화큰잔치를 평가한다.
2. 대본 / 딸놀이마당
사례극마당/여교사 임신 퇴직/버스 안내양 자살

제 2호 <1984. 10. 21>

-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재평가
- 조기정년제의 이론적 조명
- 사례연구

1. 43세 정년 억울하다
2. 결혼각서제는 폐지됐으나
3. 평균근무년수 2년
4. 결혼과 불안한 교권
5. 남녀차별의 벽을 뚫기도
6. 결혼퇴직제로 인한 기혼여성의 재고용

- **이땅의 여성들** “이놈의 돈 쓰나 봐라”
- **여성계소식**
- **광고** 여성문화큰잔치

여성평우회 자료 및 역사

가족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1984. 3. 14)

여성문화큰잔치

1 집 (1984. 10. 26~27)

2 집 (1985. 11. 16~17)

여성관계문헌목록집

(보완판) (1985. 11. 16)

제 3 세계 여성노동

여성평우회편 (창작과비평사, 1985. 5. 10)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모읍니다”

여성해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여성평우」를 알차게 할 것입니다.

여성운동에 관한 논문·평가·의견
여성문제에 대한 비평, 수상, 투고
여성, 삶의 현장, 여성소식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 2동 179-14
태창빌딩 302호 ☎ 717-1060

여

성

평

우